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사학위논문

현대 한국어 ‘하오체·하계체’의  
사용 양상과 문화적 문식성 고찰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한 국 어 문 학 과

한 국 어 교 육 전 공

나 동 숙

박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신경숙

# 현대 한국어 하오체·하계체의 사용 양상과 문화적 문식성 고찰

Analysis on the Usage of Hao-style and  
Hage-style Honorifics in Contemporary Korean  
Language and Reflection on its Cultural Literacy



HANSUNG  
UNIVERSITY

2018년 6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한 국 어 문 학 과

한 국 어 교 육 전 공

나 동 숙

박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신경숙

# 현대 한국어 ‘하오체·하계체’의 사용 양상과 문화적 문식성 고찰

Analysis on the Usage of Hao-style and  
Hage-style Honorifics in Contemporary Korean  
Language and Reflection on its Cultural Literacy

위 논문을 문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6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한 국 어 문 학 과

한 국 어 교 육 전 공

나 동 숙

나동숙의 문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18년 6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 국 문 초 록

## 현대 한국어 ‘하오체·하계체’의 사용 양상과 문화적 문식성 고찰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한 국 어 문 학 과  
한 국 어 교 육 전 공  
나 동 숙

이 논문의 목적은 현대 한국어 하오체·하계체의 사용 양상과 문화적 문식성을 고찰하여 특수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적 문식성 교육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에 있다. 한국어의 대표적인 특징인 상대높임법은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 따라 다양한 종결표현으로 실현되며 높임의 정도와 격식성 여부에 따라 여러 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그 가운데 하오체·하계체는 현대 한국어에서 실제 대화 상황에서 듣고 말하는 기회가 줄어들었다.

그렇지만 모어 화자들은 각종 도서, TV 드라마, 영화, 광고 등 다양한 매체의 콘텐츠에 여전히 하오체·하계체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대의 모어 화자는 무엇 때문에 하오체·하계체를 이처럼 여러 콘텐츠에서 사용하는 것일까. 그것은 하오체·하계체에 허쉬(E.D. Hirsch, Jr.)가 이야기한 문화적 문식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하오체·하계체에 ‘한국어 모어 화자들이 공유하는 공통의 배경 정보’가 있어서 하오체·하계체가 사용된 콘텐츠를 읽거나 볼 때 하오체·

하게체로 표현된 ‘내용을 이해’하고, 하오체·하게체를 ‘사용한 의도를 파악’하며, 콘텐츠 안에 ‘드러나지 않은 맥락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모어 화자들은 실제 구어에서의 사용 빈도가 줄어든 하오체·하게체의 문화적 문식성을 어떻게 습득하는 것일까? 그 해답은 바로 교육용 텍스트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아동용 전래 동화와 초·중등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하오체·하게체 텍스트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하오체·하게체 습득이 문식성 차원에서 이루어짐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의 공통 교육과정에서 학습하는 초·중등 국어 교과서에서 하오체·하게체가 들어 있는 텍스트를 모두 찾아 목록으로 만들고 분류하여 정리했다.

그 결과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문식성 발달 초기부터 유아용 전래동화와 아동용 전래 동화를 통해 하오체·하게체를 습득함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초·중국어교과서에서 단계적으로 하오체·하게체 텍스트의 수와 종류가 늘어나는 것도 확인하였다. 이는 하오체·하게체의 문화적 문식성이 공통 의무교육과정을 통해 점차 확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유아용 전래 동화와 초·중국어교과서에 수록된 하오체·하게체 텍스트를 분류, 정리한 구체적인 예를 통해 문화적 문식성을 세 가지로 고찰해보았다. 즉, 하오체·하게체의 문화적 문식성은 첫째, ‘전통 문화와 역사에 대한 지식’ 둘째, ‘하오체·하게체의 규범적 사용’ 셋째, ‘하오체·하게체의 전략적 사용’으로 나누었다. 이처럼 나눈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모어 화자들은 하오체·하게체를 전통 문화와 역사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장치로 쓰고 있다. 이는 하오체·하게체를 통해 ‘전통’과 ‘역사적 지식’을 잘 전달할 수 있다는 모어 화자의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 따라 하오체·하게체의 사용에 전형성을 보이는 규범적인 용법은 하오체·하게체가 가진 특유의 화용 맥락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어 모어 화자는 상대높임법의 화계를 다양하게 가짐으로써 화자의 의도를 드러내게 되는데 이러한 전략적 용법은 하오체·하게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어 화자들은 하오체·하게체를 캐릭터를 창조하거나 특별한 분위기를 나타내는 ‘표지’로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하오체·하게체가 가진 사용 맥락의 전형성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모어 화자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습득하는 하오체·하계체의 문화적 문식성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별도의 교육이 수반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의 한국어 교육에서는 실생활에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외되거나 종결어미의 일종으로 교육하는 것에 그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오체·하계체의 문화적 문식성과 관련한 교육이 수반된다면, 외국인 학습자들은 모어 화자들이 다양한 매체 속에서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는 하오체·하계체로 표현된 많은 언어 자료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에 살면서 자녀를 교육해야 하는 결혼이민자는 물론 다문화배경의 중도입국 자녀들과 여러 이유로 한국에서 장기간 거주하거나 영주권 또는 귀화를 원하는 외국인 학습자들은 하오체·하계체에 실린 한국의 문화적 내용에 대해 알아야 한다. 또한 한국의 역사와 사회 문화 등 ‘한국학’을 공부하는 유학생도 하오체·하계체 텍스트를 접하게 된다. 그런 경우에 한국의 모어 화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하오체·하계체가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맥락과 역사적, 문화적 배경지식을 알아채야 한다.

한국어를 학습하는 것은 한국어로 표현되는 한국의 문화까지 배워 익혀 문화적 문식성을 향상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문화적 문식성이 바탕이 되어야 모어 화자들과의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상호문화적인 관점에서 한국어 학습자는 모어 문화에 기반을 두고 있는 자신의 잠재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하오체, 하계체, 상대높임법, 화계, 화용 맥락, 문화적 문식성, 문식성 발달, 전통 문화 어휘, 역사 지식, 규범적 사용, 전략적 사용, 한국어교육



# 목 차

I. 서 론	
1.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1
1.2 연구의 대상과 방법 .....	6
1.3 선행 연구 .....	9
II. 문화적 문식성 .....	19
2.1 문식성의 정의 및 기능 .....	19
2.2 문화적 문식성의 개념 .....	23
2.3 개별 문화 항목별 문화적 문식성의 재개념화 .....	26
2.4 아동의 문식성 발달 .....	30
III. 현대 한국어의 하오체·하계체 사용 양상 .....	38
3.1 유아용 도서 수록 하오체·하계체 텍스트 .....	39
3.2 초등 국어 교과서 수록 하오체·하계체 텍스트 .....	49
3.3 중등 국어 교과서 수록 하오체·하계체 텍스트 .....	72
IV. 하오체·하계체의 문화적 문식성 .....	107
4.1 전통 문화와 역사에 대한 지식 .....	108
4.2 하오체·하계체의 규범적 사용 .....	113
4.3 하오체·하계체의 전략적 사용 .....	124
V. 결 론 .....	153
참고문헌 .....	156

## 표 목차

[표 1] 상대높임법 체계-남기심·고영근(1985) .....	11
[표 2] 상대높임법 체계-국립국어원(2005) .....	11
[표 3] 전래 동화 속의 하오체·하계체 사용 맥락 정보 .....	47
[표 4] 초등 국어 교과서 수록 하오체·하계체 포함 텍스트 목록 .....	51
[표 5] 초등 국어교과서 하오체·하계체 텍스트의 특징 .....	53
[표 6] 화청자에 관한 정보-신분, 관계, 호칭 .....	60
[표 7] 초등 국어교과서 삽화 속의 하오체·하계체 화·청자 맥락 정보 .....	71
[표 8] 중등 국어교과서 수록 하오체·하계체 텍스트 수 .....	73
[표 9] 교과서별 수록된 하오체·하계체 포함 텍스트 목록(중복 포함) .....	74
[표 10] 글의 갈래별 하오체·하계체 제재의 수와 제시빈도 .....	84
[표 11] 중학교 교과서 하오체·하계체의 텍스트 목록-시 .....	85
[표 12] 중학교 교과서 하오체 텍스트 목록-고전시가 .....	88
[표 13] 중학교 교과서 하오체·하계체 텍스트 목록-현대소설 .....	89
[표 14] 중학교 교과서 하오체 텍스트 목록-설화 .....	91
[표 15] 중학교 교과서 하오체·하계체 텍스트 목록-고소설 .....	91
[표 16] 중학교 교과서 하오체·하계체 텍스트 목록-수필 .....	93
[표 17] 중학교 교과서 하오체·하계체 텍스트 목록-시나리오 .....	94
[표 18] 중학교 교과서 하오체·하계체 텍스트 목록-위인전류 .....	95
[표 19] 중학교 교과서 하오체·하계체 텍스트 목록-자서전 .....	96
[표 20] 중학교 교과서 하오체·하계체 텍스트 목록-역사물 관련 글 .....	97
[표 21] 중학교 교과서 하오체·하계체 텍스트 목록-언어문화 관련 글 .....	97
[표 22] 중학교 교과서 하오체·하계체 텍스트 목록-만화 .....	98
[표 23] 중학교 교과서 하오체·하계체 텍스트 목록-노래가사 .....	100
[표 24] 중학교 교과서 하오체·하계체 텍스트 목록-기타 .....	101
[표 25] 중학 국어교과서 삽화 속의 하오체·하계체 화·청자 맥락 정보 .....	105

## 그림 목차

[그림 1] 표지판, 간판 및 광고 등에 사용된 하오체 .....	3
[그림 2] 문식성 개념의 확장 .....	20
[그림 3] 문식성 영역의 확대 .....	21
[그림 4] 유아용 사운드 북 〈별거벗은 임금님〉 .....	40
[그림 5] 『국어 3-1 가』 〈토끼의 재판〉 삽화 .....	65
[그림 6] 하계체를 사용한 삽화 1 .....	69
[그림 7] 하계체를 사용한 삽화 2 .....	69
[그림 8] 하오체를 사용한 삽화 1 .....	70
[그림 9] 하오체를 사용한 삽화 2 .....	71
[그림 10] 하오체를 사용한 만화 1 .....	99
[그림 11] 하오체를 사용한 만화 2 .....	100
[그림 12] 하계체 사용례 1-가족(장모와 사위) .....	103
[그림 13] 하계체 사용례 2-직장 선후배 .....	103
[그림 14] 하계체 사용례 3-지인 .....	104
[그림 15] 하오체 사용례-외교 사진 .....	105
[그림 16] 교학사_남미영 『중등 국어 6』 삽화(p. 94) .....	111
[그림 17] 하오체를 사용한 팸플릿-한국민속촌 .....	143
[그림 18] 하계체를 이용한 광고 .....	144

# I. 서론

## 1.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이 연구의 목적은 현대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하오체·하계체 습득 양상을 분석하여 하오체·하계체에 내재하는 문화적 문식성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는 특수 목적 한국어 학습자<sup>1)</sup>의 문화적 문식성 향상을 위한 교육의 토대가 될 것이다.

하오체·하계체는 모어 화자가 다양한 매체와 학교 교육을 통해 문어의 형태로 수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배경과 등장인물들 간의 신분, 사회적인 관계에서의 차이를 드러내기 위한 ‘표지’로 현대 한국어에서도 사용하고 있다(나동숙 2016:59). 또한 하오체·하계체는 한국어 모어 화자들이 공유하는 전통 문화와 관련된 어휘, 지식과 연동되고 화·청자 관계를 의식하는 현상을 잘 드러내주는 ‘장치’가 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하오체·하계체에 내재된 한국의 문화이다.

문화는 한 공동체 안에서 공유된 삶의 모든 면과 관계되며 개인의 무의식적인 삶의 한 부분이 되는 것들이다(M. Rivers 1981:316). 이러한 ‘무의식적인 삶의 한 부분이 된’ 문화가 하오체·하계체에는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는 옛날 말투’라고 생각하면서도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 언어 지식으로 가지고 있고 생활 속에서 널리 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하오체·하계체에는 허쉬(E.D. Hirsch, Jr.)가 이야기한 문화적 문식성<sup>2)</sup>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한국어 모어 화자들이 공

1) 여기에서는 한국에 이주하여 삶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한국어를 제2언어로서 학습해야 하는 외국인과 한국학을 공부하는 학습자를 의미한다. 즉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 그리고 한국학 관련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2) E.D. Hirsch, Jr.는 1987년 그의 저서 ‘문화적 문식성, 모든 미국인이 알아야 할 것(Cultural Literacy: What Every American Needs to Know)’에서 문화적 문식성은 모든 유능한 독자들이 갖고 있는 정보의 네트워크로서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배경 정보이고 그것은 신문을 들고 읽을 때 적절한 수준으로 이해를 하고, 핵심을 잡고, 함축을 파악하고, 읽은 것을 행간의 맥락과 관련지을 수 있게 한다고 말하였다. (E.D.Hirsch, Jr., I call cultural literacy namely, the network of information that all competent readers possess. It is the background information, stored in their minds, that enables

유하는 공통의 배경 정보'인 것이다. 말하자면 하오체·하계체가 사용된 텍스트를 읽는다는 것은 하오체·하계체로 표현된 '내용을 이해'하고, 하오체·하계체를 '사용한 의도를 파악'하며, 텍스트 안에 '드러나지 않은 맥락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한국어로 표현되는 한국의 문화까지 배워 익혀 문화적 문식성을 향상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문화적 문식성이 바탕이 되어야 모어 화자들과의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학습자는 상호문화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모문화에 기반을 둔 잠재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오체·하계체는 한국어의 대표적인 특징 중의 하나인 상대높임법의 종결 표현의 일부이다. 다른 언어에 상대를 예우하는 표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청자와의 관계와 상황 맥락까지 표현하는 한국어의 상대높임법은 다른 언어에 비해 매우 복잡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sup>3)</sup> 그러므로 문장의 종결형으로 높임법을 나타내는 체계가 없거나 높임법의 체계가 다른 모어를 사용하는 대다수의 한국어 학습자들은 상대높임법 학습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이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 있어 한국어교육에서는 초급부터 매우 중요하게 교육하고 있다.

그런데 상대높임법 교육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은 하오체·하계체이다(박지순 2015:54). 현대 한국어에서 구어로 사용하는 빈도가 현저히 줄어들어 듣고 말하는 기회가 적은데 굳이 가르쳐야 하는가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실제 한국어교육에서는 아예 제외되기도 한다. 설령 배울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매우 간단한 설명에 그치고 있거나 종결어미의 형태 변환 연습에 머문다(이은희 2010:287). 따라서 그 의미와 기능을 제대로 익히기가 매우 어렵다.

이처럼 하오체·하계체가 한국어교육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것은 모어 화자들의 현실 구어에서 이 상대높임법이 거의 사라졌다는 사실과 관련이 깊다.

---

them to take up a newspaper and read it with an adequate level of comprehension, getting the point, grasping the implications, relating what they read to the unstated context which alone gives meaning to what they read(Cultural literacy, 2).

3) 상대높임법이 존재하는 언어는 한국어와 일본어 그리고 자바어를 들 수 있다.(조현용, '반말과 높임말이 있는 한국어', 2016.2.16일자 미주 중앙일보 기사)

그러나 현대 한국어에서 하오체·하계체의 구어 사용 빈도가 줄었다고 해서 모어 화자들이 정말 하오체·하계체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모어 화자들이 의식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지금도 일상에서 하오체·하계체를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무심히 지나치는 공공장소에는 ‘미시오’ ‘당기시오’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쓰인 팻말을 볼 수 있다. 오가는 길에서도 일상 용품을 싸게 파는 가게의 ‘필요한 건 다 있소! 원하는 가격에 다 있소! 어디든지 다 있소! 언제나 우리 곁에 다이소’ 간판을 만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대중교통인 지하철 스크린도어에는 ‘꽃피는 봄에 영주로 놀러오소~’와 같은 광고가 붙어있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신문에서 ‘경주로 놀러 오이소’와 같은 뉴스 제목이 걸리기도 한다.

[그림 1] 표지판, 간판 및 광고 등에 사용된 하오체



이런 하오체는 대중가요에서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1980년에 만들어진 노래 〈풍문으로 들었소〉<sup>4)</sup>는 영화 삽입곡<sup>5)</sup>으로 쓰이기도 했고 인기 드라마의 제목<sup>6)</sup>으로도 사용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신세대 가수들에 의해 계속

4) 1980년 함중아와 양키스가 발표한 곡이다.

5) 2011년 영화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에서 밴드 장기하와 얼굴들이 리메이크해 노래한 곡으로 삽입됐다.

6) 2015년 SBS 방영된 〈풍문으로 들었소〉는 화제를 모았던 인기 드라마였다. 이 드라마에서는 함중아와

새롭게 불리고 있다. 또한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sup>7)</sup>라는 가사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역시 1995년에 발표된 이래 꾸준히 젊은 가수들에 의해 세대를 거듭하여 새롭게 불리고 있다.

이런 경향은 오늘날 나이 어린 세대가 접하는 언어 현실 속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젊은이들이 즐겨하는 인터넷 게임과 만화에서도 하오체·하계체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sup>8)</sup> 이 외에도 매년 수 편 씩 제작되는 사극 영화나 드라마의 ‘앞으로 계속 이리 할 것ियो,’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한 단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네.’<sup>9)</sup>와 같은 대사는 사극 대화체의 주류이다.

한편 현실 구어의 대화체에서도 하오체·하계체는 사용되고 있다. 예컨대 가족 관계, 선후배, 친구, 직장의 상하 관계에서 여전히 하오체·하계체를 사용하고 있다.<sup>10)</sup> 이처럼 현대 모어 화자들은 언어생활 전반에 걸쳐 하오체·하계체를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잘 사용되지 않는 옛날 말투’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바로 이 점이 다른 화계와는 구별되는 하오체·하계체만이 가지는 특별한 ‘변별력’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나동숙 2016:64).

그것은 바로 현대에서 사라진 ‘신분’을 대신하여 알게 모르게 존재하는 ‘종적인 계층’을 분명하고 다양하게 나타내 주는 것이다. 즉 현대 사회에 명시적인 신분의 계층은 존재하지 않지만 가족 관계, 나이, 직위 등에서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말하는 상대를 구분하여 말하고자 하는 의식은 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대 한국의 모어 화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실제 구어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하오체·하계체를 과연 언제부터, 어떻게 언어 지식으로 갖게

---

양키스의 원곡이 엔딩곡으로 사용되었다.

- 7) 1995년 가수 김광석의 불러 유명해진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작곡 김목경, 1990)’는 최근까지 계속 여러 가수에 의해 불리고 있는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노래이다.
- 8) 게임 ‘스림’, ‘오버워치’ 등에서 캐릭터에 따라 하오체를 사용하기도 하고 만화가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조선시대의 여러 등장인물들이 하오체·하계체를 사용하여 대화하는 장면이 빈번하게 나온다.
- 9) 2016년 10월 22%의 시청률로 종영한 KBS 사극 ‘구르미 그린 달빛’ 18회의 주인공 ‘이영’이 왕위에 등극하며 말하는 대사이다.
- 10) ‘하계체’는 경상북도 등 지방의 나이 든 사람들 사이에서 흔하게 쓰는 어투이다. 심지어는 20대인 사람도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에서 사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전라남도 지역에서도 부부 사이에 ‘하오체’를 흔하게 사용한다.



되는 것일까? 모어 화자들은 이러한 문식성을 일찍이 전래 동화와 같은 유아용 도서에서부터 습득하기 시작한다(나동숙 2016:65-66). 또한 이후 공통 의무 교육과정을 통해 문식성을 더욱 발달시킨다. 즉, 공통 교육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배우는 교과서와 학습 관련 도서에 수록된 하오체·하계체 텍스트를 통해 하오체·하계체의 ‘문식성’을 확고하게 갖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하오체·하계체 습득 과정에서 볼 때 지금까지 하오체·하계체를 ‘말하기’를 전제로 하는 상대높임법 화계의 일종으로만 이해하던 방식에 전환이 필요하다. 즉 ‘말’이 아닌 ‘글(텍스트)’이라는 문식성 측면으로 바라봐야 한다. 모어 화자들은 하오체·하계체를 ‘텍스트를 통한 문어’로 습득하여 하오체·하계체에 내재하는 문화적 문식성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것이다.

언어는 구어로 ‘의사소통’하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식 전달’과 ‘문화 전수’의 기능도 함께 가진다. 이것을 통해 모어 화자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아가게 된다. 모어 화자에게 하오체·하계체는 상대높임법의 일종이라는 언어 지식임과 동시에 이것에 담겨 전해지는 ‘한국의 문화적 요소’를 습득하는 수단이자 통로인 것이다.

모어 화자가 오랜 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습득하는 하오체·하계체의 문화적 문식성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별도의 교육이 수반되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하오체·하계체의 문화적 문식성과 관련한 교육을 하지 않는다면 외국인 학습자들은 모어 화자들이 다양한 매체 속에서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는 하오체·하계체로 표현된 많은 언어 자료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에 살면서 자녀를 교육해야 하는 결혼이민자는 물론 다문화배경의 중도입국 자녀들과 여러 이유로 한국에서 장기간 거주하거나 영주권 또는 귀화를 원하는 외국인 학습자들은 하오체·하계체에 실린 한국의 문화적 내용에 대해 알아야 한다.

또한 한국의 역사와 사회 문화 등 ‘한국학’을 공부하는 유학생도 하오체·하계체 텍스트를 접하게 된다. 그런 경우에 하오체·하계체가 내포하고 있는 여러 맥락과 역사적, 문화적 배경지식 즉 한국의 모어 화자에 준하는 수준의 문화적 문식성이 필요하다.



## 1.2 연구의 대상과 방법

앞 절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한국 사회에 이주하여 정착하려거나 한국학을 공부하는 외국인 학습자들은 한국인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생활해오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한 문화 요소들을 짧은 기간에 대등한 수준으로 습득(김동환, 2010)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특수 목적을 가진 한국어 학습자들은 모어 화자들과 대등한 관계에서 충분히 의사소통하기 위하여 모어 화자에 준하는 수준의 하오체·하계체의 문화적 문식성이 필요하다. 모어 화자들은 언어생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상대높임법 하오체·하계체를 사용하고 있으며 하오체·하계체에 내재하는 문화적 문식성을 습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이러한 교육을 하려면 모어 화자들의 하오체·하계체 습득 과정을 살펴 하오체·하계체의 문화적 문식성이 무엇인지 고찰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모어 화자들이 어떻게 하오체·하계체를 습득하는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구어가 아닌 문어 텍스트를 통해 하오체·하계체의 문화적 문식성을 습득한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연구의 대상은 모어 화자가 공통 의무교육과정에서 반드시 접하게 되는 텍스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보편적인 습득 양상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 대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치원 누리과정에서 사용하는 전래 동화에 수록된 하오체·하계체 텍스트들이다. 문식성 발달 단계로 볼 때 유아기는 기초문식성을 습득하는 시기이다. 그리고 전래 동화는 가정에서 양육자가 읽어주는 경우가 많아 가정 문식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치원 과정은 초등교육 과정과 긴밀하게 관련 되어 있어 이 시기에 읽는 전래 동화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리기도 한다. 따라서 모어 화자의 하오체·하계체의 문화적 문식성 습득 과정의 출발은 전래 동화의 하오체·하계체 텍스트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초등학교 과정의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사용하는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하오체·하계체 텍스트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공통 의무교육과정인 초등교육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하오체·하계체 텍스트들

이다. 한국어 모어 화자들이 초등학교 6년 동안 배우는 국어 교과서에는 언어 교육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다음 세대에게 거는 기대와 염원이 담겨 있다<sup>11)</sup>. 한국 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자국어 교과를 중시하는데 그 까닭은 이 교과가 말하기·듣기·읽기·쓰기의 언어 사용에 필수적임은 물론 자국의 정체성을 형성시키는 데에도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역시 의무교육과정인 중학교과정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사용하는 국어교과서의 하오체·하계체 텍스트들이다. 중학교 과정에서 사용하는 국어 교과서는 초등학교와 달리 검정교과서이다. 그러나 이 역시 국가 공통 교육 과정을 따르게 되어 있으며 최종적으로 국가로부터 승인을 받는 교과서이므로 모어 화자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연구 대상인 유아용 도서와 초·중 국어 교과서의 하오체·하계체 텍스트들 가운데는 전래 동화, 설화, 고소설과 같은 ‘과거’의 텍스트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대’ 한국어로 본 것은 이들 텍스트는 시대와 함께 변화해오며 지속적으로 새롭게 출판되어 온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텍스트들은 현재를 사는 모어 화자들을 위한 것이므로 ‘현대’ 한국어라고 하였다.

한편, 연구 방법으로는 먼저 선행 연구를 통해 높임법과 상대높임법에서 하오체·하계체의 화계로서의 위상, 화용적 특징, 최근 연구 방향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한다. 또한 한국어교육에서 이미 연구된 결과로부터 한국어교육에서의 상대높임법과 하오체·하계체 화계의 위상을 살펴본다. 또한 이 논문에서 주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식성과 문화적 문식성에 관한 논의들을 살핀다. 이와 함께 문식성 발달 측면과 가정 문식성에 대한 개념도 확인한다.

한국어 모어 화자들의 하오체·하계체 습득 양상을 분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 대상인 유아용 전래 동화에서는 하오체·하계체의 가장 기본적인 맥락정보 즉, 화자와 청자의 신분, 관계, 호칭 등을 조사한다.

다음으로 의무 교육 과정인 초등학교의 국어 교과서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두 살펴서 하오체·하계체를 포함하는 텍스트가 어느 정도의 양으로 수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이어서 텍스트의 특징

11) 한국의 현행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 국어과에 대해 바른 국어 생활을 통해 건실한 인격을 형성하여 건전한 국민정서와 미래 지향적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과목이라 정의하고 있다(이미숙, 송정식 2012).

을 글의 갈래, 화제, 대화쌍의 길이, 시간 배경, 출판 년도로 나누어 조사한다. 또한 하오체·하계체 텍스트의 화청자의 신분, 관계, 호칭 등 맥락 정보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사용하는 국어 교과서 역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연구한다. 즉, 1학년부터 3학년 전 과정에서 사용하는 검정 국어 교과서 14종을 모두 조사하여 하오체·하계체를 사용한 텍스트를 분류한다. 그 후 교과서별 특징을 살펴보고 하오체·하계체가 포함된 텍스트가 어느 정도의 양이 수록되었는지, 어떤 갈래인지, 사용된 맥락은 무엇인지 자세히 확인함으로써 하오체·하계체로 표현되는 문화적 문식성을 파악하도록 한다.

특히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는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비해 매우 다양한 장르의 하오체·하계체 텍스트가 존재한다. 영화와 드라마, 민요, 가요, 광고, 만화 등 다양한 매체로 표현된 하오체·하계체의 구체적인 예를 찾아 분석한다.

이렇게 연구 대상 텍스트들을 분석한 결과들은 문화적 문식성을 고찰할 기본 자료가 된다. 이들 자료로 상대높임법의 사용 맥락과 화제의 변화를 통해 의도하는 언어 사용 전략, 배경이 되는 시대 등을 구분하여 그것이 주는 의미를 분석한다. 이때 문식성 발달 단계에 따른 하오체·하계체 텍스트들의 맥락 정보의 변화가 있는지도 면밀히 살핀다.

이러한 작업이 한국어학습자들의 문화적 문식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의 토대가 될 수 있다. 향후 이 논문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어교육에서 하오체·하계체 관련 교육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색해 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1.3. 선행 연구

이 절에서는 먼저 높임법과 상대높임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한국어교육에서 상대높임법의 위상과 하오체·하계체의 교육 현황을 개괄하겠다. 이어서 상대높임법 연구의 변천을 간략하게 알아보고 상대높임법 화계 설정, 하오체·하계체의 화계, 사회언어학, 화용론의 관점에서 논의된 선행연구들을 정리하도록 한다.

한국어의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인 높임법<sup>12)</sup>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먼저 서술어의 주체를 높이는 주체높임법, 다음으로 문장의 서술 객체를 높이는 객체 높임법, 마지막으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달리 표현되는 상대높임법이 있다.

이 가운데 상대높임법은 다른 높임법에 비해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복잡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청자를 나타내는 지칭어 및 문장의 종결형에서 존대와 하대의 구분이 명백하고 이들이 또 각각 여러 단계로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성기철 2007:102). 이런 특징으로 인해 한국어 학습자들에게는 학습이 어려운 문법 범주이다. 특히 적절한 서법과 상대높임법의 화계를 고려해 종결어미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힘들게 여긴다(박석준 2005:86, 박지순 2014:87).

이렇게 청자를 구분하는 상대높임법은 한국어교육에서는 주체높임법<sup>13)</sup>이나 객체 높임법<sup>14)</sup>에 비해 우선적으로 초급 단계에서부터 가르치게 된다. 다른 높임법에 비해 우선순위로 논의되는 이유는 상대높임법이 종결어미로 실현되기 때문에(오광근 2013:342)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학습자들도 상대높임법의 화계의 차이를 알아야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대높임법을 잘못 사용

12) 높임법은 여러 연구에서 경어법, 존대법, 공대법, 겸양법, 존비법 등의 용어로도 불리고 있다. 높임법이라는 용어는 청자에 대한 낮춤의 의미를 포괄하지 못하고 상대에 대한 높임과 낮춤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인간관계와 사회적 상황에 알맞게 대우한다는 의미로 '대우법'이라고 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현대 국어의 학교 문법과 한국어교육에서 사용하는 '높임법'으로 쓰기로 한다.

13) 주체높임법이란 화자가 '께서'와 같은 조사와 '-시-'등의 어미를 사용하여 말하는 문장 속의 주어를 높이는 것이다.

14) 객체높임법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방법으로 서술어 '드리다, 모시다, 여쭙다, 여쭙다, 뵈다, 뵈다' 등의 동사나 조사 '께'를 통해 실현된다.

함으로써 모어 화자들에게 주는 부정적인 영향이 의사소통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 교재에서는 초급 단계에서부터 상대높임법의 화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정하게 되고 어떤 화계를 먼저 배우고 나중에 배울지 그 순서도 정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어교육에서 상대높임법을 교육할 때에 단지 화계의 형태를 문법 사항 중심으로 교육하는 것만으로는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다. 그 이유는 문장의 주체나 객체처럼 문장 속에 들어있는 요소들 뿐 아니라 화자와 청자 같은 문장 외적인 요소가 문장의 형태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한편 상대높임법에 관한 연구는 국어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대체로 화계의 설정과 관련한 것과 사회언어학, 화용론의 관점에서 논의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상대높임법의 화계에 대한 맨 처음의 연구는 최현배(1937)로 종결법을 ‘아주높임(합쇼)-예사높임(하오)-예사낮춤(하계)-아주낮춤(해라)-반말’의 5단계로 나누고 있다. 이후 여러 학자들에 의해 ‘반말’의 위치나 화계 설정 여부, ‘하소서’와 같은 화계를 현대어에 설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친밀 또는 비격식체로 볼 수 있는 화계의 설정 문제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엄경옥 2002:85).

화계 설정과 관련된 논의는 결국 무엇으로 화계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는 문제인데 한길(2002)에서는 나이, 사회적 지위, 성별, 친밀성, 친인척 관계, 언어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면의 6가지로 보았다. 엄경옥(2002)에서는 높임과 안 높임으로 구분하고 나이를 세분화하여 유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중년기, 노년기로 나눈 후 각각에 사용하는 화계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나이 외에도 사회적 변인(계층, 성별, 세대 등)과 관련된 문제가 해명 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실제 언어를 바탕으로 성별과 지역 방언까지 고려하여 각 서법별 화계를 체계화 하고 있다(엄경옥 2008).

이처럼 화계 설정에 대해서 여러 논의가 있지만 현재 국어교육과 한국어 교육에서 통용되는 상대높임법의 화계는 ‘하십시오체(합쇼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 ‘해요체’, ‘해체’가 있다. 이와 관련한 논의는 이들 가운데 몇 개를 인정할 것인지, 이들이 나타내는 높고 낮음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격식

유무에 따라 이원적 체계를 이루는 것으로 보는지에 따라 학자들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이정택 2015:147).

가장 잘 알려진 상대높임법 화계<sup>15)</sup>는 아래와 같이 남기심·고영근(1985) 체제로 6개의 화계를 모두 인정한 것인데 현재 학교 문법서 등 많은 저작물에서 따르고 있다.

[표 1] 상대높임법 체계-남기심·고영근(1985)

격식체	비격식체
아주높임(합쇼)	두루높임(해요)
예사높임(하오)	
예사낮춤(하게)	두루낮춤(해)
아주낮춤(해라)	

이들 화계는 각각 문장의 유형 또는 종류를 결정짓는데 ‘하다’의 활용형을 국립국어원(2005:221-222)의 기준<sup>16)</sup>에 맞춰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상대높임법 체계-국립국어원(2005)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	감탄형
격 식	아주높임(합쇼체)	합니다	합니까	하십시오	하십시오	합니다
	예사높임(하오체)	하오	하오	하(시)오	합시다	하오
	예사낮춤(하게체)	하네	하나/ 하는가	하게	하세	하네
	아주낮춤(해라체)	한다	하느냐	해라	하자	하는구나
비 격 식	두루높임(해요체)	해요	해요	해요	해요	해요
	두루낮춤(해체)	해	해	해	해	해

위와 같은 6단계 화계 가운데 이 연구의 대상인 하오체·하게체에 대해

15) 화계(speech level)는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을 고려해서 높이거나 높이지 않는 단계를 말한다.

16) 이 외에도 하오체·하게체에는 다양한 어미들이 있는데 이 논문의 자료들을 분석할 때 사용한 어미는 박지순(2015ㄱ)의 분석 대상 종결 어미 목록을 참고하였다.

- 1) 화계로서의 위상, 등급 구분 즉 높임의 정도 3) 하오체·하계체의 기능  
4) 하오체·하계체의 용법 5) 상대높임법 연구의 변화 순서로 알아보겠다.

첫째, 화계로서의 위상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본다. 상대높임법의 화계 설정에 대해서는 최근까지도 격식체와 비격식체의 구분, 높임의 정도, 하오체·하계체의 포함 여부, ‘하라체’의 설정 여부 등에서 의견이 나뉘고 있다(박지순 2014:80-81). 이렇게 상대높임법의 화계에 대한 의견이 정리되기 어려운 것은 높임의 대상이 사회의 변화와 함께 줄어들었고 화용 맥락도 변화하면서 화계의 구분에 대한 의견이 나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견 가운데는 극단적으로 ‘옛 말투’로 분류하여 체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왕문용·민현식, 1993). 그런가하면 이 둘의 사용<sup>17)</sup>이 매우 낮다며 특수형으로 분류하자는 제안(서정수, 1980)도 있다. 최석재(2007:417)에서도 실제로 이 화계들은 적은 양이지만 쓰임이 확인되었고 담화 전략 목적으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으며 언중에게도 언어 지식이 있는 이상 체계에서 완전히 제외하지는 않되 특수형으로 분류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 두 화계가 빈도가 낮기는 하지만 체계 속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므로 패러다임 자체는 익혀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김정남, 2008:10). 또한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쓰는 자리가 생기니 이들의 화계로서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여전히 존재한다(엄경옥, 2002:93, 임동훈, 2006:310).

한편, 한국어교육 관련 문법서를 중심으로 살펴보아도 체계 설정에서부터 내용 기술에 이르기까지 통일성을 찾기 어렵다. 하오체를 제외하고 5단계(국립국어원, 2005)로 보기도 하고 하계체까지 제외하여 4단계(백봉자, 2006)로 나누기도 한다(이은희, 2010:286-287).

그러나 고급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는 이해 수준 정도로 익힐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이유경, 2006)도 있다. 또한 박지순(2015)에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하오체·하계체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즉, 모어 화자의 구어

17) 서정수(1980)에 의하면 하오체·하계체는 약 5% 정도의 비율로 낮아 특수형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서정수(1984)의 설문조사에서 해라체의 빈도도 하오체나 하계체와 크게 다르지 않았고, 최석재(2007)에 의하면 합쇼체의 사용도 전체의 2%에 불과하므로 단순히 빈도로 화계 포함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적 사용이 확인되고 문어의 특정 장르에서는 전형적인 의미기능으로 사용되는 경향을 보이며 문학작품 등에서는 여전히 예사높임의 화계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고 했다.

둘째, 하오체·하계체의 등급의 구분, 높임의 정도에 대해 알아보겠다. 이익섭(1974), 임동훈(2006) 등에서 연구된 바와 같이 현대국어 하오체는 자신보다 아랫사람을 격식성을 가지고 대우해 줄 때 쓰이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이러한 하오체가 쓰이기 위하여서는 대화 참여자가 모두 성인이고, 힘 요인 면에서 비슷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즉 아랫사람에게도 쓰이고 방언에서는 가까운 윗사람에게도 쓰인다.

이정복(2012)에서도 하오체에 대해 ‘상위자인 청자에 대한 높임’이 아니라 ‘화자에 비해 대등하거나 하위자인 청자에 대한 높임’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윗사람이 성인이 된 아랫사람의 객관적·절대적 지위를 존중하여 그만큼 높여 대우하는 말이라고 보았다. 하오체가 높임인 것은 청자가 화자보다 상위자여서 아니라 높임 종결어미 ‘-오’를 사용한 ‘화자의 의도’라고 하였다. 또한 하계체도 ‘화자와 대등하거나 하위자인 청자’에 대한 ‘높임’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또한 하오체가 ‘화자의 권위성’을 내포한다는 의견도 있다(이주행, 1994). 그러나 이에 대해 해요체에 비교하여 그런 면이 있기는 하지만 방언에서의 쓰임과 근대 한국어 이전의 쓰임을 고려할 때 언제나 꼭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렇지만 다른 연구에서도 하오체에는 ‘화자의 권위성’을 나타내는 성질이 있음은 확실하다고 보고 있다(이정복, 2012:58).

한편 하계체 역시 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쓰는 말로 나와 있다. 그 때문에 대부분의 높임법 연구에서 하계체를 낮춤 형식의 하나로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익섭·임홍빈(1983)에서는 하계체가 아랫사람을 얼마큼 높여 대접하는 말이라고 하였다. 즉, 하오체·하계체는 말하는 사람이 자신보다 신분이나 나이 등에서 아랫사람을 상대할 때에만 쓰인다(이익섭·이상익·채완, 1997:273).

이러한 관점은 최근까지 이어져 ‘하오체’와 ‘하계체’는 모두 동등하거나 서열이 낮은 상대를 일정 부분 존중하는 문제라고 본다.(이정택, 2015). 왜냐하



면 동일한 속성을 가진 두 문제 중 하나는 높임으로 나머지는 낮춤으로 처리하는 것, 즉 ‘하오체’를 ‘높임’으로 ‘하게체’를 ‘낮춤’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게체 역시 낮춤 형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아랫사람에 대한 ‘높임 표현’으로 보았다. 결국 윗사람이라고 해서 아랫사람을 높여 대우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랫사람에게 안 높임의 해라체를 쓰는 대신 하게체를 쓰는 것은 상대방을 조금이라도 잘 대우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의 선행 연구를 정리하면 하오체-하게체는 청자가 화자와 대등하거나 화자보다 하위자인 경우에 청자를 높이려는 화자의 의도가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다. 즉, 하오체-하게체는 ‘높임’과 ‘낮춤’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높이는 태도의 정도성’으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높임법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이정복(2011)에서는 높임법의 본질적인 기능은 규범적인 용법<sup>18)</sup>과 전략적인 용법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먼저 규범적인 용법은 두 가지로 하나는 ‘지위 관계에 맞게 대우하기’ 다른 하나는 ‘공손한 태도 드러내기’이며 이것은 준 자동적인 절차라고 하였다<sup>19)</sup>. 그러나 친소 관계와 나이 등에 따라 용법의 변동이 일어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지위 관계를 떠나 공손한 태도를 표시하는 것은 화자의 주관적이고 전략적인 결정을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절차이며 객관적으로 나이나 지위에서 아래지만 상대방의 ‘절대적 지위’를 존중하기 위하여 높임 형식을 씌으로써 공손함을 표현한다고 하였다. 처음 만나거나 심리적 거리가 강한 관계에서도 공손한 태도를 표시하는 것은 전략적 용법에 가깝지만 규범적 용법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높임법 사용의 전략적 용법으로는 상대방과의 심리적 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있다. 높임법 형식의 선택을 통해 다른 이의 행동이나 마음을 움직이고 화자 자신과의 심리적 거리 관계를 조절하는 것이다. 전략적 사용으로는 수혜자 공손 전략, 지위 불일치 해소 전략, 정체성 바꾸기 전략, 지위 드러내기 전략,

18) 기능과 용법이 혼용되어 쓰이고 있는듯한데, 규범적 용법과 전략적 용법으로 최종적으로 얻고자 ‘관계에 맞게 대우하기’, ‘공손한 태도 드러내기’, ‘심리적 관계 조정하기’ 등과 같은 화용(기능)에 초점을 맞추면 이해가 된다.

19) 이정복(2011)에서 ‘지위에 맞게 대우하기’는 서정수(1984)에서 ‘상하질서의 표출’과 통한다고 하였고, ‘공손한 태도 드러내기’는 ‘인간적 품위의 표현’과 관련지을 수 있다고 부연하고 있다.

거리 조정하기 전략이 있다.(이정복, 1998, 1999, 2001)

여러 가지 전략적 용법 가운데 상대높임법으로 대인관계 조정하기는 한국 언어문화에 뿌리 깊은 것이다. 중세 한국어에서도 이러한 기능을 살펴볼 수 있는데, 고려인과 중국 상인이 처음에는 서로 편하게 ‘호라체’로 대화를 시작하다가 고객을 속인다는 말을 들은 상인이 ‘호소서체’로 말 단계를 바꾸며 물건을 팔지 않겠다며 정색하고 높임말로 바꾸는 장면이 있다(번역 박통사 37:145-146, 양영희 2010:315, 이정복 2011 재인용)

하오체·하계체의 기능과 관련하여서는 고영근(1974:72-73)에서 장인 장모가 사위에게 이야기하거나 동서지간이나 처남·매부와 같이 혼인에 의한 친족 관계 또는 누이나 결혼한 오빠와 같은 친족 간에 사용하는 것이 이 두 화계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라고 하였다. 그러나 불과 6년 뒤 서정수(1980:40)에서는 이러한 기능은 ‘해요체’로 넘어가게 되어 이들 두 화계는 기능이 축소되게 되었다고 보았다.

이처럼 동시대의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하오체·하계체의 기능에 대해 의견이 나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하계체’는 장인 장모가 사위에게, 선생님이 장성하여 학생 때처럼 대하기 어려운 옛 제자와 이야기할 때 사용한다. 대학에서도 군 제대 후 복학 등의 이유로 동년배보다 나이가 더 있는 제자들에게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또한 지방에서는 동서지간이나 시누이·올케 사이 등 친족 관계에서나 중년 이상의 남성들 사이에서는 친구 사이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예가 많다(나동숙, 2016:72).

넷째, 하오체·하계체의 화용에 대한 연구는 상대높임법의 전체 화계의 화용을 연구한 것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주로 드라마 대본 등의 준구어 자료와 소설을 대상으로 연구되었다(허상희, 2012, 김정호, 2004). 이는 상대높임법 연구가 화자와 청자가 존재하는 ‘발화’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발화를 채록하여야 하는데 녹음에 따른 여러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대국어 하오체의 사용상, 등급상의 특징을 보인 연구로 유필재(2014:63)에서 음성 언어로는 사용이 제한적이나 이익섭·채완(1999: 358)에서 나타난 것처럼 드라마나 외국영화의 번역<sup>20)</sup>에서는 꽤 자주 보인다는 것과 현대국어 하오체

20) 2010년에 개봉된 미국 영화 ‘쓰리 데이즈’(원제는 The Next Three Days)의 한 장면(유필재 2014:64).

의 화자는 대체로 남성으로 한정된다는 것이다(유필재, 2014:63).

다섯째, 최근 상대 높임법 연구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다. 그동안 이루어진 형태소 중심의 문법론적 분석들에 의존한 상대 높임법은 체계상의 한계를 지닌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한국어교육에서는 문법적인 ‘체계’를 가르치기보다는 실제 담화 장면에서 필요한 문법적, 어휘적 ‘쓰임’을 익혀 구체적인 의사소통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김정남, 2008, 이은희, 2010).

또한 이정복(2011)에서도 높임법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반영하는 언어 범주로서 사회적 맥락 속의 쓰임으로 사회언어학적 관점의 접근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 때 지역, 세대, 사용 영역, 특정 집단 등 여러 변수가 작용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임지룡(2015)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상대 높임법에 대한 바른 인식을 위하여서는 상대 높임법이 사회 문화적 요인에 따라 변화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담화 화용론적 시각 및 인지언어학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더욱이 상대높임법은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사회문화적 모형을 드러내 주는 틀일 뿐 아니라, 한국인의 정신과 사회 문화의 한 고리는 청자대우법에 의해서 형성되어 온 것이이고 했다.

이러한 연구 변화에 따라 실제 언어 자료 속에서 하오체·하계체가 사용되고 있는 양상을 살핀 연구가 활발하다. 먼저 문학 작품에서 사용된 양상을 살핀 연구로는 개화기 신소설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한 이경우(1990), 1920년대와 1970년대 소설 자료를 비교한 김정호(2004), 소설 〈토지〉 속의 방언의 성격을 조사와 어미 중심으로 연구한 이은주(2012), 김유정 소설에 나타난 청자높임법을 연구한 김진희(2012), 소설 〈삼대〉의 사회관계에 나타난 청자높임법을 연구한 조은아(2013), 역시 같은 소설 속의 친족관계에 나타난 양상을 연구한 박정현(2015) 등이 있다.

드라마 대본 등을 분석 자료로 삼은 연구로는 청소년 드라마에서 청자높

---

존 : 라라 브레넌 어딴지? 내 아내요.

(여자) 간호사 : 죄송하지만 면회는 안돼요.

존 : 아내를 봐야 된다고.

(여자) 간호사 : 들어가시면 안돼요.

(남자) 의사 : 무슨 소란이요.

존 : 내 아내가 목숨을 끊으려다 실려 왔소.

임법 사용 양상을 연구한 김은형(2007), 장희은(2009), Zhang Lu(2012), 김성월(2013) 등이 있으며 드라마 대본을 자료로 공손표현을 연구한 허상희(2010)에서도 하계체에 관한 연구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가장 최근의 논의로는 일상적 준구어<sup>21)</sup> 말뭉치 자료로서 12개의 영화 시나리오와 12개의 드라마 대본을 대상으로 현대 국어 상대높임법의 맥락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박지순, 2015ㄱ). 이와 함께 한국어교육을 위한 하오체·하계체 교육 필요성과 내용을 준구어와 문어 말뭉치 자료를 대상으로 각 화계의 종결어미에 대해서 출현 빈도와 사용 맥락을 분석한 연구도 있다(박지순, 2015ㄴ).

과거 신분 사회에서는 양반인지, 중인인지, 평인인지의 여부, 양반이나 중인의 경우에도 관직에서 차지하는 지위의 높낮이 등 대화 참여자의 사회적 신분 차이에 따라 높임법 사용 방식이 기본적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관직의 품계는 관청 조직 안에서 구성원들의 위계질서를 규율하고 높임법 사용도 그런 질서에서 이루어지며 관직의 높낮이가 사회적 신분의 높낮이로 연결되어 언제나 비대칭적 높임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나이와 친족 관계 등의 높임법 사용 요인이 부차적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위계 조직 내부에서 비대칭적 경어법을 쓰는 관계라고 해도 사회인이 되면 대등적 경어법을 쓰는 관계로 바뀌거나 위아래 관계의 뒤바뀔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는 나이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며 이론적 원칙적으로는 조직 안에서의 지위가 밖에서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모두가 평등한 시대가 되었다. 심지어 ‘나이’를 앞세워 함부로 ‘반말’을 할 수 없으면서 ‘나이’조차 높임법 사용에서 적용 영역이 좁아져 간다고 보았다(이정복, 2011).

이것은 높임법이 사회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언어 현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동시에 한국 사회가 갖는 특징적인 언어문화이므로 외국인 학습자로서는 높임법에 대한 ‘교육’을 통하지 않고는 쉽게 알기 어려운 항목이다. 따라서 모어 화자들과의 생활에서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하려면 높임법에 대한 사용 맥락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말하는 상대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높임법의 화계는 단순히 형태의

21) 실제 상황에서 사용하는 구어를 연구하기 어려운 제약이 많아 드라마 대본이나 영화 시나리오 등의 대화체를 구어에 준한다는 뜻의 ‘준구어’라 한다.

변화와 문법적 의미, 맥락 정보만을 알아서는 제대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단선적인 교육으로 끝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과거를 표시’하지 않는 텍스트에서는 상대높임법의 화계를 풍부하게 함으로써 대인 관계 조정하기의 현상도 뚜렷하게 나타낼 수 있는 장치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상 살펴본 선행 연구 결과를 통해 이 논문에서는 박지순(2015<sup>7</sup>)에서 언급하고 있는 ‘문어의 특정 장르’가 가진 ‘전형적인 의미 기능’에 대해 주목하였다. 이에 하오체·하계체 텍스트의 ‘문식성’ 특히 ‘문화적 문식성’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국어에서 구어의 쓰임이 현저히 줄어든 하오체·하계체가 문어에서는 소설, 동화, 수필 등의 문학 장르에서 대화문에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고 하였는데(박지순<sup>7</sup>, 2015:78) 그 구체적인 모습이 어떠한지, 하오체·하계체가 갖는 전형적인 의미와 기능은 무엇인지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없었다. 특히 최근에 국어교육에서도 활발히 언급되고 있는 문식성 측면에서 하오체·하계체의 문식성을 연구한 논문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하오체·하계체’의 문화적 문식성 연구를 위하여서는 한국 문화의 근원이 되는 과거의 사회 구조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의 변화를 ‘높임법’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하오체’와 ‘하계체’는 텍스트가 ‘과거의 사건이나 인물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시대상을 반영하는 표시’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3장에서 하오체·하계체 텍스트의 문화적 문식성이 무엇인지를 살피기 위하여서 선행연구로부터 연구 대상인 하오체·하계체 텍스트에 나타난 가진 전형적인 사용 맥락과 의미, 기능을 정리하고 이런 것이 문화적 문식성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4장에서 밝히겠다.

## II. 문화적 문식성

이 장에서는 먼저 문식성의 정의 및 기능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은 문화적 문식성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문화적 문식성은 어떻게 습득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문식성 발달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 2.1 문식성의 정의 및 기능

문식성은 원래 라틴어 ‘litteratus’에서 유래하여 ‘학식 있는 사람(배운 사람)’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중세 시대에 ‘라틴어를 읽고 쓸 수 있는 사람, 혹은 이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능력’ 등의 개념으로 변모되었다. 그 뒤 종교 개혁 이후에는 ‘모국어로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으로 개념화되었다.<sup>22)</sup>

문식성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문맹(文盲, illiteracy)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문자 언어의 사용인 읽기와 쓰기’였다. 그러나 지식 개념에 가까웠던 문식성은 1920년대에는 ‘언어를 해독하고 이해하여 뜻을 파악하는 능력’을 의미하였다. 그리고 1960년대에는 인지주의 심리학의 등장과 함께 정보와 언어 처리 기능의 습득이라는 관점에서 행위, 기능, 인지적·초인지적 전략 등으로 규정되어 왔다. 또한 언어 사용에서 표면적인 문자보다는 스키마와 같은 인지적인 지식 구조를 강조함으로써 ‘인지적 기능’이나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언어를 활용하는 능력’으로 이해되었다(박인기, 2002:24-25).

그리고 유네스코는 1960년대에 문식성을 ‘직업적, 시민적, 공동체와 개인적 필요에 의해 요구되는 문자를 다루는 복잡한 기능 세트’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문식성은 비맥락화된 고립된 기능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범주 내에서 포괄적으로 정의된다. 문식성은 개인이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고 지식이나 잠재력을 개발하고, 좀 더 넓은 사회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학습의 연속성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22) 참고로 사전에 ‘literate’는 15세기 중반, “literacy”는 19세기 후반 무렵에 등장한다(Harris & Hodges(eds), 1995:142, 최홍원, 2015:596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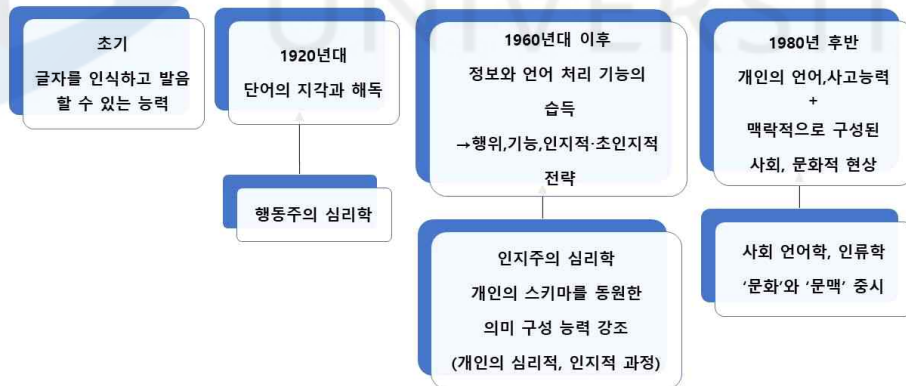


즉, 문식성에 대해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분석적이며 추론적인 기능을 포함하여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포괄적으로 정의한다. ‘컴퓨터 문식성’, ‘기능 문식성’, ‘문화적 문식성’, ‘성인 문식성’과 같은 것은 사회적 맥락을 배경으로 한 용어들이다.

이렇게 문식성 개념이 사회적 차원으로 발전한 것은 후기 산업 사회에 이르러서이다. 즉, 문식성은 특정한 사회적 맥락에서 그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지식과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문자를 활용하는 능력으로 보았다(박인기, 2002:25).

이처럼 문식성은 단순한 기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가 함의하고 있는 사회 현상이나 구조에 대한 파악 능력으로 간주된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문식성은 담화와 그 활동에 대한 비판적,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상황 의 존적이면서 실제적인 학습과 문화적 체험을 강조하는 ‘상황 의존적 사회적 활동 모형(situated social practice model)’을 지향하는(C. Durang & B. Green, 2001 윤여탁 2015 재인용)’ 활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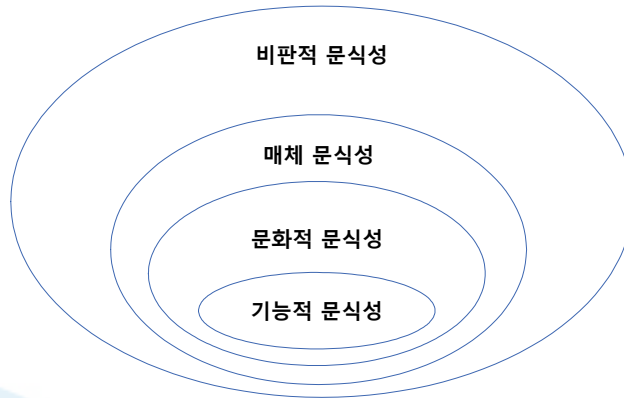
[그림 2] 문식성 개념의 확장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문식성의 개념은 문자를 익히는 기본적 문식성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수학적 능력이나 사회·문화적 맥락에 맞는 담화 능력으로까지 확대되기에 이른다. 그리고 문식성의 개념과 문식성 교육의 관점은 초창기 논의에서 중시하였던 ‘기능적 문식성’에 대한 반성과

지양을 통해서 ‘문화적 문식성’, ‘매체 문식성’, ‘비판적 문식성’ 등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었다(윤여탁, 2015:537).

[그림 3] 문식성 영역의 확대



이러한 문식성 개념은 한국의 교육계에는 1980년대 후반에, 국어교육계에는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소개되었는데 문식성(文識性)은 ‘literacy’의 번역으로 ‘문해(文解)’, ‘문해력’, ‘문변력(文辨力)’, ‘문자 해독 능력’으로도 사용되고 있다(윤여탁, 2015:535). 곧 ‘글을 통한 필자와 독자의 개인적인 만남’이고 필자가 글로 표현한 지식과 정보를 독자는 점차 그 글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다(노명완, 2008:16).

이러한 문식성이 한 개인과 사회, 국가, 인류 문명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노명완(2008:18-31)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식성은 문자 언어의 사용과 문명 발전의 원동력이다. 문명 연구 학자들은 진정한 인류의 문명 발전은 인간의 사고를 기록으로 남기고 이 사고를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문자의 사용시기로부터 잡고 있다. 문식성은 문자 언어를 통한 지식과 정보의 처리로서 음성 언어와 달리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점이 고등 수준의 사고를 가능하게 하고 문명 발전의 원동력이 된 것이다.

둘째, 문식성은 정보 보편화와 지적 수준 고양을 통한 민주 사회 확립의 원동력이다.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엘리트 집단의 전유물이었던 시대



에서 금속 활자의 발명으로 책을 대량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공교육의 보편화와 함께 정보의 보편화와 의식의 깨우침으로 나타났다. 글자 읽기와 쓰기를 넘어서 글을 통해 타인의 생각을 수용하거나 비판하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서 주장, 설득하는 문식성은 민주 시민의 인권을 실현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가 된다.

셋째, 문식성은 언어를 매개로 한 새로운 지식 창조의 원동력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대부분 읽기를 통해 습득되고 심화, 확장, 수정된다. 아동의 급격한 어휘량의 증가는 다양한 분야의 독서량에 기인한다는 연구 결과(Anderson & Nagy, 1991, 노명완, 2008:22 재인용)가 이를 말해준다. 어휘는 개념이고 지식이기 때문이다. 문식성이 지식 창조 과정임은 쓰기를 통해 더욱 드러나는데 자신의 생각을 글로 나타내는 것은 고등 수준의 지적 과정이기 때문이다.

넷째, 문식성은 자신의 앎을 점검하고 판단하고 조절하는 초인지의 원동력이다. 인지 과정을 점검하고 조절하는 초인지 능력은 읽기 과정과 쓰기 과정에서 모두 나타나는데, 글을 읽으면서 이해하는 것이 인지 과정이라면 자신의 읽기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 점검하고 한 번 더 읽어야 겠다거나 다른 책을 더 봐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초인지의 작용이다. 초인지적 작용은 쓰기에서 강력하게 드러나는데 주제를 정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점검하면서 취사선택하고 엮어 조직하여 글로 나타내고 이를 수정하는 일련의 글쓰기 과정은 모두 초인지 과정이다. 결과적으로 읽기와 쓰기를 아우르는 문식성은 초인지적 사고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다섯째, 문식성은 가장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교류·교감과 설득력의 원동력이다. 읽거나 쓰기 즉 문식성은 필자와 독자 개인과 개인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지식, 정보, 의견, 정서의 교류 또는 교감이기 때문이다. 주제에 맞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조직하여 적절한 어휘와 문장으로 표현한 글 속에 독자를 고려한 필자의 인간적 만남이 녹아 있을 때 글을 읽는 독자는 깨달음과 기쁨, 감동을 느낄 수 있다.

여섯째, 문식성은 직무 수행의 원동력이다. 직장에서의 업무 수행은 이제 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영역과는 다른 새로운 분야에서의 지식을 필요로 하

며 그 자체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언어 행위이고 이러한 언어 행위는 말과 글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내용의 구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곧 업무에 대한 재인 및 회상,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등의 고등 정신 기능을 필요로 한다(이형래 2006 재인용).

이처럼 문식성은 한 개인의 지적, 정의적 성장은 물론 사회의 운용과 유지 발전에도 관여할뿐더러 국가의 지식과 지력의 신장에도 중요하다. 따라서 문식성의 개념도 언어 교육의 기본 내용을 가리키는 개념에서 사회·문화적인 함의를 넓게 띠는 개념으로 계속 확장, 발전해 왔다(박인기 2002:24).

## 2.2 문화적 문식성의 개념

앞 절에서 살펴본 문식성 개념 및 정의에서 더 나아가 ‘문화적 문식성’ 개념을 처음으로 이야기 한 사람은 미국의 허쉬(E. D. Hirsch Jr.)이다. 그는 1987년에 출판되어 베스트셀러가 된 그의 저서 『Cultural Literacy: What every Americans needs to know』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문화적 문식성’에 대한 논의가 나오게 된 데에는 20세기 후반 초강대국이 된 미국의 성인 문식성이 매우 낮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미국의 학교 교육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게 된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자기반성을 통해서 미국의 보수적인 교육학자들은 시민 교육의 맥락에서 미국인이 ‘기본적으로 공유해야 할 문화적 지식, 즉 역사, 문화, 전통 등의 공유된 지식을 알아야 한다는 ’문화적 문식성‘ 개념을 제안한 것이다.

허쉬는 위의 저서에서 ‘문화적 문식성’으로 다음과 같은 리스트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그것은 바로 미국인이 알아야 할 5,000개의 인명, 지명 등의 ‘이름과 구’, ‘날짜’와 ‘개념어’ 등의 항목이었다.<sup>23)</sup> 그 목록의 몇 가지를 예를 들면, Aaron Hank<sup>24)</sup>와 같은 인명, 1066년, 1492년<sup>25)</sup>과 같은 년도와

23) E. D. Hirsch, Jr. 『Cultural Literacy-What every American needs to know. Includes 5,000 essential names, phrases, dates, and concepts』, 1988, Vintage.

24) 전설적인 미국의 야구선수.

25) 1066년은 노르망디 공국의 통치자 윌리엄이 잉글랜드(England)를 정복하고 윌리엄 1세로 왕위에 올라 노르만왕조의 제1대 왕이 된 해로 영국 역사에 있어서 의미를 갖는 년도이다. 1492년은 콜럼버스

Abandon hope, all ye who enter here<sup>26)</sup>와 같은 어구, abbreviation<sup>27)</sup>과 같은 단어들이다.

이 책에서 허쉬는 경제적 번영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와 효과적인 민주주의를 성취하기 위하여 높은 단계의 문식성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화적 문식성은 일종의 세계 지식 또는 배경 정보 등을 가리키는, 한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사회·문화적 정보와 지식, 맥락 등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문식성 개념은 개인이 사회·문화적 소통에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문화 지식으로 1) 개인의 전통에 대한 인식, 2) 문화적 유산과 그 가치에 대한 인식, 3) 어떤 문화의 장단점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A. C. Purves 외, 1994, 윤여탁 2015 재인용) 등으로 구체화 되었다(윤여탁 2015:540-541).

이처럼 학교 교육에서 문화적 문식성이 강조되는 흐름에는 영국과 미국의 문화 연구 성과와 지향도 작용하였다. 특히 비판적 문화론의 관점에서 확대된 문화 개념과 문화 소통론을 강조한 영국의 버밍엄 학파는 전통 문화뿐만 아니라 대중문화를 교육의 장으로 끌어들었다(윤여탁 2007:71-83).

또 20세기 후반기 텔레비전 등 대중매체의 발달에 따른 대중문화의 영향력 증대는 문화교육에 대한 보호주의적 관점을 넘어 대중문화가 학교 교육의 중요한 내용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이러한 비판적 문화론과 매체언어 교육론은 각각 비판적 문식성과 매체 문식성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대외적 변화에 맞추어 한국에서는 최인자(2001)에서 ‘문식성 교육의 사회·문화적 접근’으로 개념이 확장되었다. 그리고 이 개념은 박인기(2002)에서 ‘수직적 맥락에서 전통으로 작용하는 문화뿐만 아니라 수평적 맥락에서 일상생활의 소통에 작용하는 문화, 즉 전통 문화와 현실 문화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면서 문화적 문식성은 ‘문화 분야의 기본적인 지식이나 앎’이라고 정

---

가 신행로를 개척한 해이다.

26) 13세기 이탈리아의 시인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이곳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라는 지옥문 앞에 걸린 간판 글귀로 ‘희망을 버린 곳이 곧 지옥’이라는 의미로도 통하는 글귀라고 한다.

27) 축약, 축약어.

의했다. 그리고 여기에는 1) 전통에 대한 개인의 인식, 2) 문화적 유산과 그 가치에 대한 인식, 3) 전통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능력, 4) 어떤 문화의 장단점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등이 포함된다고 했다.(A. C. Purves, L. Papa, S. Jordan(eds.), Encyclopedia of English Studies and Language Art, vol 1,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English, 1994, 박인기 2002 재인용).

그런데 위와 같은 문화적 문식성에 대한 규정이 ‘전통’이라는 수직적 범주의 문화에 편향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국어교육적으로 문화적 문식성을 재개념화 하는데 있어서 문화의 공시적인 양태를 수평적 범주로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문화적 문식성을 전통이라는 수직적 범주의 문화와 일상의 현재적인 소통이라는 수평적 범주의 문화가 교섭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고정형이라기보다는 유동적 진행성을 특징으로 하는 역동적인 것이라고 규정하였다(박인기, 2002:27-28).

박인기(2002)에서는 이와 같은 문화적 문식성에 대한 개념을 1) 문화의 존재 양태(문식성의 내용 범주로 통시적인 전통 문화의 공간인지, 공시적인 당대 문화 공간인지를 밝힌 것), 2) 문화 인지의 효과(문식성의 작용 효과로 기능적 소통 효과와 비판적 소통 효과가 있음), 3) 문식성의 활용 차원(지식 차원 활용과 전략 차원에서 재개념화할 수 있음)에서 ‘국어교육적’으로 재개념화하였다(박인기, 2002:34-39).

그 후 문화적 문식성에 대한 논의는 『문식성 교육 연구』에서 박영목과 박인기에 의해 정리되었다. 즉 박영목은 문식력과 기술 정보 학습에 있어서 문화적 측면이 중시되어야 한다<sup>28)</sup>라고 하였고 박인기는 문식성과 문화의 관계를 ‘지식’으로서의 문식성과 문화, ‘사회·문화적 작용’으로서의 문식성과 문화로 구체화하여 설명하였다<sup>29)</sup>.

그렇지만 문화적 문식성의 개념은 박은진(2015)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더 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는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 정의한 ‘문화’의 의미가 여전히 분명하지 않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것과 문화를 보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문화적 문식성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내리든 윤여탁(2015)에서는 기능적

28) 노명완, 박영목 외 『문식성 교육 연구』, 2008, 한국문화사, 50쪽.

29) 위의 책 87-94쪽.

문식성을 지양하고 그 대안으로 문화적 문식성을 제시하였으며 매체 문식성으로의 확장을 거쳐 비판적 문식성을 전망하며 궁극적으로는 문식성의 생태학적 접근으로 통합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곧 최근의 문식성과 관련된 논의의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만한지만 여전히 그 개념에 대한 논의에 머물러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문식성 교육의 모델로 널리 알려진 ‘상황 의존적 사회적 활동 모형(situated social practice model)’만 하더라도 문식성이 사회 문화적 측면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음을 전제하면서 실제적인 문화적 체험 등을 강조하고 있다(Durant & Green 2001). 여기서 문식성은 언어와 기술 체계의 작동을 넘어서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의미를 생성하고 상호작용하는 차원으로 이해된다.

이상에서 문식성의 분석 단위가 고립된 개인에서 사회, 문화적 맥락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실제로 문식성은 언어교육의 국면을 넘어서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탐구되고 있으며, 이들은 사회 문화적 맥락에 초점을 맞추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문식성은 개인의 언어활동뿐만 아니라 문화와 문맥의 문제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그 외연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Colin Lankshear 1997).

## 2.3 개별 문화 항목별 문화적 문식성의 재개념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문식성이 가리키는 범위와 포괄하는 대상이 끝없이 확대된 데에 ‘문화’라는 말이 함의하는 다양한 의미역이 더해지면서 문화적 문식성의 의미 탐색은 해명하기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서유경(2009)에서는 판소리를 어떻게 구체적인 문화적 문식성 교육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이청준의 〈남도사람〉 연작<sup>30)</sup>을 통해 연구하였다.

서유경은 논문에서 판소리 교육이 어떻게 문화적 문식성 교육이 잘 융합될 수 있는지를 판소리를 수용하여 창작한 이청준의 〈남도사람〉 연작을 중심으

30) 이는 각기 다른 다섯 편의 소설에 남도사람 1부터 5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데서 연유한 것이다. 〈서편제〉는 남도사람 1, 〈소리의 빛〉은 남도사람2, 〈선학동나그네〉는 남도사람3, 〈새와 나무〉는 남도사람4, 〈다시 태어나는 말〉은 남도사람 5이다. 이들 작품은 순서대로 1976년, 1978년, 1979년, 1981년에 발표되었다(서유경 2009:172 각주).

로 살펴보고 있다. 연구자는 작품의 서사적 공간 속에서 작가가 의도적으로 판소리의 명칭을 등장시키거나 인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 결과 연구자는 논문을 통해 학습자에게 판소리는 ‘공감하고 자기화할 수 있는 하나의 텍스트’가 될 수 있다고 보았고 또한 현대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새로운 텍스트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문화적 문식성으로 보았다.

또한 서보영(2014)에서도 <춘향전>을 통해 ‘변용(adaptaion)’이 고전소설의 문화적 향유와 전승의 주된 기제였음을 밝히고 학습자의 고전소설 변용 경험을 매개로 하는 문화적 문식성 교육을 설계하고 있다. 즉, 수용자가 원 텍스트를 문화적 맥락에 따라 변화시켜 수용 또는 생산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변용은 문화적 향유와 전승의 기제로 작용해 왔다고 했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춘향전>으로 당대의 사회 문화적 요건에 따라 새롭게 변용되어왔다고 했다.

위와 같은 연구 사례는 문화적 문식성의 개념이 고정형이기보다는 유동적 진행성을 특징으로 하는 다분히 역동적인 것이며 ‘전통적 문식성’의 개념을 연원으로 하면서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파생과 전이의 양상을 보인다는 설명(박인기 2002:28)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에서 문화적 문식성을 규정하고 개념화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도 짐작할 수 있다.(최홍원 2015:603).

따라서 최홍원(2015)에서는 이처럼 문식성이 작용하지 않는 국면을 찾기 어려울 만큼 광범위 하게 작용하지만 한편에선 이러한 입장을 ‘문식성 신화’로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문식성에 대한 국어교육학계의 높은 관심과는 달리 교육적 실행에 있어서 별다른 영향과 변화를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교육적 실현의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점검과 천착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진단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문화적 문식성의 교육적 실현에 대한 방법적 회의」(2015)에서 문식성, 특히 문화적 문식성에 초점을 맞추어 개념, 내용 요소의 성격, 목표와 도달점, 그리고 교육 내용 등을 점검하고 살피고 있다. 그러면서 문화적 문식성은 단순히 문식성의 의미역에 사회문화적 맥락을 도입하고 반영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수행하고 실천하는 일이 되어야 하고, 나



아가 이 같은 문화 현상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성찰하는 것까지를 포괄하는 것으로 재개념화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는 문화적 문식성의 작용 국면이 지식 혹은 기능과 같이 일차원적이고 평면적으로 진술되고 규정되는 것에서 벗어나, 실행과 작용, 그리고 비판과 성찰의 국면을 포괄하는 중층적 구조로 재구조화되는 것과 연결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문식성 자체를 작동적, 문화적, 비판적 층위로 구성한 Green의 3차원 문식성 모델(Green, 1988)과 언어의 문화적 양태를 ①유산(실체)로서의 언어문화, ② 소통 맥락으로서의 언어문화, ③ 창조와 실천으로서의 언어문화로 나눈 연구(최인자, 2008: 41)로부터 문화적 문식성을 1) 기능적 층위와 2) 문화적 층위, 3) 비판적 층위로 재구조화하였다.

기능적 층위에서는 텍스트와 관련되는 해당 문화에 대한 지식, 예를 들면 장르, 표현 관습에서 역사, 제도, 풍속 등을 포함하는 각종 내용들이 포함되었다고 하였다. 이때의 문화는 ‘전통 유산(문화 유산)’으로 대표되는 공동체적이고 전통되는 의미로 상정하여 사회 문화적 집단이 공유하는 관습과 전통의 틀 속에서 이해하고 수용하는 일로 구체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문화적 층위에서는 텍스트의 제한적 이해와 생산에서 나아가 주체의 가치 실현 행위로서 사회적으로 발화·발표하고 소통하는 적극적인 주체의 역할이 강조된다면서 ‘타자와의 대화적 능력과 포괄적인 상징적 교섭 능력’(최인자, 2008:27)을 문화적 문식성의 과제로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비판적 층위에서 모든 텍스트에는 가치관, 세계 인식과 권력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만큼 이들이 어떻게 작용, 기능하는지를 인식하고 평가하여 궁극적으로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성찰하는 전 과정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글을 읽고 쓰는 행위는 단순한 기능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문화적 행위로 파악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텍스트가 관계맺는 사회 현상이나 구조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평가의 역할이 문화적 문식성의 비판적 층위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또한 최홍원(2015)에서는 문화적 문식성이 텍스트로 대표되는 문화적 행위를 이해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 참여하는 태도와 습관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제안하고 있다. 즉, 문화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문화적 지

식을 바탕으로 생활 속에서 해당 문화를 기꺼이 실천하고 수행하는 것, 나아가 이를 습관화하는 태도까지 모두 다루어야 하고 이를 교육적 목표와 과제로 포괄하는 시각의 확대가 이루어질 때, 교육적 구현 또한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한림별곡〉을 대상으로 고전문학 읽기에 작용하는 문화적 문식성을 구체적으로 탐색하면서 문화적 문식성이 어떻게 작용하고 실현되는지 기초문식성 차원(표기의 문제), 기능적 차원(범주화), 문화적 차원(단어의 나열이라는 표현 방식<sup>31)</sup>), 비판적 차원(비판적 이해와 가치평가 제기)에서 살피고 있다.

그리고 문화적 문식성의 문제는 이제 해당 텍스트의 이해를 넘어 문화 현상에 대한 평가와 조망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면서 문화는 역사적 실체, 혹은 작품으로서의 고정 가치가 아닌, 현재와 소통하는 수평적 대화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으며, 문화적 문식성의 개념과 범위는 이 같은 차원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문화적 문식성에 따른 〈한림별곡〉의 이해는 작품을 둘러싼 역사적 지식의 습득 차원이나 작품 세계에 대한 내용 파악의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수행, 실천해야 할 과제의 성격을 가지며 문화론적 시각에서 〈한림별곡〉의 향유 현상을 살피고, 비판적인 이해와 평가의 과정까지 요구한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문식성이 단지 읽고 쓰는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특정 집단이 말하고 생각하며 믿고 가치를 부여하는 제반의 방식과 관련을 맺는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고 말하고 있다.(Gee, 1986, 최인자, 2001: 198 재인용).

이 연구에서도 이와 같이 유아용 전래 동화와 초·중 국어 교과서의 하오체·하게체 텍스트에 내재하는 문화적 문식성을 ‘구체적으로 탐색’하여 ‘재개념화’하려고 한다. 즉 하오체·하게체 텍스트에는 ‘전통 문화와 역사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기능이 있고, ‘하오체·하게체의 화용 맥락’은 한국어가 가진 높임법의 층위가 다양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용법이 있음을 드러낸다. 이러한 바탕 위에 ‘하오체·하게체의 전략적 사용’으로 필자의 의도를 ‘표현’할 수 있

31) 이와 같은 표현 방식은 박목월의 〈도화〉, 박종화 〈청자부〉에서도 사용되고 있음을 예로 들고 있다.



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를 통해서 하오체·하계체 텍스트의 문화적 문식성은 한국 사회와 문화적 맥락 속에서 모어 화자가 ‘말하고 생각하며 믿고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는 것’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것은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하오체·하계체의 텍스트에 내재하는 문화적 문식성’을 습득하는 과정은 한국어의 상대높임법의 화계의 하나인 하오체·하계체가 가진 ‘특정 문화로 입문하는 과정(최인자, 2001)’이 될 것이다.

## 2.4 아동의 문식성 발달

그렇다면 모어 화자들은 이와 같은 문식성과 문화적 문식성을 어떻게 습득하고 문식성은 어떤 과정으로 발달하게 되는지 살펴보겠다. 이를 위하여 아동의 문식성 발달 이론을 소개하고 있는 『읽기 교육 이론의 새로운 지평』(Diane H. Tracy 외, 2007 박태호 외 역)을 참고하였다.

1900년대 초반 Dewey(1916)와 같은 구성주의자들은 학습을 개인의 내적 이해로 설명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Watson(1913)이나 Thorndike(1903)와 같은 학자들은 학습을 관찰 가능한 행동으로 파악하였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발달 이론가들은 문식성 발달을 통시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려고 하였으며, 시간에 따라 특정 행동과 능력이 성장한다고 보았다.

아동의 문식성 발달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이론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Piaget의 인지 발달 이론(Piaget & Inhelder, 1969) 둘째, 성숙 이론(Morphett & Washburne, 1931) 셋째, 문식성 발달 이론(Holdaway, 1979) 넷째, 발생적 문식성 이론(Morrow, 2012) 마지막으로 다섯째, 가족 문식성 이론(Taylor, 1983) 등이다.

### 2.4.1 인지 발달 이론

Piaget는 구성주의자이자 발달 이론가인데 아동을 인지 발달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적인 유기체로 보았다(Penn 2008). Woolfolk(1998)에 따르면 Piaget는 아동의 성장 과정에서 사고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 요

인, 생물학적 성숙(육체적), 활동, 사회적 경험, 평형화를 확인하였다.

생물학적 성숙(biological maturation)은 출생 시에 주어지는 개인의 유전적 특징이며 아동의 성장에 궁극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활동(activity)은 아동이 가진 신체적 경험과 관련이 있으며 이를 통해 아동은 그들의 지식 기반을 형성하게 된다. 사회적 경험(social experience)은 아동이 성장하면서 다른 사람과 맺게 되는 상호 작용을 의미하며, 이것은 아동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평형화(equilibration)는 인지적 불균형 또는 부조화가 일어났을 때 인지적 균형감을 찾는 것을 말한다.

Piaget는 아동의 인지 발달에 영향을 주는 네 가지 핵심 요인을 밝힌 것과 더불어 아동이 성인의 사고를 갖게 되는 과정에 질적으로 다른 네 단계의 사고 유형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Piaget의 인지 발달 단계(Piaget's Stages Cognitive Development)이다. 첫 단계인 감각 운동기(sensorimotor period 출생~2세)는 아동의 사고가 세계에 대한 자신의 감각적인 탐구에 기초하는 시기이다. 이 단계에서 아동이 인지하는 것은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는 감각이다. 이 단계의 아동은 아직 자신의 경험을 언어로 기록하는 데 필요한 언어를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

두 번째 단계는 전조작기(preoperational period 2~7세)인데, 급속한 언어 발달이 일어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아동은 단어로 자신의 세계를 범주화하고 조직화하기 시작하며, 사고가 매우 구체화된다. 세 번째 단계는 구체적 조작기(concrete operational period 7~11세)이다. 이 시기의 아동은 추상적인 개념 인식을 위한 매개체로 구체적 대상을 사용할 수 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는 형식적 조작기(formal operational period 11~성인)인데 이 단계의 아동은 언어를 추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비록 발달 심리학과 관련된 가장 최근의 연구에서 인지 발달 단계 간의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다 할지라도 Piaget가 제시한 이 발달 단계는 폭넓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읽기 기능 발달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독해력, 단어 빨리 읽기(word attack), 어휘력의 향상과 아동의 인지 발달 사이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Cartwright, 2002).

#### 2.4.2 성숙 이론

1900년대 초반의 연구 문헌을 살펴보면 당시는 취학 전 아동의 문식성 발달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Morrow 2012)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에는 아동의 문식성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여 공식적인 교육을 받으면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았다.

이 시기의 읽기 수업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 것이 발달 심리학자들이 주장한 성숙 이론이다. 1900년대 초반의 유아원과 유치원 교사들은 일반적으로 읽기 학습을 무시하거나 기피하였지만, 이들은 Pestalozzi나 Froebel의 교수법에 기초한 계발 이론(Unfoldment Theory)을 따랐다(Morrow, 2012).

그러나 Morphet과 Washburne(1931)은 아동이 초기 읽기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만큼 충분한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읽기 수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Morphet과 Washburne은 읽기 수업을 하기에 최적의 나이를 결정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정신 연령이 6세 중반을 지난 아동이 그보다 어린 아동보다 읽기 성취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들의 연구 결과는 성숙 이론의 초석이 되었다. 이 이론에 따르면 6세 반 이전의 아동에게 읽기 교육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 또한 부모들 역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읽기를 시키지 말아야 한다. 성숙 이론의 기본 신념에 따르면, 교사나 부모가 너무 어린 나이에 아동에게 읽기를 지도할 경우 아동의 읽기 능력이 손상을 당할 위험이 높다고 한다. 성숙 이론은 193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의 지배적인 읽기 교육 이론으로 수백만 미국 아동들의 읽기 지도에 영향을 미쳤다.

#### 2.4.3 Holdaway의 문식성 발달 이론

성숙 이론의 뒤를 이어 Holdaway(1979)의 문식성 발달 이론이 새로운 핵심 이론으로 떠올랐다. 이 두 이론 사이에는 50년이란 시간의 격차가 있다. 문식성 발달 이론(Theory of Literacy Development)은 세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문식성 학습의 발달적 특성에 대한 설명, Holdaway가 문식성 학습의 핵심으로 보았던 네 단계에 대한 설명, 발달적 문식성 학습을 촉진하도록 고안된 교수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Holdaway는 읽기 학습이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Holdaway(1979)에 따르면 읽기 학습은 아동이 처음에 그들의 부모가 읽는 것을 보거나 부모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읽어 줄 때 시작된다. 이 이론에서 부모는 아동의 모델이고, 아동은 부모의 읽기 행위를 모방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모방적 실행은 아동의 첫 읽기 활동으로 이어지거나 유사 읽기 행위로 이어진다. 이것은 Holdaway의 ‘발달가능역(gross approximations)’에 해당한다.

Holdaway는 아동의 모방적 읽기 행위가 부모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당연히 강화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문식성 발달 이론에 따르면, 아동이 조금씩 모방적 읽기 행위를 시도하면서 읽기 기술이 향상되고, 이후에 아동은 실제로 글을 읽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그에 의하면 읽기 발달은 자연적이며, 아동의 자연스런 언어 사용 능력의 발달은 지극히 모방적이라고 할 수 있다.

Holdaway가 초기 읽기 학습의 핵심으로 본 일련의 모든 과정들은 의미 중심 교수법에 근거한 것이다. 그는 자연스러운 문식성 발달이 문식성 학습의 특성임을 밝혔다. 이러한 특성은 풍부한 가정 문식성 환경,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부모와 아이의 상호 작용을 통한 모방 및 강화와 관련이 깊다.

또한 문식성 학습을 위한 교실 환경을 풍부하게 만들고 교실 주위의 주요 물품마다 이름표를 붙이며, 아동의 독립성과 자기 조절 능력을 발달시키는 학급 운영 방식을 사용하고 아동들을 수준 높은 아동문학 작품과 유의미한 언어 경험 속에 노출시킬 것을 추천한다.(Gunning, 2010, Reutzel & Cooter 2012, Temple et al., 2011).

또한 Holdaway는 학생들 간의 상호 작용을 매우 강조한다. 교실 수업에서 빅북의 사용과 읽기 기능의 공유는 그가 가장 추천하는 교수 전략이다. 그의 이론은 근본적으로 문식성 발달 이론이지만, 총체적 언어 이론과도 일맥상통한다.

Morrow(2001)은 Holdaway(1979)가 제시한 자연적 발달 과정에 관여하는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요소는 문식성 행동들- 예를 들면, 성인이 글을 읽거나 쓰는 행위를 보거나 스스로 글을 쓰는 것-의 관찰이다. 둘째 요소는 필요할 때에 서로 격려하거나 동기를 부양고 도움을

제공하며 상호 작용하는 개인과의 협력이다. 셋째 요소는 연습이다. 학습자는 자신이 배운 읽기와 쓰기 활동을 연습한다. 그리고 어른의 지시나 관찰 없이 스스로 읽기와 쓰기 활동을 시도한다. 연습은 아동에게 그들의 수행을 평가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도록 하며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넷째 요소는 수행이다. 학생은 자신이 배운 것을 공유하며 자신을 도와주고 격려해 주며 흥미를 느끼도록 유도하였던 성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한다.

#### 2.4.4 발생적 문식성 이론

발생적 문식성 이론은 초기 문식성 발달을 설명하고 초기 문식성 신장에 필요한 교육적 지침을 제공한다. ‘발생적 문식성(emergent literacy)’이라는 용어는 아이가 태어나서 관습적인(대략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읽기와 쓰기를 할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발생적 문식성이라는 용어는 Marie Clay(1966)가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중요한 것은 이 용어가 실제 나이보다는 기능적인 수행 수준과 관계가 깊다는 점이다. 성숙한 아동은 실제로 초등학교 3학년이 되기 이전에 관습적인 수준(즉, 3학년 수준의 읽기를 할 수 있는)에 도달할 수 있다.

발생적 문식성 이론은 아동의 초기 문식성 발달이 이루어지는 방법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성립하였다. 발생적 문식성 이론의 중요한 신념 중 하나는 아동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의 발달이 상호간에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다.(Morrow, 2012) 이것이 뜻하는 바는 듣기와 말하기 능력이 우수한 아동들은 초기 읽기와 쓰기 능력도 우수한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밀접한 관계로 인해 한 영역의 긍정적인 문식성 성장이 다른 영역의 문식성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Morrow(2009)에 따르면 모든 아동들은 구어와 문어의 관계를 점점 인식하는 발생적 문식성 단계를 겪는다고 한다. 발생적 문식성 이론가들은 아동들이 구어와 문어의 관계에 대하여 점차적으로 폭넓게 인식을 하는 것이 그들의 초기 문식성 행위를 돕는다고 생각한다.

발생적 문식성 이론의 또 다른 중요한 믿음은 문식성 발달이 출생과 함께 시작되며,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이다(Morrow, 2012). 이 믿음은 앞서 아

동이 6세 반이 될 때까지는 문식성을 지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던 성숙 이론과 첨예하게 대립된다. 이 믿음은 또한 아동이 단어 인지를 시작할 때까지 아동의 문식성 성장을 무시하는 단계 이론과도 대치된다. 발생적 문식성 이론에서는 아동들이 말하고 이야기하였던 최초의 경험까지도 문식성 이론에서 일부분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이 이론은 아동들의 문식성 발달에 가정환경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문식성이 풍부한 가정환경에 있는 아동들이 좀 더 이른 시기에 보다 능숙한 문식성 기능을 습득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말하는 문식성이 풍부한(literacy-rich) 가정환경은 집에 아동과 성인이 읽을 수 있는 책들이 많아야 하고 부모가 아동에게 자주 책을 읽어 주거나 아동 스스로 책을 찾아 읽어야 하며, 부모가 책, 신문, 잡지를 포함한 다양한 자료들을 읽어야 하고, 가족 구성원이 읽는 것을 즐거워해야 한다.

또한 부모가 아동을 도서관이나 서점에 자주 데려가야 하고 아동은 읽기 자료들을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하며, 가정의 사회적, 감정적, 지적인 분위기가 아동의 문식성 성장을 촉진시키는 데 기여해야 한다(Morrow, 2005). 발생적 문식성 이론은 부모의 교육, 가정, 사회경제적 수준과 같이 아동의 초기 읽기 성공에 영향을 주는 많은 가정적 요인들이 있지만, 이들 중에서 가정의 문식성 환경의 질이 아동의 초기 문식성 능력에 가장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Morrow 2005).

#### 2.4.5 가족 문식성 이론

가정환경이 문식성 학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지만 ‘가족 문식성(Family literacy)’의 개념은 1983년 Taylor가 이 주제에 대해 중요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야 처음으로 세상에 등장하였다. 그 이후 가족 문식성은 ‘가족 구성원들이 가정과 그들의 공동체에서 문식성을 사용하는 방법’(Morrow 2009:378)로 정의되었다.

‘가족 문식성 이론’이라는 용어는 1) 가족 구성원들의 문식성 발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계획, 수행, 평가, 2) 가정 안에서 문식성 사용과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의 관계, 3) 문식성이 가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방법들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제안된 일련의 생각들과 관련이 있다(Phillips et al. 2006).

가족 문식성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이야기책 읽기에 대한 연구는 문식성 발달을 촉진하는 다양한 상호 작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야기책을 읽으면서 기록한 질문과 답변에 대한 분석은 다음에서 말하는 변수들이 아동들의 문식성 발달과 중요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여기서 말하는 변수들에는 이야기책을 읽는 동안 아동이 말한 단어의 전체 수, 읽기 전과 읽기 후에 부모가 아이에게 물어본 질문의 수, 부모의 질문 중 아동에게 높은 수준의 비판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질문의 수, 아이에게 주어진 능동적인 피드백의 양 등이 해당한다(Flood, 1997, Tracey & Morrow 2002).

가정에서의 경험이 아동의 문식성 발달에 기여한다는 가족 문식성 이론의 주장은 발생적 문식성 이론과 상통한다. 가족 문식성 이론은 또한 부모와 부모 개입이 아동의 문식성 발달에 주는 중요한 영향과 그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문식성 학습의 개념을 확장하였다.

이상으로 문식성 발달 이론을 살펴본 것을 요약하면 아동의 전반적인 인지 발달을 설명하는 가장 유명한 이론 중 하나인 Piaget의 인지 발달 이론은 문식성 교육자들이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학습 단계를 이해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성숙 이론(Morphette & Washburne, 1931)은 아동이 읽기 학습들 가장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6세 중반이 될 때까지 문식성 수업을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성숙 이론을 반박하면서 등장한 Holdaway(1979)의 문식성 발달 이론은 훨씬 이른 시기에 가정에서 아동의 문식성 발달이 시작된다고 주장하였고,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강조하였다. Holdaway는 교사들에게 조숙한 독자의 가정에서 발견되는 풍부한 문식성 활동과 유사한 활동들을 교실 수업에서 재창출하기 위하여 빅북(Big Book)의 사용, 함께 읽기 등의 활동들을 제안하였다.

발생적 문식성 이론(Morrow 2005, 2012)은 읽기 발달 단계 모형보다 넓은 범위의 능력들을 설명하고 이들 능력이 어떻게 출생과 함께 계속해서 발



달하는지에 대해 설명해준다. 마지막으로 가족 문식성 이론은 아동의 문식성 발달에 있어서 부모와 가정의 고유한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위와 같이 문식성은 아동이 성장하면서 주위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습득, 발달한다. 다시 말해 모어 화자들의 문식성은 유아 시기부터 가정에서 시작된다. 이후 공교육 과정을 지나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 발달되고, 문식성의 발달과 함께 자신이 속한 사회의 문화적 공유 지식인 문화적 문식성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적 문식성을 외국인이 단기간의 한국 생활을 통해, 특별한 교육도 없이 얻기는 어렵다. 이 논문에서 이야기 하려는 하오체·하계체에 담긴 문화적 문식성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것에 대한 별도의 교육이 없이는 하오체·하계체에 내재하는 문화적 문식성을 갖추기 어렵다.



### III. 현대 한국어의 하오체·하계체 사용 양상

이 장에서는 현대 한국어 모어 화자들이 어떤 과정으로 하오체·하계체를 습득 하여 그것에 내재한 문화적 문식성을 갖게 되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현대 한국어의 모어 화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통 교육과정에서 사용하는 교육 텍스트 내에 구현된 하오체·하계체 텍스트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하오체·하계체를 현실 구어가 아닌 공통 교육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텍스트를 통해 문어로 배우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 텍스트 내에 구현된 하오체·하계체 텍스트가 문화적 문식성을 알아내기에 가장 적절한 텍스트라고 보았다.

특히 어린 학생들의 경우에는 하오체·하계체를 일상생활에서 듣고 말할 기회가 거의 없다. 그래서 모어 화자는 하오체·하계체에 함의된 문화적 문식성을 가정이나 유치원에서 아동을 위한 도서를 듣거나 읽으면서 습득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기초문식성 발달과 함께 확고한 문화적 문식성을 습득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모어 화자가 자신의 모국어를 읽고 쓰는 기초문식성<sup>32)</sup>을 습득할 수 있는 기간이 취학 전 유치원의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기초 문식성의 바탕 위에 중학교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한 단계 위의 문식성을 발달시킨다. 교과서에 수록된 하오체·하계체 텍스트를 통해 하오체·하계체의 전형적인 사용 맥락과 화용 정보를 알게 된다. 이것이 바탕이 되어 모어 화자는 하오체·하계체를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게 된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 다른 상대높임법을 사용하는 것과는 다른 하오체·하계체가 가진 ‘변별적인 의미와 기능’을 이해하게 되고 더 나아가 하오체·하계체를 사용하는 것이 어떤 의도와 효과를 나타내는지 알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습득하게 되는 하오체·하계체의 문화적 문식성은 교

32) 취학 전의 국어 경험을 발전시켜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초 문식성을 갖추고, 말과 글(또는 책)에 흥미를 가진다.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p.11)

과서 안에서 교육에 대한 명시적인 목표와 의도를 드러내지 않은 가운데에 발달한다. 왜냐하면 문화적 문식성이 텍스트 속에 녹아있기 때문이다. 모어 화자들은 단지 하오체·하계체가 사용된 텍스트를 학습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된다. 바로 그 드러나지 않게 ‘습득되는 과정’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런 과정을 통해 그것이 가진 ‘변별적인 의미와 기능’을 이해하게 되고 더 나아가 하오체·하계체를 사용하는 것이 어떤 의도와 효과를 나타내는지 알 수 있게 된다.

초·중 국어교과서를 대상으로 하오체·하계체 텍스트의 문화적 문식성을 알아보려는 이유는 모어 화자가 공통 교육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배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어 화자들이 하오체·하계체에 대해 갖는 문화적 문식성을 알아내기에 가장 적절한 텍스트이다. 그러나 이러한 ‘습득과정’이 생략된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로서는 ‘교육’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오체·하계체에 내재한 문화적 문식성을 알 수 없다.

그러므로 하오체·하계체에 내재하는 문화적 문식성을 학습하기 위해 모어 화자와는 달리 명시적인 목표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배워 익혀야’한다. 그런데 한국어교육 현장에서는 하오체·하계체가 포함된 텍스트를 다루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배우기 어렵다. 따라서 그 교육을 위하여 이 장에서 하오체·하계체 텍스트를 분석하여 문화적 문식성을 도출하려고 하는 것이다.

### 3.1 유아용 도서 수록 하오체 하계체 텍스트

이 절에서는 주로 3~5세 아동을 위한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교육과정<sup>33)</sup>에서 접하게 되는 하오체·하계체 텍스트를 살펴보겠다. 이 시기는 문식성 발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로 문식성 발달이론에서 Holdaway가 말한 아동의 읽기 학습이 처음 시작되는 단계이다. Holdaway(1979, 재인용)<sup>34)</sup>는 읽기 학습

33)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각 연령별로 교육 내용을 규정해 놓고 있다. 그 가운데 4세, 5세 누리과정의 의사소통 영역의 ‘듣기’ 범주에서 ‘동요, 동시, 동화를 다양한 방법으로 듣고 이해한다.’와 ‘전래 동요, 동시, 동화를 듣고 우리말의 재미를 느낀다.’가 세부내용으로 명시되어 있다. (인용 출처: ‘국가 교육 과정 정보센터 <http://www.ncic.re.kr/> 유치원교육과정 2009’ 개정시기 2015년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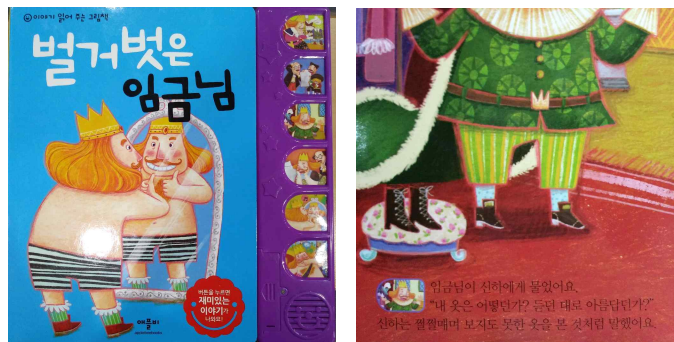
34) Diane H. Tracey, Lesley Mandel Morrow, 박태호, 이정화 외 역(2015), 읽기 교육 이론의 새로운 지평, 2판, 아카데미프레스..

은 처음에 부모가 읽는 것을 보거나 부모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읽어 줄 때 시작된다고 하였다. 이 이론에서 부모는 아동의 모델이고, 아동은 부모의 읽기 행위를 모방하려고 노력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모방적 실행은 아동의 첫 읽기 활동으로 이어지거나 유사 읽기 행위로 이어진다.

여기에서는 먼저 문식성 발달이 시작되는 유아기의 어린이들이 어떻게 하오체·하계체를 접하게 되는지 살펴보겠다. 문식성 발달이 시작되는 유아기의 어린이들은 아직 글자를 알지 못하므로 엄마와 함께 전래 동요를 부르거나 부모가 읽어주는 옛날이야기를 들으며 자연스럽게 하오체·하계체를 익힌다. 이처럼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양육자와 함께 전래 동요를 부르거나 유아용 옛날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스스로 전래 동화도 읽으면서 하오체·하계체의 문화적 문식성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된다.

일부 모어 화자들의 경우에는 유아가 혼자 앉아서 놀 수 있는 정도만 되어도 ‘장난감’처럼 그림책을 가지고 놀게 한다. 예를 들면 유아를 위한 ‘사운드 북’같은 것이다. 책 표지의 한쪽에 버튼이 있고 유아가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거나 양육자가 놀이 시범을 보이면서 누르면 해당 장면이 녹음된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다음의 [그림 4]는 유아용 ‘이야기 읽어 주는 그림책’<sup>35)</sup> 시리즈의 하나로 <별거벗은 임금님><sup>36)</sup>이라는 동화이다. 버튼을 누르면 임금님이 신하에게 하오체 또는 하계체로 이야기하는 장면을 ‘소리’로 들을 수가 있다.

[그림 4] 유아용 사운드 북의 표지와 내용



35) 출판사 ‘애플비’에서 나온 4권짜리 그림책 시리즈로 ‘사운드북’의 일종이다.

36) (주)애플비 북수개정판 6쇄 2016, 덴마크 작가 한스 안데르센(Hans Christian Andersen)의 동화로 1837년에 발표되었다.

녹음된 이야기를 들려주는 양육자나 듣는 유아는 상대높임법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 유아는 다음과 같은 하오·하게체를 듣게 되는 것이다.

임금: (재봉사에게) 오호, 그런 옷이 정말 있단 말이오?

임금: (신하에게) 내 옷은 어떻던가? 듣던 대로 아름답던가?

어린 유아를 위해서 양육자가 그림책을 직접 읽어주기도 하지만, 요즘과 같이 스마트 기기가 일상이 된 시대에는 책과 함께 제공되는 동영상도 스마트 기기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동영상이 제공되는 유아용 그림책 가운데 도서 출판사 ‘애플비’에서 나오는 『읽고 싶고 듣고 싶은 전래 그림책』<sup>37)</sup> 시리즈가 있다. 이 가운데 〈팔죽할멈과 호랑이〉, 〈홍부와 놀부〉, 〈토끼와 자라〉에는 하오체·하게체를 사용하고 있다. 이 책들은 내용을 간단하게 줄이고 QR코드로 유튜브 동영상과 연결하여 보고 들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다음은 책 속에 사용된 하오체·하게체의 예이다.

호랑이: 어흥, 할멈을 잡아먹겠다.

할멈: 호, 호 호랑이야! 이 팔으로 만든 팔죽이나 한 그릇 먹고 죽게 해 다오.  
〈팔죽할멈과 호랑이〉

형님! 먹다 남은 찬밥이라도 좀 주시오.

마침 놀부의 아내가 밥을 하다 나와서,

“씩 물러가시오!”

〈홍부와 놀부〉

자라가 토끼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어요.

“혹시 당신이 토끼님이신가요?”

“그렇소! 나를 왜 찾으시오?”

(중략)

드디어 토끼와 자라가 땅에 다다랐어요.

“토끼님! 어서 가서 간을 가져오시오.”

자라가 말을 하자마자 토끼는 짹짹 뛰어서 산속으로 도망쳤어요.

37) 글 나는북, (주)애플비북스, 2016

“어리석은 자라야! 간을 어찌 빼 놓고 다니겠니?”

〈토끼와 자라〉

생생한 목소리와 신나는 효과음이 담긴 구연동화 외에도 전래 동요책은 유아에게 좋은 장남감이면서 문식성 발달에 효과적이다. 예를 들면 어린이들이 이가 빠졌을 때 엄마와 함께 부르는 〈까치야 까치야 헛 이 줄게 새 이 다 오〉는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불러본 경험이 있는 구전 동요이다. 그리고 놀이터 모래밭이나 바닷가 백사장에서 모래 놀이를 하며 〈두껍아 두껍아〉를 부르는 것도 흔한 일이다. 이러한 구전 동요를 모아 놓은 도서와 음반은 매년 발매되고 있을 정도이다.<sup>38)</sup>

이러한 구전 동요집 가운데 『깨롱깨롱 놀이노래』<sup>39)</sup>를 대상으로 하오체·하계체를 사용한 가사를 살펴보겠다. 이 도서를 대상으로 한 이유는 2017년 개정된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에 인용 출처로 수록된 도서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는 50개의 구전 동요가 삽화와 함께 실려 있고 음반도 포함되어 있다.

이 가운데 ‘하오체’ 가사를 사용한 구전 동요로는 〈두껍이 집〉이 있는데 유아들이 놀이터 등에서 모래놀이 할 때 부르는 동요이다. 모래밭에서 한 손을 모래에 묻고 다른 손으로 그 위에 모래를 얹어 다지면서 아래와 같은 단순한 문장을 반복적으로 부르는 놀이이다.

두껍아 두껍아 헛집 줄게 새집 다오.<sup>40)</sup>

모래놀이는 유아들에게 창의력을 발달시키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어 심리 치료에도 사용할 정도의 효과가 있고 아이들도 좋아하는 놀이로 대부분의 아이들이 가정이나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많이 한다. 이런 모래놀이를 할 때 많이 부르는 동요가 〈두껍이 집〉이다.

38) ‘두껍아 두껍아’가 포함된 유아 동요 음반은 매년 발매되고 있고(최근 음반 2015년) 재즈 곡으로도 편곡된 음반(‘무아’ 2016년 2월 발매)도 있다.

39) 『깨롱깨롱 놀이노래』(2008), 편해문 엮음, 윤정주 그림, 보리.

40) (주)아툰즈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의해 제작된 ‘대한민국 놀이 Korean Game’ (전통놀이)두껍이집 동영상을 통해 놀이에 대한 설명도 찾아볼 수 있다. (<https://youtu.be/VtYVtjR7vo4>) 2016년에는 재즈 연주로도 발매될 정도로 친숙한 멜로디이다.

한편, 하계체를 사용하고 있는 구전동요로는 <이 서방 일하러 가세>가 있다. 한국인 성 씨의 운에 맞춘 동사를 사용한 재미있는 동요로 아래와 같은 가사를 가지고 있다.

이 서방 일하러 가세<sup>41)</sup> / 김 서방 김매러 가세  
조 서방 조 털러 가세 / 신 서방 신이나 삼세  
배 서방 배 사러 가세 / 고 서방 고추 따러 가세  
오 서방 오이 따러 가세 / 방 서방 방석 팔러 가세  
우 서방 우물이나 파세

이 구전 동요는 <성풀이>로도 불리는데 전통적인 ‘말놀이’의 일종이다. 이러한 구전 동요는 책에서 삽화와 함께 제시되어 있어 유아들이 이 구전 동요를 통해서 ‘서방’이라는 말과 함께 하계체도 자연스레 익힐 수 있다. 어린 아동들이 이처럼 구전 동요나 유아용 도서에서 익힌 하오체·하계체를 놀이와 함께 실제로 발화하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었다.

3~4세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들의 발화에 나타나는 종결어미를 통해 문장종결법과 청자대우법의 발달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에서 아동들의 하계체 발화 빈도가 합쇼체보다 높았고 4세 아동들은 하오체도 사용하였다는 보고가 있다(김순란·김정미 2004:27). 이 연구는 모어 화자들이 유아 시기부터 하오체·하계체를 습득하여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발화에서 구사하는 것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럼 일상생활에서 구어로써는 들을 기회가 거의 없는 하오체·하계체를 유아들은 어떻게 알고 위의 연구에서와 같이 실제로 발화까지 하게 되는가? 그 해답은 바로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유아용 도서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 시기 광범위하게 읽히는 유아용 도서에서 하오체·하계체를 찾기란 어렵지 않을뿐더러 사용도 매우 빈번하다. 아직 글자를 깨치지 못한 유아들은 가정과 어린이집에서 부모나 선생님이 읽어주는 옛이야기를 들으면서 하오체·하계체를 익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유아용 도서 시장은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

41) 인용문의 강조 및 밑줄은 하오체·하계체 어미로 필자가 표시한 것으로 이하 모두 같다.



다.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를 중심으로 ‘초등학생이 꼭 봐야할 교과서 속 옛이야기’, ‘미리 보는 교과서’ 등의 이름으로 예비 학습을 위한 유아용 도서가 다수 출판되어 있다. 이렇게 많은 유아용 도서 가운데 일부는 교과서 집필에 인용 텍스트로 채택<sup>42)</sup>되기도 한다. 이 가운데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와 연계된 전래 동화 <방귀쟁이 며느리><sup>43)</sup>에서 볼 수 있는 하오체를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sup>44)</sup>

그라면 방귀를 펴라니께, 아버님은 가마솔<sup>45)</sup> 저놈을 짹 붙잡고 저기 문고리 짹 붙잡고 서방님<sup>46)</sup>도 아무거나 짹 붙잡고 계시오, 잉!  
 이보시오. 아까 당신들 여기 배나무 보고 뭐라고 했소?  
 내가 그 배를 딸 수 있소. 저리 쪼개 비켜서시오, 잉.  
 자, 여기 배를 따 드렸으니 얼마든지 잡수시고 짐이나 갈라주소.

이 전래 동화에서 며느리는 ‘아버님’과 ‘서방님’ 그리고 길거리에서 만난 상인들에게 전라도 지방의 사투리와 어우러진 하오체를 사용하고 있다.

이 외에도 유치원 표준교육과정인 누리과정과 연계된 옛날이야기<sup>47)</sup> 속에서 하오체·하계체를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 속하는 옛날이야기 작품은 대단히 많다. 그 중 몇 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바리데기><sup>48)</sup>, <콩쥐 팥쥐>, <은혜 값은 까치>의 반전동화 <아빠 구렁이가 가르쳐 준 교훈><sup>49)</sup>, <세 가지 유산>, <토끼와 자라>, <반쪽이>, <의좋은 형제>, <눈이 되고 발이 되어>, <멀치의 꿈>, <소와 바꾼 무>, <코 없는 신랑과 입 큰 각시>, <자린고비와 달랑곱재기><sup>50)</sup> 『우리 전래 동화 13가지 이야기』, <홍부전>의 반전동화 <놀부전><sup>51)</sup>

42) 예를 들면 초등학교 교과서 『국어 3-1 가』에는 정용원(2005) 『초등학생을 위한 학년별 동시』, 이지원 엮음(2004), 『웅고집전 우리나라 대표 고전 소설』, (주)계림닷컴 에 실린 작품이 인용되어 있다.

43) 초등학교 『국어 3-2 가』, 제1단원 마음으로 보아요.

44) 신세정(2010), 『방귀쟁이 며느리』, 사계절.

45) 이탤릭체는 전통 문화와 관련된 어휘로 필자가 표시함. 이하 모두 같음.

46) 일탤릭체 강조는 하오체·하계체에 호응하는 호칭어로 필자가 표시하였으며 이하 모두 같다.

47) 이경미(2014), 「개념학습 상황모형에 기초한 전래 동화 활용 조부모 참여프로그램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양상」, 강릉원주대학교 박사논문

48) 송언(2008), 『바리데기』, 한림출판사.

49) 글깨비(2007), 『아빠 구렁이가 가르쳐준 교훈』, 글썩리.

50) <멀치의 꿈>부터 <자린고비와 달랑곱재기>까지는 조동호(2008), 『우리 전래 동화 13가지 이야기』, 거인.

이다. <놀부전>과 <아빠 구렁이가 가르쳐 준 교훈>은 전래 동화를 새로 쓴 반전동화인데 그 문체는 전래 동화 문체를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전래 동화처럼 인식된다. 이들 전래 동화에서 하오체·하계체 문장을 발췌한 예를 일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바리데기>

(전략)

오구대왕: (길대 부인에게) 내가 일곱째 딸을 내다 버려 천벌을 받는 모양이오.  
죽기 전에 일곱째 딸 얼굴이나 한번 보게 해 주오.

(중략)

오구대왕: (바리데기에게) 애고, 내 딸아, 네가 죽지 않고 살아 있었구나. 고맙고, 고맙다. 널 내다 버린 벌로 죽을 병에 들었으나 이젠 되었다. 야박하였던 이 아버를 용서해다오.

<콩쥐팍쥐>

(전략)

원님: (팍쥐에게) 얼굴이 어찌 그리 검어졌소?  
팍쥐: 원님 언제 오시나 걱정을 하도 해 검어졌지요.  
원님: 볼은 어찌 그리 엷어졌소?  
팍쥐: 원님 기다리며 서성이다 콩명석에 넘어져 엷어졌지요.  
원님: 목은 어찌 그리 길어졌소?  
팍쥐: 원님 어디쯤 오셨나 담장 내다보느라 길어졌지요.  
(중략)  
원님: (할머니에게) 허허, 젓가락이 짹짹이가 아니오?

<아빠 구렁이가 가르쳐 준 교훈-은혜 값은 까치의 반전동화>

(전략)

선비: (구렁이에게, 곤경에 처해서 애걸하면서) 다, 당신 남편인 줄 모르고 한 일이오! 어, 어린 까치들이 죽는 걸, 차, 차마 볼 수 없어 그랬으니 제발 용서하십시오!

<세 가지 유산>

둘째 아들: (길에서 만난 험상궂은 사내에게) 여보시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느라 이리 힘든데 사람이 지나가는지, 노루가 지나가는지 둘러볼 정신

51) 김예실(2012), 『흥부와 놀부』, 대교.

이 어디 있겠소?

〈토끼와 자라〉

(전략)

용왕: “어허, 토끼 선생, 그만 화를 푸시오. 다들 내 병이 걱정되어 그러는 것이  
니 너그러이 봐 주시오”

〈반쪽이〉

(전략)

부갓집 영감: 장기를 두어 내가 이기면 자네 호랑이 가죽을 주게.  
자네가 이기면 내 딸과 혼인시켜 주겠네.

〈의좋은 형제〉

(전략)

형: 아우 집에 벼단을 더 갖다 주어야겠소. 새살림도 장만해야 할텐데.

아내: 그래요. 오늘 밤에 갖다 주세요.

(중략)

아우: 형님 댁에 벼단을 더 갖다 드려야겠소. 식구가 많으니 쓸데도 많지 않겠소?

색시: 그래요. 오늘 밤에 갖다 드려요.

〈눈이 되고 발이 되어〉

(중략)

얹은뱅이: 여보게 우리 장 보러 가지 않겠나?

장님: 나는 볼 수가 없고, 자네는 걸을 수가 없는데 무슨 수로 고개 너머 장을  
보러 간단 말인가?

얹은뱅이: 나는 눈이 되고, 자네는 발이 되면 되지.

장님: 옳다구나! 자네 말이 맞네!

(이하 생략)

〈멸치의 꿈〉

(전략)

망둥이 할멈: 그건 멸치 자네가 용이 되어서 하늘로 승천하는 꿈이라네!

〈소와 바꾼 무〉

(전략)

욕심쟁이 농부: 자네, 어디서 이런 소를 얻었나?

착한 농부: 밭에서 자란 커다란 무를 사또에게 드리고 받았다네!

〈코 없는 신랑과 입 큰 각시〉

(전략)

코 없는 신랑: (친구에게) 여보께, 생일 축하하네!

〈자린고비와 달랑곰재기〉

(전략)

자린고비: (달랑곰재기에게 편지) 올해 내 운세가 어떤지 써 보내 주게.

(중략)

자린고비: 여보께, 편지를 보냈으면 답장을 보내야지!

달랑곰재기: 미안하네. 종이가 없어서 못 보냈네.

자린고비: 뭐야? 내 편지 당장 돌려주게.

달랑곰재기: 자네 편지는 우리 집 방문 구멍에 발랐네.

〈놀부전〉

(전략)

흥부 부부: 슬근슬근 톱질하세. 어절씨구 톱질하세.

흥부: (부인에게)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내 볼 좀 꼬집어보오.

(중략)

놀부: (흥부에게) 아우야. 내가 정말 큰 잘못을 하였구나. 용서해다오.

위에서 살펴본 유아용 전래 동화에서 하오체·하계체의 사용 맥락에 관한 정보를 정리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 전래 동화 속의 하오체·하계체 사용 맥락 정보

번호	제목(저자, 출판사, 년도)	화청자의 신분	등장인물 관계	화계	호칭
1	바리데기 (송언 글, 한림출판사, 2008)	왕족(대왕, 왕비, 공주)	부부, 부녀	하오체	자네
2	콩쥐팥쥐 (김순정 글, 을파소, 2013)	콩쥐, 팥쥐, 원님 할머니	부부 벼슬아치 백성	하오체	-
3	은혜 갚은 까치 (글깨비 글, 글뿌리, 2007)	선비, 구렁이	타인	하오체	-

4	세 가지 유산 (이미애 글, 유현주 그림 을파소, 2013)		평민	타인	하오체	여보게 자네
5	토끼와 자라 (홍영우 글, 그림 보림, 2013)		용왕, 토끼	왕과 평민	하오체	토끼야 토끼 선생
6	반쪽이 (류미원 글, 김재홍 그림 을파소, 2013)		부잣집 영감 젊은이	연장자와 젊은이, 타인	하계체	자네
7	의좋은 형제 (이현주 글, 김천정 그림 국민서관, 2015)		농부	형제, 부부	하계체	형님, 아우
8	눈이 되고 발이 되어 (박윤규 글, 유준제 그림 한솔, 2009)		평민	친구	하계체	여
9	우리 전래 동화 13가지 이야기 (조동호 글 거인, 2008)	멸치의 꿈	망둥이 할멈 멸치	연장자와 젊은이	하계체	자네
		소와 바꾼 무	욕심쟁이 농부 착한 농부	동료	하계체	자네
		코 없는 신랑과 입 큰 각시	코 없는 신랑 신랑의 친구	친구	하계체	자네
		자린고비와 달랑곶재기	자린고비 달랑곶재기	친구	하계체	여보게, 자네
10	놀부전 (글깨비 글, 글뿌리, 2007)		홍부, 놀부 홍부 부부	형제, 부부	하계체 하오체	아우

즉, 전래 동화의 하오체·하계체는 ① ‘등장인물들의 관계’를 보여주고 ② ‘상대적인 위계의 변화’를 나타내기 위하여 주로 사용되고 있음이 발견된다. 그리고 인물관계를 분석해보면 크게 세 가지가 나타난다. 전래 동화 속의 등장인물들의 관계는 ① ‘부부 관계인 경우 모두 하오체’를 사용하고 있고, ② ‘친구 관계에서는 하계체’를, ③ ‘나이, 힘이 우위에 있는 등장인물은 그렇지 않은 상대’에 대해서 하계체를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모어 화자들은 가정과 유치원 교육과정 속에서 양육자와 교사가 들려주는 전래 동화를 많이 접한다. 그런 가운데 전래 동화 속 등장인물들의

대화로부터 ‘화자와 청자의 관계와 신분’, ‘상황에 따른 등장인물 사이의 힘 [주도권]의 변화’와 같은 하오체·하계체의 사용 맥락을 익히게 된다.

또한 어린이를 위한 전래 동화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 많은 삽화가 들어있다. 이 삽화 속에는 등장인물들의 전통 의복, 전통 주거 형태 등 한국의 전통 문화의 특징이 잘 나타나있다. 이런 그림을 통해 나이[할멈]가 많고 적음, 신분[선비]과 지위[원님, 사또]의 차이, 경제력[부잣집 영감]이나 물리력[구렁이, 호랑이]의 다름을 서서히 알게 된다. 어린이들은 이렇게 하오체·하계체가 사용된 다양한 전래 동화를 보고 들음으로써 자연스럽게 하오체·하계체의 기능과 의미를 알아차릴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하오체·하계체 사용 전래 동화에서는 아동이 경험적으로 접할 수 없는 ‘전통 문화와 관련된 어휘’까지도 동시에 습득하게 된다는 강점이 있다. 예를 들면 ‘서방’ ‘고개’ ‘자네’ ‘여보게’와 같은 단어들은 아동들이 주변 사람들과의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거의 들을 수 없고, ‘원님’ ‘사또’ ‘문고리’ ‘용왕’ 등은 실제 대화에서 결코 들을 수 없는 것들이다. 그리고 이들 단어들의 수준은 유아기 때 이해, 습득하기 어려운 전통 문화 어휘들이다.

그러나 비록 글자를 읽지 못하는 아동들이라도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전통 문화 어휘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을 뿐더러 책에 그려진 풍부한 삽화를 통해 이러한 문화 내용을 아주 쉽게 이해하게 된다. 즉, 아동들이 문자 습득과는 거리가 있는 시기이지만 어려서부터 접하게 되는 전래 동화를 통해 이러한 지식을 익히게 되어 문화적 문식성의 기초를 쌓을 수 있다.

### 3.2 초등 국어 교과서 수록 하오체 하계체 텍스트

의무 교육이 시작되는 초등학교의 교과서는 국정, 검정, 인정 교과서로 나뉜다. 국정 교과서는 국가(교육부장관)가 직접 교과서 저작에 관여해 그 내용 등을 결정하는 것이고 검정 교과서는 국가(교육부장관)가 간접적으로 저작에 참여하는 교과서를 말한다. 인정 교과서란 국정, 검정 교과서가 없거나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 사용하는 것으로 교육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를 말한다.<sup>52)</sup>

이 가운데 국정 교과서는 국정도서는 교육부가 편찬하며,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에 위탁하여 편찬할 수도 있다. 학교의 장은 국정도서가 있을 때에는 국정도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sup>53)</sup> 또한 국정 교과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며 국가적 통일성이 필요한 교과목 위주로 개발한다. 국정 교과서로 제작되는 교과목은 예체능 교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이며 국가적 통일성이 필요한 과목이다. 현재 초등 교육과정의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도덕 과목은 전 학년 모두 국정 교과서이다. 즉, 국정 교과서는 한국의 모든 초등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반드시 보게 되는 책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누구나 공부하는 초등학교의 국정 교과서 가운데 언어생활과 학습의 기본이 되는 국어 교과서를 하오체·하게체의 문화적 문식성을 살펴보는 자료로 삼으려 한다. 이 논문에서 하오체·하게체가 포함된 텍스트를 선별하여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한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1, 2학기 국어 교과서로 모두 44 권이다.<sup>54)</sup>

각 학년별로 교과서를 살펴본 결과 하오체·하게체가 발견된 것은 교과서 안의 텍스트와 지시문 그리고 삽화였다. 가장 중요한 텍스트는 교과서의 본문 텍스트이다. 그런데 국어 교과서에는 본문 텍스트 외에 매우 광범위한 하오체·하게체가 사용되는 것이 확인된다. 바로 지시문과 삽화에 사용된 말풍선들이다. 이를 통해 하오체·하게체가 특정 텍스트를 넘어 현재 문어에서도 실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3.1 절의 유아용 도서 수록 하오체·하게체와 달리 다양한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진 교과서를 분석하는 것이기에 위계를 달리하여 본문 제재, 지시문, 삽화의 말풍선 순으로 자료를 발견, 분석하기로 한다.

### 3.2.1 본문 제재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 지시문과 삽화가 아닌 교과서 각 단원의 핵심인 본문 제재에서 하오체·하게체가 포함된 텍스트를 살펴보겠다. 먼저 국어

52) pmg지식엔진연구소,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2015.(인터넷 자료)

53) 두산백과(<http://www.doopedia.co.kr>)

54) 초등학교 국어교과서는 학기별로 나뉘어져 있다. 국어교과서는 『국어』와 『국어생활』로 구분되어 있는데 국어의 경우 전학년이 국어 가(1학기)와 국어 나(2학기)로 나누고 국어생활은 1학년과 2학년은 각 1권씩,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국어생활 가, 국어생활 나로 나누어져 있다.



교과서의 하오체·하계체 텍스트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 학년에 골고루 수록되어 있다. 전 학년에 걸쳐 본문 제재에 수록되어 있는 하오체·하계체 포함 텍스트는 44개나 된다. 그리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고학년인 6학년 교과서에 수록된 하오체·하계체 텍스트의 수가 17개로 전체의 39%, 5, 6학년을 합하면 29개로 전체의 66%였다.

초등 국어교과서의 본문에 하오체·하계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1학년 2학기부터이다. 『국어 1-2 나』의 〈소금을 만드는 뱃돌〉, 『국어 활동 1-2』의 〈냄새 맡은 값〉에 하계체로 표현된 대화문이 실려 있다. 1학년 1학기의 수업이 대부분 한글 자모와 낱말을 익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인 초등학교 국어 수업의 시작은 1학년 2학기부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어 수업의 시작부터 하오체·하계체 텍스트가 제시되고 있다고 봐도 될 것이다. 초등 국어교과서의 본문 제재에 하오체·하계체가 포함된 텍스트의 양이 많으므로 목록을 먼저 제시하기로 한다.

[표 4] 초등 국어 교과서 수록 하오체·하계체 포함 텍스트 목록

학년	교과서	하오/하계체 포함 텍스트	갯수
1학년	국어 1-2 나	〈소금을 만드는 뱃돌〉	2
	국어 활동 1-2	〈냄새 맡은 값〉	
2학년	국어 2-1 나	〈오소리네 집 꽃밭〉	3
	국어 2-2 가	〈활활 간다〉	
	국어 2-2 나	〈소가 된 게으름뱅이〉	
3학년	국어 3-1 가	〈토끼의 재판〉	6
	국어 3-1 나	〈백영숙을 보내며〉, 〈무녀리네 엄마 개순이〉	
	국어 3-2 가	〈방귀쟁이 며느리〉	
	국어 3-2 나	〈별주부전〉	
	국어 활동 3-1 가	〈좁쌀 한 톨로 장가 든 총각〉	
4학년	국어 4-1 나	〈은 세근에 담긴 이야기〉	4
	국어 4-2 가	〈은혜 값은 고목〉	
	국어 활동 4-2 가	〈털털이와 비단주름과 큰손발이〉	
	국어 활동 4-2 나	〈자연과 과학의 완벽한 만남, 수원 화성〉	
5학년	국어 5-1 가	〈옹고집전〉	11
	국어 5-1 나	〈니 꿈은 뭐인가〉, 〈해 기우는 서쪽 창〉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 돼지 삼 형제 이야기〉	

	국어 활동 5-1 가	〈놀부전〉, 〈깽깽이꾼 이야기〉	
	국어 5-2 나	〈알에서 태어나다〉, 〈능텅감투〉, 〈아빠 좀 빌려주세요〉	
	국어 활동 5-2 나	〈글만 읽는 가난한 양반〉, 〈베니스의 상인〉	
6학년	국어 6-1 가	〈우주호텔〉	19
	국어 6-1 나	〈원숭이 꽃신〉, 〈온양이〉, 〈살구가 익을 무렵〉 〈마음을 담은 그릇〉	
	국어 활동 6-1 가	〈호랑이를 잡은 반쪽이〉, 〈나비를 잡은 아버지〉	
	국어 활동 6-1 나	〈바리데기〉	
	국어 6-2 가	〈서로 다른 선택〉, 〈허준〉, 〈방구 아저씨〉, 〈나의 소원〉	
	국어 6-2 나	〈함께 함의 지혜〉, 〈저승에 있는 공간〉, 〈장끼전〉	
	국어 활동 6-2 가	〈형설지공〉	
	국어 활동 6-2 나	〈양초도깨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개가 남긴 한 마디〉	
총 계			45

위의 목록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학년의 국어 교과서에 하오체·하계체를 사용한 텍스트가 수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하오체·하계체가 포함되어 있는 텍스트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1학년에 2개, 2학년 3개, 3학년 6개, 4학년 4개, 5학년 11개, 6학년 19개로 전체적으로 보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하오체·하계체 텍스트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결과이다.

위의 목록에서 나타난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하오체·하계체의 텍스트에 대해서 특징, 사용 맥락과 전통 문화 요소를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 3.2.1.1 초등 국어 교과서 수록 하오체·하계체 텍스트의 특징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초등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하오체·하계체 텍스트를 화계의 분포, 글의 갈래, 하오체·하계체의 대화쌍의 길이, 텍스트의 시간적인 배경, 텍스트의 출판 년도로 나누어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렇게 나눈 이유는 먼저 더 많이 사용되는 화계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것인지 알아보려는 것이다. 그리고 글의 갈래에 따른 하오체·하계체 사용 빈도와 양상 등을 알 수 있어 하오체·하계체의 문화적 문식성을 찾아내는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래의 표는 위의 기준에 따라 하오체·하계체가 사용된 텍스트를 정리한

것이다. 이 가운데 『국어 5-2 나』 <능텅감투>\*와 『국어 6-2 가』 <허준>\*은 듣기 시간에 듣기 자료로 제시된 것이다.

[표 5] 초등 국어교과서 하오체·하계체 텍스트의 특징

학 년	제재명	화계	갈래	대화쌍 의 길이	시간 배경	출판 년도
1	소금을 만드는 뗏돌	하계체	전래 동화	단문	과거	2012
	냄새 맡은 값	하계체	전래 동화	단문	과거	2017
2	오소리네 집 꽃밭	하오체	창작동화	단문	현대	2000
	훅훅 간다	하오체	창작동화	장문	과거	2003
	소가 된 게으름뱅이	하계체	전래 동화	단문	과거	2008
3	토끼의 재판	하오체	민담	장문	과거	1923
	백영숙을 보내며	하계체	번역(국역)	장문	조선	2010
	무너리네 엄마 개순이	하오체	창작동화	단문	현대	2005
	방귀쟁이 머느리	하오체	전래 동화	장문	과거	2011
	별주부전	하오체	고소설,극 본	장문	과거	2017
		하계체				
	좁쌀 한 톨로 장가 든 총각	하오체	전래 동화	장문	과거	2009
4	은 세 근에 담긴 이야기	하오체	역사물	단문	고려	2007
	은혜 깊은 고목	하계체	민담	장문	과거	2012
	덜덜이와 비단주름과 큰 솔 밭이	하오체	창작동화	장문	과거	2009
	자연과 과학의 완벽한 만남, 수원 화성	하오체	교양도서	장문	조선	2012
5	옹고집전	하오체	고소설	장문	조선	2004
		하계체				
	니 꿈은 뭐이가	하오체	창작동화	단문	1920년대	2013
	해 기우는 서쪽 창	하오체	창작동화	단문	조선 후기	2010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 돼지 삼 형제	하오체	외국동화	단문	미상	2008
	놀부전	하오체	전래 동화	장문	조선	1998
	깡깡이꾼 이야기	하오체	창작동화	장문	조선	2013
	알에서 태어나다(단문)	하계체	신화	단문	신라	2005
	능텅감투*	하계체	민담	단문	과거	1999
	아빠 좀 빌려주세요	하오체	창작동화	단문	현대	1998
	글만 읽는 가난한 양반	하오체	번역(국역)	단문	조선	2012

	베니스의 상인	하오체	번역	장문	과거	2008
		하계체				
6	우주호텔	하우체	창작동화	단문	현대	2012
	원숭이 꽃신	하오체	창작동화	장문	미상	2009
	온양이	하오체	창작동화	단문	현대	2011
	살구가 익을 무렵	하계체	창작동화	장문	현대	2013
	마음을 담은 그릇	하계체	창작동화	단문	과거	2011
	호랑이를 잡은 반쪽이	하오체	전래 동화	장문	과거	2013
		하계체				
	나비를 잡는 아버지	하우체	창작동화	단문	현대	2009
	바리데기	하오체	신화	단문	과거	2013
	서로 다른 선택	하오체	미담	단문	현대	-
	허준*	하오체	드라마대 본	장문	조선	2000
		하계체				
	방구 아저씨	하오체	창작동화	장문	일제 강점기	2014
		하계체				
	나의 소원	하오체	논문	단문	1947	2009
	함께 함의 지혜	하계체	저자들	단문	과거	2015
	저승에 있는 공간	하오체	전설 (턱진다리)	장문	과거	구비 문학
		하계체				
	형설지공	하오체	성어 유래	단문	과거	2014
	양초도깨비	하계체	전래 동화	장문	구한말	1925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계체	번역	장문	과거	2014
	개가 남긴 한 마디	하오체	번역	장문	과거	2013
	장끼전	하오체	고소설	장문	과거	2014

## 1) 화계의 분포

먼저 하오체·하계체로 표현된 텍스트의 수를 살펴보면 모두 45개로 하오체<sup>55)</sup> 33개, 하계체 19개였다(중복 포함). 하오체 텍스트가 하계체 텍스트에 비해 2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글의 갈래

다음으로 글의 갈래를 살펴보면, 설화, 전래 동화, 고소설, 창작 동화, 번역, 교양도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신화 2개, 전설 1개, 민담 4개,

55) 하우체 포함.

전래 동화 8개, 고소설 3개, 창작동화 14개, 번역 3개, 번역(국역) 2개, 기타 6개였다. 즉, 창작동화가 14편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전래 동화, 민담, 고소설 순이었다. 그런데 전통 사회를 배경으로 하면서 시간적인 배경이 과거인 텍스트 즉, 신화, 전설, 민담, 전래 동화를 모두 합하면 18개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외국 작품을 번역한 텍스트에 하오체나 하계체를 사용한 것으로는 『국어활동 5-2 나』의 〈베니스의 상인〉<sup>56)</sup>, 『국어 활동 6-2 나』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sup>57)</sup>〉, 〈개가 남긴 한 마디〉<sup>58)</sup> 3개였다.

### 3) 대화쌍의 길이

한편, 하오체·하계체가 실린 텍스트에서 하오체·하계체가 몇 차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단문, 장문으로 나누었다. 단문은 하오체나 하계체를 사용하는 대화쌍이 2번 이하로 나타나는 것으로, 장문은 그 이상 반복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예를 들면 1학년 2학기 국어 교과서 속의 〈소금을 만드는 뗏돌〉<sup>59)</sup>에서 다음과 같이 ‘백성들’이 하계체를 사용하여 대화하고 있다.

“그런데, 자네들, 임금님에게 신기한 뗏돌이 있다는 거 아나?”

“마음씨가 착하니 하늘이 임금님께 상을 주신 거구먼!”

1학년 2학기 국어활동 교과서 2단원 ‘소리와 모양을 흉내 내요’에 나오는 〈냄새 맡은 값〉에도 하계체를 사용한 대화가 나온다.

(전략)

“이 소리가 들리지요?”

“이것은 엷전 소리가 아닌가?”

“분명히 들었지요?”

“틀림없이 들었네.”

“그럼 됐어요.”

56) 셰익스피어 원작, 현소 글, 『베니스의 상인』, 아이세움, 2008

57) 레프 톨스토이 글, 방대수 옮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책만드는집, 2014.

58) 아지즈 네신 글, 이난아 옮김, 『개가 남긴 한마디』, 푸른숲주니어, 2013.

59) 홍윤희 글, 『소금을 만드는 뗏돌』, 예림아이 2012.

2학년 국어 2-1 나의 <오소리네 집 꽃밭>에서는 부부가 하오체로 대화하는 장면이 있다.

“어디 갔다 이제 오우?”

“저, 읍내 장에 다녀왔어요.”

“당신, 아까 회오리바람에 날려 갔잖소?”

“아니예요. 제 발로 걸어서 여기저기 구경했는걸요.”

위의 대화 예에서처럼 전체 텍스트 속의 대화에 하게체가 1번~2번 사용된 것을 단문으로 보았다. 수록된 텍스트에서 하오체·하게체가 쓰인 대화쌍의 수를 기준으로 대화쌍 1~2개가 사용된 ‘단문’은 23개였다.

그러면 하오체·하게체의 대화가 이어지는 장문이 있는 하오체·하게체의 텍스트의 예를 살펴보겠다. 하오체의 대화쌍이 여러 개 나오고 텍스트의 길이도 긴 장문이 초등 국어 교과서에 처음 나타나는 것은 초등학교 2학년 <훨훨 간다>이다. 이것은 창작동화로 아동문학가 권정생의 2003년 작품이다. 하오체로 대화하고 있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전략)

“어깨에 메고 가는 게 뭐요?”

코가 빨간 아저씨가 물었어요.

“무명 한 필이요.”

“무엇 하러 메고 가시오?”

“팔 거라오.”

“값이 얼마요?”

“돈은 안 받고 이야기를 한 편 들려주면 된다오.”

농부 아저씨는 잠깐 어리둥절했어요.

그러다가 겨우 알아차렸어요.

“그 무명 내가 사겠소.”

할아버지는 빨간 코 농부 아저씨와 마주 앉았어요.

(중략, 황새 이야기)

“이제 끝이오.”

“아이고, 재미있는 이야기 잘 배웠소.”

(중략)

“영감, 그래 재미있는 이야기 한 편 바꿔 왔소?”

(중략)

“아이고, 영감, 어디서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바꿔 왔소?”

3학년 국어 2학기에는 <별주부전>에 하계체를 사용한 텍스트가 다음과 같이 수록되어 있다.

(전략)

상어 대신: 여보게, 얼른 아뢰지 않고 무엇 하는가?

도미 의원: 용왕님 병환은 너무나 이상해서 물속 세상에서는 도저히 약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중략)

용왕:(자라를 보며)그대가 육지에 가서 토끼를 잡아 올수 있겠는가?

자라: 이 한 몸 다 바쳐서라도 토끼를 잡아 오겠사옵니다.

(중략)

용왕:(갑자기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보게, 토 선생! 정말 간을 가지고 올 수 있겠는가?

토끼: (기쁨을 짐짓 감추며 진지하게) 용왕님,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저에게는 있으나마나한 그까짓 간을 무엇 때문에 아끼겠습니까? 산속으로 가서 간을 가지고 돌아온 뒤, 영원히 용왕님을 모시고자 하옵니다.

위의 <별주부전>에는 여러 등장인물들이 상대에 따라 하계체를 사용하고 있는 장면이 3차례 나온다. 이와 같이 테스트에 하오체·하계체 대화쌍의 수가 3개 이상인 장문은 모두 22개였다.

#### 4) 시간 배경

다음은 텍스트의 시간 배경에 대해 살펴보겠다. 시간 배경은 ‘노극청’, ‘백영숙’ 등과 같이 등장인물이나 <수원 화성> 등의 텍스트 내의 정보를 통해 조사하였다. 고려, 조선과 같이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시간 배경을 적었고 민담, 전래 동화, 전설 등과 같은 것은 막연히 ‘과거’라고 분류했다. 그리고 텍스트의 내용상 개화기 이후의 것은 ‘현대’로 표시했다.

전래 동화와 신화, 전설, 민담은 과거를 시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하오체·



하계체 텍스트 45개 가운데 시간적인 배경이 현대인 것은 모두 8개였다. 나머지 37개는 과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텍스트였다. 이러한 결과는 하오체·하계체는 ‘과거’를 나타내는데 유용한 장치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창작동화 13편 가운데 7편은 시간 배경이 현대라는 점에서 하오체·하계체가 ‘과거’를 나타내는 표지로서 사용되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5) 텍스트 출판 년도

한편, 텍스트의 출판 년도는 교과서에 제공된 인용 출처를 확인하여 밝혀 놓았다. 예를 들면 1학년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전래 동화 『소금을 만드는 뱀돌』은 ‘홍윤희 글, 한태희 그림, 예림아이 2012’와 같이 교과서에 인용 출처에 대한 정보가 있어 출판 년도를 알 수 있다. 교과서의 인용 출처를 확인하여 각 텍스트의 창작 연도를 살펴보면 38개의 텍스트가 2000년 이후에 생산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하오체·하계체는 과거에 생산된 텍스트에서 뿐만 아니라 현대에도 ‘과거’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과거’를 배경으로 할 때 꾸준히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오랜 세월에 걸쳐 전해지는 전래 동화도 늘 당대의 사람들에게 맞게 텍스트가 변화되어 왔으며 현대 모어 화자들도 다양한 독자를 대상으로 변용, 재생산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초등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현대’의 전래 동화와 창작동화에서 사용된 하오체·하계체는 ‘과거’를 의미하는 표지으로써 ‘문화적 문식성’을 나타내는 ‘도구 또는 장치’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전통 문화’와 ‘과거’를 표현하려는 의도가 아닌 경우 즉, 교과서 속에서 한국의 전통 문화를 상징하는 어휘나 등장인물이 나오지 않거나 과거를 의미하는 어휘가 없는 텍스트의 예는 다음과 같다.

『국어 2-1 나』 〈오소리네 집 꽃밭〉,  
『국어 3-1 나』 〈무녀리네 엄마 개순이〉,  
『국어 5-2 나』 〈아빠를 빌려 주세요〉,  
『국어 6-1 가』 〈서로 다른 선택〉, 〈우주호텔〉,

『국어 6-1 나』 〈원숭이 꽃신〉, 〈온양이〉, 〈쌀뱅이〉  
 『국어 활동 6-1 가』 〈나비를 잡는 아버지〉,  
 『국어 6-2 가』 〈서로 다른 선택〉, 〈방구 아저씨〉, 〈나의 소원〉,  
 『국어 6-2 나』 〈함께 함의 지혜〉  
 『국어활동 5-2 나』 〈베니스의 상인〉  
 『국어 활동 6-2 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개가 남긴 한 마디〉

위의 텍스트들은 텍스트 안에서 한국의 ‘전통 문화’와 ‘과거’를 나타내는 어휘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전통 문화’와 ‘과거’를 표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등장인물들의 관계나 인물들의 ‘캐릭터 설정’을 위하여 하오체·하계체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외국 작품을 번역한 텍스트인 경우, 즉 『국어활동 5-2 나』의 〈베니스의 상인〉<sup>60)</sup>, 『국어 활동 6-2나』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sup>61)</sup>〉, 〈개가 남긴 한 마디〉<sup>62)</sup>는 텍스트 안에 ‘과거’를 의미하는 어휘나 등장인물이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작이 생산된 연도로부터 ‘과거’의 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모어 화자인 번역가는 번역할 때 시간적인 배경이 과거임을 ‘의식하여’ 하오체·하계체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왜냐하면 원작의 언어인 영어, 러시아, 터키어에는 종결 어미로 나타내는 상대높임법이 없다. 그런데도 한국어로 번역할 때에는 작품이 창작된 시기를 고려하여 작품 속 인물들의 직업, 신분, 나이, 말하는 상대와의 관계,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 등에 따라 적절한 상대높임법을 사용해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하오체·하계체에 대한 문화적 문식성이 모어 화자인 번역가에게나 독자에게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3.2.1.2 초등 국어 교과서 수록 하오체·하계체 텍스트의 화·청자 맥락 정보

교과서에 수록된 텍스트에 하오체·하계체가 사용되는 대화상황, 화·청자의 관계, 신분, 호칭 등에 관한 맥락 정보는 아래의 표와 같다. 화·청자의 신분,

60) 셰익스피어 원작, 현소 글, 『베니스의 상인』, 아이세움, 2008

61) 레프 톨스토이 글, 방대수 옮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책만드는집, 2014.

62) 아지즈 네신 글, 이난아 옮김, 『개가 남긴 한마디』, 푸른숲주니어, 2013.

관계 등은 글의 내용이나 텍스트 안의 삽화를 참고하여 조사하였다.

[표 6] 화청자에 관한 정보-신분, 관계, 호칭

학 년	제재명	화계	화청자의 신분	화청자관계	호칭
1	소금을 만드는 맷돌	하계체	백성들	타인	
	냄새 맡은 값	하계체	평민	상인, 손님	
2	오소리네 집 꽃밭	하오체	의인화 동물	부부	당신
	활활 간다	하오체	평민	부부	영감
	소가 된 게으름뱅이	하계체	평민	타인	
3	토끼의 재판	하오체	호랑이, 나그네	타인	
	백영숙을 보내며	하계체	박지원, 백영숙	친구	자네
	무녀리네 엄마 개순이	하오체	아버지, 어머니	부부	
	방귀쟁이 머느리	하오체	평민	타인	
	별주부전	하오체 하계체	의인화 동물	군신, 동료 등	
	좁쌀 한 톨로 장가 든 총각	하오체	평민	타인	
4	은 세 근에 담긴 이야기	하오체	관료, 장군	동료	그대
	은혜 값은 고목	하계체	마을 사람들	할아버지, 젊은이	여보게 자네
	털털이와 비단주름과 큰술발 이	하오체	왕, 신하	군신	전하
	자연과 과학의 완벽한 만남, 수원 화성	하오체	정약용(과거), 문화해설사(현대)	정약용, 문화해설사	어르신
5	옹고집전	하오체 하오체	옹고집, 어머니 노비, 스님	모자 노비와 스님	스님
	니 꿈은 뭐이가	하오체	관리, 학생	관리와 학생	
	해 기우는 서쪽 창	하오체	양반, 평민	양반, 평민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 돼지 삼 형제	하오체	의인화 동물	의인화 동물	
	놀부전	하오체	양반	부부	
	깡깡이꾼 이야기	하오체	평민	이야기꾼, 깡깡이꾼	
	알에서 태어나다(단문)	하계체	신화 속 인물들	왕, 여인	그대
	능텅감투(단문)	하계체	귀신들	동료(귀신)	
	아빠 좀 빌려주세요(단문)	하오체	시민	부부	당신
	글만 읽는 가난한 양반	하오체	선비, 아내	부부	

	베니스의 상인	하오체 하계체	귀족, 법학박사, 상인과 친구들	재판관과 의뢰인 친구	
6	우주호텔	하우체	할머니들	타인	
	원숭이 꽃신	하오체	오소리, 원숭이	타인	나리
	온양이	하오체	군인(장교)	타인	
	살구가 익을 무렵	하계체	주민	타인(연장자)	이사람
	마음을 담은 그릇	하계체	관리, 평민	아전, 평민	
	호랑이를 잡은 반쪽이	하오체	노인, 평민 평민	노인, 평민 형제	젊은이
		하계체	노인, 평민	노인, 평민	젊은이
	나비를 잡는 아버지	하우체	평민	부부	
	바리데기	하오체	왕족	부부	
	서로 다른 선택	하오체	나그네들	타인	-
	히준*	하오체	중인(의원)	동료	
		하계체	양반, 노비	주인, 하인	
	방구 아저씨	하오체	주민, 관리	주민, 관리	당신
		하계체	이장, 주민	이장, 주민	이름
	나의 소원(단문)	하오체	절대자, 신자	하느님	
	함께 함의 지혜(단문)	하계체	마을 사람들	마을 사람들	
	저승에 있는 공간	하오체	선비, 평민	선비, 주모의 딸 원님, 주모	
		하계체	관리(양반)	주모	
	형설지궁	하오체	평민	부부	당신
	양초도깨비	하계체	훈장, 마을사람	훈장, 마을사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계체	신사, 가게주인	손님, 가게주인	자네
	개가 남긴 한 마디	하오체	재판관, 주민	재판관, 피고인	선생
	장끼전	하오체	의인화 동물	부부	

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오체를 사용하는 화자와 청자의 관계는 부부가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신분이 높거나 지위가 있는 사람 즉, 왕이 신하에게, 관리가 주민에게, 훈장이 마을 사람에게 재판관이 법관에게 사용하

고 있다. 또한 <원숭이 꽃신>에서 오소리와 원숭이에게, <호랑이의 재판>에서 나그네가 호랑이에게 사용하듯이 힘의 우위에 있는 자가 자신보다 힘이 덜한 자에게 그러나 하대해서 말할 수는 없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 존중의 의미를 부여하며 사용하고 있다.

다음은 초등 『국어 3-1 나』에 실려 있는 <백영숙<sup>63)</sup>을 보내며><sup>64)</sup>에서 박지원과 백동수가 이야기 하는 장면과 연암 박지원이 쓴 편지글이다. 여기에서 박지원이 백동수에게 하계체를 사용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을 통해 백동수와 연암 박지원과의 관계를 금방 파악할 수 있다. 즉, 백동수는 서얼 출신으로 박지원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다. 따라서 양반인 박지원은 백동수에 대해 하계체를 쓰지 않아도 되는 관계이지만 하계체를 사용함으로써 백동수를 존중하는 뜻을 나타내주고 있다.

박지원: 여보게, 학문과 무술을 모두 잘하는 자네를 볼 때마다 감탄이 절로 나네.

백동수: 형님이야말로 재주꾼이시지요. 형님은 책도 많이 읽으시고 글도 잘 쓰시지 않습니까? 요즈음에는 새로운 공부에도 눈을 뜨셨다 하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나의 벗 보게나.

(전략)

그런 다음 갈대를 엮애기 위하여 불을 놓았더니, 꿩은 놀라 푸드득 날아오르고, 노루는 갑자기 우리 앞으로 튀어나와 서둘러 달아나지 않았나? 우리는 노루를 뒤쫓아 가다가 시냇물에 가로막혀 돌아왔지. 그때 나를 바라보며 웃던 자네의 모습이 떠오르네.

내가 산에서 사는 것을 걱정하던 자네가 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산에 들어가 살겠다고 해서 놀랐네. 산은 외파로 떨어져 있고 험한 곳이라 걱정이 많이 되네. 그저 나는 자네의 뜻을 장하게 여기고 걱정하지 않기로 하였으니 부디 건강히 잘 지내게.

예문에서 보다시피 글 전반에 흐르는 하계체는 백동수를 대하는 박지원의 존중, 배려, 관심을 아주 잘 드러내주고 있다.

63) 백동수(1743~1816) 조선 후기의 무신, 이덕무 박제가와 함께 <무예도보통지> 편찬에 참여하였다. 영숙(永叔)은 그의 자이다.

64) 김은정(조예정 그림, 2010), 『눈으로 보는 한국 고전 6-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외』, 교원 올스토리

다음은 초등학교 『국어 5-1 가』<sup>65)</sup>에 실려 있는 하오체·하계체를 사용하고 있는 제재들이다. 전체적인 맥락을 알 수 있는 제재들로는 1단원의 고전 소설 <옹고집전><sup>66)</sup>이 있다. <옹고집전>에는 여러 등장인물들이 다양한 화계를 사용하고 있다. 주요 등장인물인 옹고집이 자신의 아내, 어머니, 할미 종, 사또, 노인 등에게 사용하는 화계가 다르고 옹고집 외의 등장인물들도 서로 이야기 할 때의 화계가 달라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청자높임법의 여러 화계의 사용 맥락을 익힐 수 있다. 하오체의 사용은 옹고집이 어머니에게, 할미 종이 스님에게 말하는 장면에서 보인다.

(옹고집이 아내에게)-해체

약 지을 돈이 어디 있고? 해마다 이맘때면 치르는 몸살이니 저절로 낫겠지.  
무슨 쓸데없는 소릴.... 닭 한 마리에 나을 병이라면 그냥 낫지 않겠어!

(옹고집이 어머니에게)-하오체

제발 이러지 좀 마시오. 누가 뭐랬다고 야단이오? 나 원 참.

(옹고집이 할미 종에게)-해라체

중이 왔지 왔느냐? 여봐라, 게 아무도 없느냐? 다들 뭇들 하는 것이냐?  
저놈을 잡아 냉큼 이리로 끌고 오너라!

(옹고집이 사또에게)-합쇼체

사또, 저는 조상 대대로 웅당촌에 사옵는데 천만뜻밖에도 저와 똑같이 생긴 놈이 태연히 들어와서 저희 집을 자기 집이라, 저희 가족을 자기 가족이라 하니, 세상에 이런 변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슬기로우신 사또께서 엄히 다스려 밝히 가려 주옵소서.

(할미 종이 스님에게)-하오체

스님, 스님, 아직 소문도 못 들었소? 경치지 않으려면 어서 돌아가시오. 우리 췌수에게 들키는 날엔 동냥은 고사하고 봉변당하고 갈 터이니 어서 바빠 돌아가소.

여러 등장인물들이 각각의 관계와 상황에 따라 하오체·하계체를 포함해 해체와 합쇼체까지 다양한 화계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65) 국정도서국어편찬위원회(2015), 국어 5-1 가, 국어 5-1 나, (주) 미래엔.

66) 이지원 엮음, 이강 그림(2004), 옹고집전-우리나라 대표 고전 소설, (주) 계림닷컴.

어린 모어 화자도 화제사용의 넘나듦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3.2.1.3 하오체·하계체 텍스트에 실려 전해지는 전통 문화 요소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본문 안에 있는 하오체·하계체 텍스트에는 한국의 전통 문화와 관련된 어휘들이 자주 등장한다. 예를 들면 1학년 2학기 『국어 1-2 나』〈소금을 만드는 땃돌〉과 『국어활동 1-2』〈냄새 맡은 값〉은 전래 동화인데 〈소금을 만드는 땃돌〉에는 ‘임금님’ ‘백성’ ‘땃돌’ ‘궁궐’이 〈냄새 맡은 값〉에는 ‘(구두쇠) 영감’ ‘(쇠)서방’ ‘국밥’ ‘국밥집’ ‘엽전’ 등의 어휘를 찾아볼 수 있고 삽화를 통해 ‘장터의 분위기’와 ‘국밥집의 모습’, 일반 ‘백성과 임금님의 옷차림’ 등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전래 동화가 아니어도 전통 문화와 관련 있는 소재와 주제를 사용한 텍스트가 교과서에 수록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국어활동 4-2 가』의 〈덜덜 이와 비단주름과 큰손발이〉는 창작 동화로 과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 등장 인물로 ‘임금’, ‘대신’들이 나온다. 여기에서 임금이 대신들에게 하오체를 사용하여 대화하고 있다.

이 외에도 〈옹고집전〉에는 ‘선비’ ‘종(하인)’ ‘사또’ 〈글만 읽는 가난한 양반〉에는 ‘양반’ ‘아궁이’ ‘고을’ ‘쌀독’ ‘벼슬’ 〈저승에 있는 곳간〉에서는 ‘소인’ ‘벧짚’ ‘주막’ ‘나졸’ ‘달구지’ ‘석(단위)’ ‘곡절’과 같은 어휘와 함께 내용에 걸맞은 삽화가 있어 전통 문화의 한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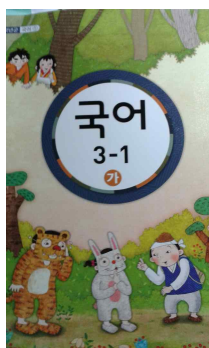
이것은 국민의 기본 교육 과정에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고령이 되어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어 교육을 통하여 학습자는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으며 국어 문화를 학습하여 사고력과 창의력을 신장시키고 민족 공동체적 이념이나 정체성 등 관념 문화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게 된다. 즉 국어 교육은 문화 교육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님으로써 교육적 의의를 확장한다(윤여탁 2013:23).

초등학교 교육에서 전통 문화 요소를 강하게 갖는 옛이야기나 전통 문화를 시각화하여 인상적으로 기억하게 하는 삽화는 그것이 포함된 단원의 목표와는 별도로 한국인들로 하여금 무의식중에 ‘수직적 맥락(박인기,2002)’의 전통을 잇게 되는 문화적 문식성을 체화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국어 3-1 가』의 <토끼의 재판>에는 삽화를 통해 이야기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전통 문화를 상징하는 그림이 있다.

[그림 5] 『국어 3-1 가』 <토끼의 재판> 삽화



그리고 이 단원의 내용을 교과서의 표지 그림으로도 사용하여 국어교육의 목표 중 하나가 전통 문화의 전승임을 학생들에게 강하게 심어주고 있다. 또한 교과서 부록으로 각 등장인물들의 가면에 사용할 수 있는 그림이 딸려있는데 학습 후 ‘연극’을 위한 무대 장치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연극의 대사를 통해 하오체·하계체를 포함한 여러 화계를 발화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각 화계별 사용 맥락을 익히게 된다. 이것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습득한 한국어 상대높임법의 용법을 연극을 통해 전체 맥락 속에서 직접 발화해볼 기회를 가진다는 의미가 있다.

### 3.2.2 지시문

교과서의 지시문을 살펴보는 이유는 하오체 지시문이 국어 교과서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용 여러 교과서와 학습용 참고서에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이 논문의 자료인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지시문을 보면 ‘-ㅂ시다’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ㅂ시다’는 하오체의 청유형 어미인데, 지시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유일한 하오체이다. 그러나 모든 교과목의 매 단위마다 언제나 사용한다는 점에서 문식성 측면에서 보면 그 사용법

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ㅂ시다’는 대부분의 문법서에서 청유형을 수행하는 종결어미 중에서 격식체의 예사높임 ‘하오체’로 분류하고 있다. 전형적인 청유 기능을 수행하는 조건은 격식적인 상황에서 화자와 청자가 친분이 없으며, 청자가 화자보다 아랫사람이거나 동년배일 경우이다.

그런데 하오체의 청유형인 ‘-ㅂ시다’는 청유 기능 수행이 일어나는 조건과 같은 조건에서 명령 화행을 수행하는 기능도 있다(나은미, 2002). 즉, 교과서의 지시문은 학교 수업이라는 격식적인 상황에서 힘의 우위에 있는 교사 또는 교과서의 집필진이 교과서를 사용하는 불특정 학생들을 상대로 단원 목표를 서술하거나 각 제재의 도입할 때에 쓰이므로 명령 화행을 겸한다고 볼 수 있다.

하오체 지시문은 국어 과목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전 학년 모든 교과서에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국어 교과서 『국어 1-2 가』<sup>67)</sup> 1단원의 지시문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소개해 봅시다.  
그림을 보고 친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해 봅시다.  
주인공 이름 말하기 놀이를 해 봅시다.

이 외에도 2학년 1학기 『국어 2-1 나』 7단원의 지시문은 다음과 같다.

글쓴이의 생각을 찾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글을 읽고 글쓴이의 생각을 알아봅시다.

이와 같은 예는 다른 교과목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수학 교과서<sup>68)</sup>의 지시문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그런데 수학 과목은 청유형 ‘-ㅂ시다’ 외에 수학 문제를 풀게 할 때의 지시문으로 명령형 ‘-오’도 함께 사용하고 있어 실제 사용례는 더 많다.

67) 교육부(2017), 『초등학교 국어 1-2 가』, (주) 미래엔

68) 국정도서수학편찬위원회(2013), 『초등학교 수학 1-1』, (주) 천재교육

물건의 수를 세어 봅시다.  
붙임 딱지를 붙여 보시오. 7을 두 수로 갈라 보시오.  
두 수를 모아 보시오.  
오리는 모두 몇 마리인지 알아보시오.  
덧셈을 하고 덧셈 식을 읽어 보시오.  
각각 몇 개인지 써 보시오.

또한 국정 교과서 도덕 과목에서도 교과서에 하오체 지시문을 사용하고 있다. 4학년 『도덕 4』 2단원 ‘함께하는 인터넷 세상’의 지시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인터넷 예절이 중요한 이유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봅시다.  
세아와 민우의 대화를 보며 인터넷 예절에 대해 알아봅시다.  
아름다운 댓글이 전하는 사랑과 희망의 이야기를 읽어 봅시다.

하오체 지시문 사용은 국정 교과서인 국어, 수학, 사회, 과학<sup>69)</sup>, 도덕 외에 검정 교과서에서도 그 사용은 동일하게 나타난다. 역시 그 예가 너무 많으므로 여기서는 음악 교과서인 『초등학교 3-4 음악』(두산동아)의 사례만 제시한다.

장단의 세를 살려 장구를 쳐 봅시다.  
자진모리 장단에 맞추어 흥겹게 노래를 불러 봅시다.  
노래에 어울리는 장단꼴을 만들어 봅시다.

교과서의 지시문이 하오체이므로 학생들이 사용하는 참고서에도 지시문이 하오체로 되어있다. 3학년 2학기 국어 자습서 『백점 맞는 국어 3-2』(동아출판)의 4단원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글로 간단히 적는 경우를 알아봅시다.  
박두성이 만든 한글 점자의 이름을 찾아 쓰시오.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 선으로 이으시오.

69) 과학 교과서의 『실험 관찰』 과목에서는 ‘-하십시오’와 함께 단원 도입에서 해요체의 의문형 ‘-요’를 사용한 어미 ‘-니까요’도 사용하기도 한다.

위에서 살펴본 예를 통해서 모어 화자들은 일찍이 초등학교 교과서와 참고서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지시문을 통해 하오체의 청유형과 명령형에 매우 자연스럽게도 확실하게 익숙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2.3 삽화의 말풍선

국어 교과서에는 많은 삽화가 있는데, 삽화 중에는 말풍선을 넣어 대화 형태를 보여주는 것도 있다.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의 삽화 가운데에 하오체·하게체를 사용한 말풍선이 있는 것이 모두 3개였다. 삽화 말풍선은 사례로 보면 지시문이나 본문 텍스트에 비해 매우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삽화 말풍선을 다루려는 이유는 그림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학생들에게 실감나게 각인되는 강점이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삽화와 말풍선을 통해 보다 직접적으로 문화적 문식성을 전달하는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삽화의 말풍선으로 하게체를 사용한 것은 『국어 3-1 나』, 『국어활동 5-2』에 하오체를 사용한 것은 『국어 5-1 가』에 나온다.

먼저, 삽화의 말풍선이 하게체로 된 텍스트는 『국어 3-1 나』의 ‘6단원 알맞게 소개해요’에 나온다. 이 단원에서는 <사이좋은 친구>를 들어보는 활동이 있는데 다음의 사진과 같이 “김 서방이 무엇을 설명하는지 생각하며 ‘사이좋은 친구’를 들어봅시다.”라며 삽화가 제시되어 있다. ‘이 서방, 김 서방’은 삽화 속의 등장인물임을 쉽게 알 수 있고, 이들은 서로 하게체를 사용하고 있다. 이 말풍선의 텍스트는 아래와 같다.

(이 서방이 넘어지며 ‘어이쿠’한다.)

김 서방: 이 서방, 조심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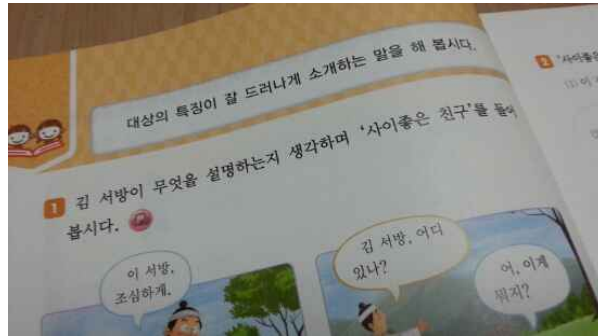
이 서방: 김 서방, 어디 있나?

김 서방: 어 이게 뭐지? 여기에 무엇이 있네.

이 서방: 김 서방, 그게 뭔가?

김 서방: 이 서방, 잘 들어 보게.

[그림 6] 하계체를 사용한 삽화 1



그리고 듣기 활동 후에 다음의 사진과 같이 “김 서방이 대상을 어떻게 소개하였는지 정리하여 봅시다.”라며 또 다른 삽화가 제시되어 있다. 삽화를 봄으로써 ‘이 서방, 김 서방’은 삽화 속의 등장인물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등장인물들은 서로 하계체를 사용하고 있다. 이 부분의 말풍선 텍스트는 아래와 같다.

이것은 둥글고 가운데에 구멍이 있다네.  
 이것으로 우리 아이들을 배불리 먹일 곡식을 살 수 있다네.  
 이것은 째랑째랑 소리가 난다네.

[그림 7] 하계체를 사용한 삽화 2



이 같은 하계체 사용례를 서로 ‘서방’이라고 부르는 신분, 연령 등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하계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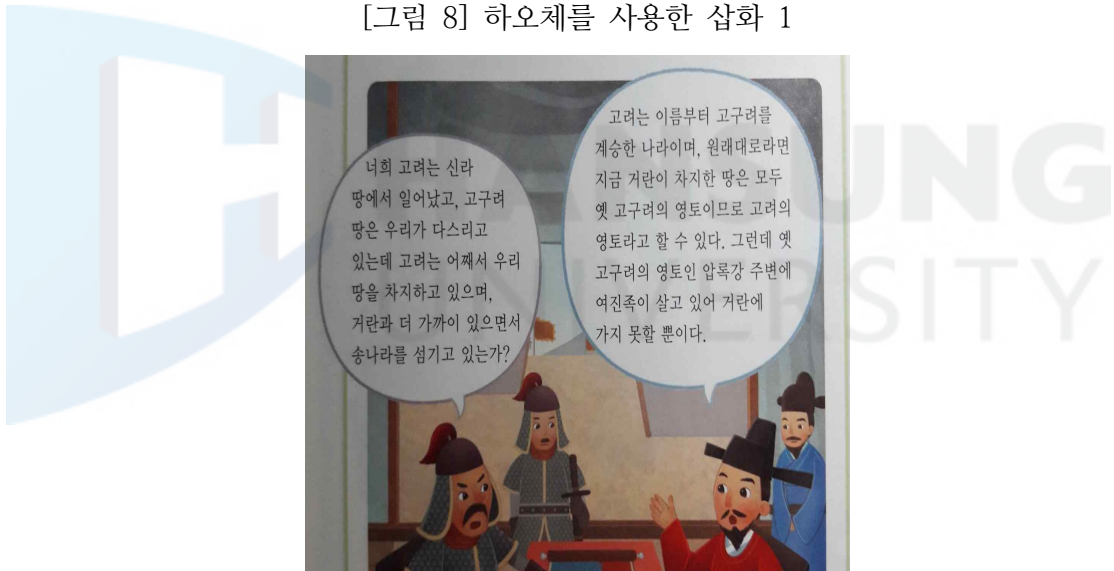
다음으로 초등학교 5학년의 『국어활동 5-2 나』에 나오는 ‘서희의 담판’

과 관련된 삽화를 보기로 한다. 등장인물은 고려의 서희와 거란의 소손녕 장수이며 그림은 이들의 협상 장면이다. 서희와 소손녕의 대화가 말풍선으로 표현되어 있고 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소손녕: 너희 고려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우리가 다스리고 있는데 고려는 어째서 우리 땅을 차지하고 있으며, 거란과 더 가까이 있으면서 송나라를 섬기고 있는가?

서희: 고려는 이름부터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며, 원래대로라면 지금 거란이 차지한 땅은 모두 옛 고구려의 영토이므로 고려의 영토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옛 고구려의 영토인 압록강 주변에 여진족이 살고 있어 거란에 가지 못할 뿐이다.

[그림 8] 하오체를 사용한 삽화 1



이 텍스트에서는 거란의 장수 소손녕은 하계체를 사용하고 있으며 고려의 재상 서희는 소손녕에게 해라체<sup>70)</sup>를 사용하고 있다.

다음에 분석할 자료는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국어 5-1 가』이다. 이 자료는 앞의 두 자료가 ‘하계체’였던 것과 달리 ‘하오체’로 되어 있다. 2단원

70) 서희(942-998)가 소손녕에 대해 ‘해라체’를 사용하여 말하고 있다. ‘서희의 답판’으로 알려진 서희와 소손녕과의 협상은 고려 성종 12년(993년)의 일이다. 이 때 서희의 나이는 52세이었으며 소손녕은 생물 연대가 알려져 있지 않아 어느 정도의 연령대인지 알 수 없으나 983년에 요나라의 월국공주와 결혼했다는 사실로부터 서희보다는 나이가 어린 것으로 짐작된다.

‘토의의 절차와 방법’에 나온다. 단원 도입 그림으로 임금과 신하들이 대화하는 장면이 있다. 말풍선의 하오체는 임금이 신하들에게 하는 말이며 텍스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말풍선에 문화적 문식성을 나타내는 어휘로 ‘백성’이 등장한다. 삽화의 그림으로부터 ‘임금’ ‘신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임금: 요즈음 비가 오지 않아 **백성**의 걱정이 많다 **하오**.

신하 1: 네. 비가 오지 않을 때에도 **백성**이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림 9] 하오체를 사용한 삽화 2



이 말풍선 텍스트는 임금은 절대 왕정시대 지존의 인물이지만 신하를 향해 반말을 사용하지 않고 상대를 대우하는 표현인 ‘하오체’를 사용하여 상대를 대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삽화 말풍선의 하오체·하계체 사용 맥락을 정리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7] 초등 국어교과서 삽화 속의 하오체·하계체 화·청자 맥락 정보

번호	삽화 수록 교과서	화자와 청자의 신분	등장인물의 관계	화계	호칭
1	국어 3-1나	평민	친구	하계체	(김)서방
2	국어활동 5-2나	나라의 대표	장군과 외교 관료	하계체	-
3	국어 5-1	왕과 대신	임금과 신하	하오체	-



교과서의 삽화는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넣는 그림’을 말하는데, 교과서 속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초·중등학교의 모든 교과서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학습자가 교과서에 수록된 제재의 내용을 의미 구성하는 과정에서 삽화의 영향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대개 국어 교과서의 삽화는 독자인 학생들이 제재의 의미 구성에 관여한다.

그리고 교과서 속의 제재는 그 성격상 학습자들이 단 한번만 읽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체로 시차를 두고 여러 번 읽게 된다. 교사가 부여한 과제 수행을 위해 읽기도 하며, 학습 평가에 대비하려고 다시 읽기도 한다. 이런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삽화를 먼저 본 후에 글을 읽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이든, 학습자들은 글과 삽화의 상호중재 과정을 통해서 더욱 심화된 새로운 의미를 구성해 나가게 된다(박준용, 2014).

그러므로 이러한 삽화에 시대적으로 과거를 나타내고 신분을 보여주는 복장의 등장인물들이 말풍선 속에서 하오체·하계체를 사용하는 것은 학습자들에게 상당한 시각적 영향을 주면서 하오체·하계체의 사용 맥락을 강하게 각인시키는 효과적인 장치가 될 수 있다. 삽화 말풍선 사례가 적다고 의미까지 적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적은 사례의 삽화 말풍선은 하오체·하계체가 이미 전통 문화적 맥락을 보여주는데 얼마나 일반적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 준다.

### 3.3 중등 국어 교과서 수록 하오체 하계체 텍스트

한국은 초등학교 6년에 이어 중학교 3년도 의무교육과정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한국인 모어 화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국가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한다.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국어 교과서는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국정 교과서로 단일 교과서이다. 이에 비해 중학교의 국어 교과서는 국가 단위로 설계된 교육과정에 따라 민간이 개발 제작하여 교육부 장관의 검정을 받는 교과용 도서이다. 따라서 출판사와 저자에 따라 다양한 교과서가 나와 있으며 이 중에서 각 중학교별로 교과서를 선정하여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2009년 교육과정 체제로 제작된 검정 중학 국어교과서 14종을 대상으로 하오체·하계체가 사용된 텍스트를 분석했다. 2009년 교육과정

의 중등 검정 국어 교과서는 교학사, 동아, 미래엔, 비상, 신사고, 지학사, 창비, 천재교육의 8개 출판사에서 14종이 제작되었으며, 학년별 1학기과 2학기 각 2권씩으로 총 3개 학년 각 6권씩 모두 84권이다.<sup>71)</sup>

이들 교과서에 수록된 하오체·하계체가 포함되어 있는 텍스트는 앞에서 살펴본 초등학교 국어교과서와 같이 ‘본문 제재’, ‘지시문’과 ‘삽화의 말풍선’이다. 여기에서도 1) 본문 제재 2) 지시문 3) 삽화의 말풍선 순으로 각 텍스트의 특징과 사용 맥락에 대해 살펴보겠다.

그런데 초등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는 하오체·하계체 사용 텍스트의 수가 45 개인데 비해 중등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하오체·하계체 사용 텍스트의 수는 256 개에 달하고 글의 갈래도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중등 국어 교과서의 본문 제재에 대한 분석에서는 서술 방법을 달리하였다. 즉 화계의 분포, 글의 갈래는 초등 국어 교과서에서 분석한 것과 같은 기준으로 했다. 그리고 텍스트의 길이, 시간 배경, 출판 년대 등은 갈래별로 분류한 후에 개괄적인 특징으로 서술하겠다.

### 3.3.1 본문 제재

중학교 국어 교과서 84권의 가운데 하오체·하계체가 수록된 텍스트를 모두 찾아 정리한 결과를 하오체·하계체 텍스트 빈도수가 많은 차례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하오체·하계체가 가장 많은 교과서는 동아\_이삼형 30편, 교학사\_남미영 26편, 천재교육\_김종철 25편, 지학사\_방민호 25편, 동아\_전경원 21편, 창비\_이도영 20편, 비상 김태철 19편, 천재교육\_노미숙 17편, 비상\_이관규 15편, 미래엔\_윤여탁 13편, 비상\_한철우 12편, 신사고\_우한용 12편, 천재교육\_박영목 11편, 신사고\_민현식 10편이다.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8] 중등 국어교과서 수록 하오체·하계체 텍스트 수

번호	교과서(출판사_대표저자)	텍스트 편수
1	동아_이삼형	30

71) 중등학교의 국어 교과서는 같은 출판사에서도 여러 종이 나오기도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출판사에 대표 저자를 함께 표시하기로 한다.

2	교학사_남미영	26
3	천재교육_김종철	25
4	지학사_방민호	25
5	동아_전경원	21
6	창비_이도영	20
7	비상_김태철	19
8	천재교육_노미숙	17
9	비상_이관규	15
10	미래엔_윤여탁	13
11	비상_한철우	12
12	신사고_우한용	12
13	천재교육_박영목	11
14	신사고_민현식	10
합계		256

이 표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중등교육에 사용하고 있는 하오체 하계체 수록 텍스트의 수가 많다는 것이다. 물론 1개 학년으로만 본다면 초등 고학년의 10여개와 비슷하거나(동사\_이삼형) 그에 미치지 못하지만(신사고\_민현식)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와는 달리 다양한 갈래의 제재가 사용되고 있으며 전체 중학생이 사용하는 텍스트의 양으로 본다면 14종의 교과서에 사용되고 있는 하오체·하계체 텍스트는 매우 많다. 그러므로 먼저 전체 본문 제재에 사용되고 있는 하오체·하계체 수록 텍스트를 전체적으로 개관하고 갈래별로 분류한 후에 사용 맥락, 시간 배경 등은 갈래별 텍스트의 특징으로 설명하겠다.

### 3.3.1.1 개관

중학교 국어 교과서는 모두 김정교과서이며 8개 출판사에서 14종으로 출판되고 있다. 3개 학년 각 1, 2학기를 합하면 모두 84권이다. 84권의 국어 교과서를 각 단원별로 모든 제재를 살펴 하오체·하계체가 사용된 텍스트를 정리한 결과 중복 텍스트를 포함해서 모두 256 개였다.

[표 9] 교과서별 수록된 하오체·하계체 포함 텍스트 목록(중복 포함)

학 년	구 분	출판사	제재명	높임법	갯수
1 학 년	1	동아_이삼형	밀양 아리랑	하오체	6
			아빠의 선생님이 오시는 날	하계체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sup>72)</sup>	하오체	
			20년 후	하오체, 하계체	
			홍길동전	하계체	
			꽃 피는 봄이 오면	하오체	
		천재_김종철	오솔길	하오체	3
			요약, 어디까지 해 봤니	하오체	
			개 기르지 맙시다	하오체	
		교학사_남미영	아기 장수 우뚜리	하계체	3
			반지의 제왕, 피터 잭슨(감독)	하오체, 하계체	
			기로국 이야기	하오체	
		지학사_방민호	무지개	하오체	2
			설화 속의 호랑이	하오체	
		동아_전경원	꽃	하오체	2
			설화 속의 호랑이	하오체	
		비상_김태철	소별왕대별왕	하오체	1
		천재_노미숙	밀양 아리랑	하오체	4
			모모	하계체	
			모든 백성이 잘 살 수 있는 비결	하오체	
			셜록 홈스와 존 왓슨의 이야기	하계체	
		비상_이관규	동명왕신화	하오체, 하계체	1
		미래엔_윤여탁	가는 길/김소월, 수업 시간/학생	하오체	1
		비상_한철우	아기장수 우뚜리	하오체	2
			자전거 도둑	하오체	
		신사고_우한용	내 마음은	하오체	2
			집으로	하계체	
		신사고_민현식	장기려 박사 일화	하오체	1
		1학년 1학기 소계			
2	동아_이삼형	내 마음	하오체	2	
		심청전	하오체		
	천재교육_김종철	동승	하오체, 하계체	2	
		심청전	하오체		
	교학사_남미영	토끼전	하계체	4	
		호동왕자와 낙랑공주	하오체		
		빌헬름 텔	하오체, 하계체		
		세 얼간이	하오체		

	지학사_방민호	아기 장수 우투리	하오체	1	
	동아_전경원	자전거 도둑	하오체	4	
		홍길동전	하오체		
		지나쳐 간 사람들(1976)	하계체		
		의원의 헛된 욕심(고금청담, 1979)	하오체		
	비상_김태철	원미동 사람들	하오체, 하계체	1	
	천재_노미숙	홍길동전	하오체, 하계체	1	
	비상_이관규	황희 정승 이야기	하오체	1	
	미래엔_윤여탁	홍길동전	하계체	1	
	비상_한철우	코르니유 영감의 비밀(알퐁스도데)	하계체	2	
		방망이 깎던 노인	하오체		
	천재교육_박영목	흰 종이 수업	하오체	1	
	신사고_우한용	혼자 떠나는 걷기 여행	하오체	3	
		아기장수 우투리	하오체		
		방망이 깎던 노인	하오체		
	1학년 2학기 소계				23
	1학년 합계				51

학 년	학 기	출판사	제재명	높임법	갯수
2 학 년	3	동아_이삼형	박찬호 선수에게	하계체	4
			아기 장수 우투리	하오체	
			상록수	하오체	
			독서의 역사 1	하오체	
		천재교육_김종철	사랑 손님과 어머니	하오체	4
			발음의 원리와 규칙	하오체	
			5단원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하오체	
			어휘의 세계	하계체	
		교학사_남미영	사랑손님과 어머니	하계체	4
			20년 후	하계체	
			마음을 움직이는 말 한마디	하오체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	하오체	
		지학사_방민호	심청전	하오체	3
			돌잔치 이야기	하오체	
			축복 받은 성격	하계체	
		동아_전경원	나의 소원	하오체	3

72)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2014)는 잭 캔필드의 저서 『2nd Helping of Chicken Soup for the Soul』 (1995)을 류시화가 번역한 것이다. 1, 2, 3권으로 되어 있다.

		사랑손님과 어머니	하계체	
		목결이	하오체	
	비상_김태철	나의 어린시절	하오체	2
			하계체	
		토끼전	하오체	
			하계체	
	창비_이도영	밀양 아리랑	하오체	2
		사랑손님과 어머니	하계체	
	천재교육_노미숙	일가(공선옥)	하오체	1
	비상_이관규	장기려	하오체	1
	미래엔_윤여탁	내가 그린 히말라야시다 그림	하계체	2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	하오체	
	비상_한철우	일가	하오체	2
		상도	하오체	
	천재교육_박영목	토끼전	하계체	2
		아기장수우투리	하오체	
	신사고_우한용	홍길동	하계체	2
		갈매기의 꿈	하계체	
	신사고_민현식	목결이	하오체	1
2학년 1학기 소계				33
4	동아_이삼형	내가 그린 히말라야시다 그림 <sup>73)</sup>	하계체	5
		하늘을 향해 떠나 버린 화차들 <sup>74)</sup>	하계체	
		종결어미의 진화를 아시나영? <sup>75)</sup>	하오체	
		토끼전	하오체	
			하계체	
		은전 한뼘(피천득)	하오체	
	천재교육_김종철	상록수	하오체	6
		표준 화법, 묻고 답하기	하계체	
		건의합니다.	하계체	
		홍보가	하오체	
			하계체	
		세상을 보는 서로 다른 시각	하계체	
	교학사_남미영	삼국유사(서동과 선화공주)	하오체	3
		홍길동전	하오체	
		메밀꽃 필 무렵	하오체	
			하계체	
	지학사_방민호	홍부가 꿈꾸던 세상	하오체	
			하계체	
		나비	하계체	5

			화가 이중섭	하계채	
			수난 이대	하오채	
			더 늦기 전에	하오채	
			양반전	하계채	
		동아_전경원	YMCA 야구단	하오채	2
			토끼전	하계채	
		비상_김태철	닭 타고가면 되지	하계채	5
			나의 소원	하오채	
			수난 이대	하오채	
			출세기	하오채	
			쓰기 윤리의 중요성	하계채	
		창비_이도영	출세기	하계채	5
			수난 이대	하오채	
			잃어버린 창문	하오채	
			남으로 창을 내겠소	하오채	
			MBC 광복절특집 드라마 '절정'(듣기)	하계채	
		천재_노미숙	꽃신(김용익)	하오채	2
			박씨전	하오채	
		비상_이관규	수난 이대	하오채	3
			직업에 따른 화법	하계채	
			세대에 따른 의사소통	하계채	
		비상_한철우	박씨전	하오채	1
		천재교육_박영목	물 한모금	하오채	1
		신사고_민현식	훈민가	하오채	3
			수난 이대	하오채	
			일곱 안티와 맺글 공주	하오채	
		2학년 2학기소계			41
		2학년 합계			74

학 년	구 분	출판사	제재명	높임법	갯수
3 학 년	5	동아_이삼형	규중의 일곱 벗	하오채	6
			고시(정약용)	하오채	
			원미동 사람들	하오채	
			고향(루쉰)	하계채	

73) 성석제(2007), 『라일락 피면』(창작과 비평사)에 수록된 단편 소설

74) 노동효의 여행 칼럼. 한겨레, 2008. 10. 1일자.

75) 김철현 기자의 기사. 아시아경제. 2009. 11. 17일자 .



			운수 좋은 날	하계채	
			오아시스 세탁소 습격 사건	하오채	
		천재교육_김종철	수난 이대	하오채	6
			서희의 협상	하오채	
			하계채	하계채	
			상황에 맞는 말	하계채	
			가난한 사랑 노래	하오채	
			하계채	하계채	
			YMCA야구단(2002년)	하오채	
			하계채	하계채	
			홍길동전	하오채	
		교학사_남미영	수난 이대	하오채	9
			새야 새야 파랑새야	하오채, 하계채	
			광복군 아리랑	하오채, 하계채	
			한글이 만든 세상	하오채	
			하계채	하계채	
			선인들의 말 문화	하오채	
			하계채	하계채	
			닭 타고 가지	하계채	
			화왕계	하계채	
			화왕계 창작 배경	하오채	
			하계채	하계채	
			선생님의 밥그릇	하계채	
		지학사_방민호	운수 좋은 날	하오채, 하계채	6
			웰컴투 동막골	하오채	
			YMCA야구단	하오채	
			안네의 일기	하오채	
			닭 타고 가지	하계채	
			운영전	하계채	
			박씨전	하오채	4
		동아_전경원	소에 미친 화가 이중섭	하오채	
			뉴턴과 슈바이처	하계채	
			결혼	하계채	
		비상_김태철	간송 전형필	하오채, 하계채	3
			성균관스캔들	하오채	
			사랑하는 여보, 초혜!	하오채	

		창비_이도영	기다리는 마음	하오체	7
			이른 봄	하오체	
			원미동 사람들	하오체	
				하계체	
			옛 편지에 나타난 높임 표현	하오체	
			안중근 의사 자서전	하오체	
			협상과 주장	하오체	
		천재교육_노미숙	베이커 가의 설록 홈즈	하계체	3
			공작 나방(헤르만헤세)	하계체	
			선생님의 밥그릇(이청준)	하계체	
		비상_이관규	방망이 깎던 노인(윤오영)	하오체	5
			양반전	하오체	
			대왕 세종(KBS)	하오체	
			농가월령가(5월, 8월령)	하오체(하소)	
			농가월령가(정월, 7월령)	하오체(하소)	
		미래엔_윤여탁	백범일지	하오체	6
			운수 좋은 날	하오체	
			박씨전	하오체	
			남한산성	하오체	
			서희, 협상을 말하다	하오체	
				하계체	
		비상_한철우	올림이 있는 말	하계체	3
			황희 정승 이야기	하오체	
			카멜레온(안톤 체호프)	하오체,	
				하계체	
		천재교육_박영목	훈민가	하오체	6
			최척전	하오체	
				하계체	
			나의 진리 실험 이야기	하오체	
			안중근	하오체	
			양반전	하오체	
			운수 좋은 날	하오체	
		신사고_우한용		하계체	2
			방망이 깎는 노인	하오체,	
				하계체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	하오체	
		신사고_우한용	토끼전	하오체	2
				하계체	
		신사고_우한용	화수분	하오체	2
				하계체	

	신사고_민현식	운수 좋은 날	하오체 하계체	3
		서희의 협상 동영상 <sup>76)</sup>	하오체	
		임시 정부의 문기기가 되고 싶소	하오체	
	3학년 1학기 소개			69
	동아_이삼형	역사 속의 문제 해결(서희의 협상)	하오체 하계체	7
		태평한화골계전	하계체	
		사소절-언어 <sup>77)</sup>	하계체	
		고기 한 근	하계체	
		광야에서	하오체	
		오마니별(2008)	하오체	
		방망이 깎던 노인	하오체	
	천재교육_김종철	청년 의사 장기려(2008)	하오체 하계체	4
		백성의 글자를 만들어야하는가	하오체	
		운수좋은날	하오체 하계체	
		양반전	하오체 하계체	
	6 교학사_남미영	운수 좋은 날	하오체, 하계체	3
		양반전	하오체 하계체	
		서희의 협상	하오체	
		목결이	하오체	
	지학사_방민호	느림보 버스	하오체	8
		멀리 간 동무	하오체	
		표구된 휴지	하계체	
		서희의 강동 6주 답판	하오체 하계체	
		소중한 우리 한글	하오체	
		광고의 설득 전략	하오체	
		안중근 자서전	하계체	
		서희의 강동 6주 협상_정호수	하오체	
	동아_전경원	시집가는 날	하오체 하계체	6
		전통적 말 문화의 특징 차계기환	하계체	
		전통적 말 문화의 특징 이생규장전	하오체	
		전통적 말 문화의 특징 흥부가	하오체	

		전통적 말 문화의 특성 하회별신굿	하오체 하계체	
	비상_김태철	이상한 선생님	하계체	7
		춘향전	하오체 하계체	
		서희의 대담한 외교술	하오체 하계체	
		박씨전	하오체	
		돌다리	하오체	
		선조들의 듣기말하기, 문화의 계승	하오체	
		검양의 격률	하오체	
	창비_이도영	꺼삐딴 리	하오체	6
		세종대왕을 만나다	하오체 하계체	
		십청전	하오체	
		답을 빌려 타고 가다	하계체	
		대장금 대본	하오체 하계체	
		토끼전	하오체 하계체	
	천재교육_노미숙	양반전(박지원)	하오체	6
		일성록에서	하오체	
		요로원야화기	하오체	
		운수 좋은 날	하오체 하계체	
		박상길과 박서방의 차이	하계체	
		서희 협상	하오체	
	비상_이관규	목걸이	하오체	4
		한글이 피어나는 자리	하오체 하계체	
		봄봄	하계체	
		협상의 달인, 서희처럼 말하라	하오체	
	미래엔_윤여탁	치숙	하오체	3
		양반전	하오체	
		꽃피는 봄이 오면	하오체	
	비상_한철우	원미동 사람들	하오체 하계체	2
		출세기	하계체	
	천재교육_박영목	전통적 듣기 말하기 문화(예)	하오체, 하계체	1

	신사고_우한용	원미동사람들	하오체	3
		백범일지	하계체	
		황희 정승이야기	하계체	
	신사고_민현식	태평한화골계전	하계체	2
		춘향가 대목 <sup>78)</sup>	하오체	
	3학년 2학기 소계			62
	3학년 합계			131
중학 국어 3개 학년 전체 검정 교과서의 하오체·하계체 텍스트 수(총계)			256	

앞의 표에 나타난 것처럼 84권의 교과서에서 찾은 하오체·하계체가 사용된 텍스트는 3개 학년에 걸쳐 256개가 있었다. 1학년의 경우 1학기에 28개, 1학년 2학기에 23개로 모두 51개였다. 2학년은 1학기에 33개, 2학기에 41개로 모두 74개였다. 마지막으로 3학년의 경우는 1학기에 69개, 2학기에 62개로 모두 131개였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하오체·하계체가 사용된 텍스트의 수가 증가하였고 3학년 교과서에만 전체 하오체·하계체 사용 텍스트의 51%가 수록되어 있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하오체·하계체 수록 텍스트 수가 증가하는 경향은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도 나타났었다.

한편 3개 학년 전체 257개의 텍스트 중에서 하오체·하계체의 비중을 살펴보면 하오체가 247개, 하계체가 154개로 하오체의 비율이 훨씬 높다(중복 포함). 이는 초등 국어 교과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결과는 일상생활 대화에 어느 정도 남아 실제 대화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계체보다 ‘하오체’를 ‘글(텍스트)’ 속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하오체가 ‘문화적 문식성’을 더 크게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 3.3.1.2 글의 갈래별 분류

여기에서는 위에서 개관한 중학 국어 교과서 본문 제재의 하오체·하계체 수록 텍스트를 종류별로 분류하여 특징들을 찾아보고 예문을 실어 자세한 내

76) 드라마 ‘천추태후’ 27화(2009년 KBS2 방영).

77) 『조선 지식인의 말하기 노트(2007)』.

78) 장미영 외, 『현대화 사설본 춘향가』, 민속원 2005.

용을 살펴보겠다. 중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는 하오체·하계체가 포함된 텍스트는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와 비교하면 훨씬 다양한 갈래의 텍스트를 수록하고 있다. 또한 중학교 교과서 14종에 실려 있어 그 수도 매우 많다. 텍스트 종류에 따른 하오체·하계체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상 글의 갈래별로 나누어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글의 갈래를 나눈 기준은 우선 문학과 비문학과 문학은 다시 장르별로 나누었다. 비문학은 글의 갈래가 다양하여 편의상 크게 7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표 10] 글의 갈래별 하오체·하계체 제재의 수와 제시빈도

글의 갈래			제재 수	제시 빈도
문 학	시	1) 현대시	10	15
		2) 고전 시가	3	4
	소설	3) 현대소설	38	71
		4) 설화	4	11
		5) 고소설	8	37
	수필	6) 수필	16	27
	희곡	7) 희곡	16	19
비 문 학	8) 위인전류		13	13
	9) 자서전		6	8
	10) 역사물		2	3
	11) 언어문화 관련 글		15	15
	12) 만화		15	15
	13) 노래가사		5	7
	14) 기타		11	11
총 계			162	256

위의 표에서와 같이 문학의 경우는 4대 장르로 분류하여 시, 소설, 수필, 희곡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시는 다시 시기별로 현대시와 고전시가로 구분했다. 고시조와 서사시는 그 수가 많지 않아 편의상 고전시가로 분류했다. 소설 역시 시기를 구분하여 현대소설과 고소설로 했고 설화도 전승된 이야기가 기록으로 정착된 경우이므로 소설에 포함시켰다. 희곡에는 영화 제작을 목적으로 시나리오와 드라마 제작을 위한 대본도 함께 넣었다.

비문학의 경우에는 하오체·하계체가 포함된 제재를 선별하여 임의로 역사적 인물들에 대한 글은 위인전류라고 분류했고 역사물, 언어문화 관련 글 등은 교과서에 수록된 글의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임의로 구분했다. 뒤에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설명하려고 한다.

위의 표에서 보다시피 고시조와 설화, 고소설, 과거의 인물과 역사적인 내용을 소재로 한 글 등 과거를 시간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어 하오체·하계체가 쓰이는 것이 당연시되는 글에서부터 시나리오, 만화, 노래 가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텍스트에 하오체·하계체가 쓰인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에는 위의 표에 제시한 글의 갈래별 순서대로 하오체·하계체가 포함된 텍스트를 조사한 것을 설명하겠다.

1) 시를 살펴보면 <내 마음은>이 3종류의 교과서에 실려 있고, 그 다음은 <진달래꽃><sup>79)</sup>과 <가난한 사랑 노래>, <꽃>이 각각 2종류의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다. <오솔길>, <농가월령가>, <이른 봄>, <남으로 창을 내겠소>, <기다리는 마음>이 각각 한 종의 교과서에 실려 있다.

[표 11] 중학교 교과서 하오체·하계체의 텍스트 목록-시

번호	제재명	화계	제시 빈도
1	내 마음은(김동명)	하오체	3
2	꽃(김춘수)	하오체	2
3	진달래꽃(김소월)	하오체	2
4	가난한 사랑 노래(신경림)	하오체, 하계체	2
5	오솔길(최승호)	하오체	1
6	농가월령가(정학유)	하오체	1
7	이른 봄(천상병)	하오체	1
8	남으로 창을 내겠소(김상용)	하오체	1
9	기다리는 마음(김민부)	하오체	1
10	수업 시간(‘가는 길’ 패러디 학생 작)	하오체	1

<내 마음은>을 비롯하여 위 목록에 제시된 모든 시에서 시적 화자가 하오체를 사용하고 있다. <이른 봄>, <꽃>, <오솔길>에는 하오체가 사용된 구절이

79) ‘말 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의 ‘-리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 ‘하오할 자리에 쓰여 상황에 대한 화자의 추측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설명되어 있어 하오체로 보았다.



각 1행씩이었다.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꽃>

누구시오? <오솔길>

이 지상의 잔치를 베풀어 다오. <이른 봄>

위의 예와 같이 단 1행의 하오체 사용으로도 시적 분위기를 부여할 수 있다. 모어 화자들은 시에서 어떤 화계를 선택하였는가에 따라 시적 분위기를 다르게 느끼기 때문이다. 시에서의 하오체 사용은 시적인 고아함 등을 느끼게 하는 전형적인 장치이다. 이 역시 모어 화자들이 하오체에 대해 가지고 있는 문화적 문식성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하오체·하계체가 반복적으로 사용된 예이다. 먼저 하오체가 반복적으로 사용된 예는 <내 마음은>, <농가월령가>이다. 아래의 예는 <내 마음은>에 하오체가 반복적으로 사용된 것을 보여준다.

내 마음은 호수요.  
그때 노 저어 오오.  
나는 그대의 흰 그림자를 안고,  
옥같이 그때의 뱃전에 부서지리다.

내 마음은 춧불이오.  
그때 저 문을 닫어주오.  
나는 그때의 비단 옷자락에 떨어져,  
최후의 한 방울도 남김없이 타오리다.

내 마음은 나그네요.  
그때 피리를 불어 주오.  
나는 달 아래 귀를 기울이며, 호젓이  
나의 밤을 새이오리다.

내 마음은 낙엽이요.

잠깐 그대의 뜰에 머무르게 하오.  
이제 바람이 일면 나는 또 나그네 같이 외로이  
그대를 떠나오리다.

이 시에서는 하오체의 반복과 함께 ‘그대’라는 대명사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하오체가 갖는 고아한 느낌의 분위기를 더욱 배가시킨다.

이번에는 <가난한 사랑 노래>에서 시구의 종결형에 모두 하계체를 사용하고 있는 예를 보겠다. 이 시는 부제가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해’이다. 부제를 통해 시적 청자를 알 수 있다.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두 점을 치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소리 메밀묵 사려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되해보지만  
집 뒤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 바람소리도 그려보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내 볼에 와 닿던 네 입술의 뜨거움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네 숨결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던 네 울음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가난한 사랑 노래>에서는 시적 화자가 ‘이웃의 한 젊은이’라는 시적 청자에게 하계체 종결형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 시적 화자와 청자 모두 하계체를 사용하는 관계로 설정함으로써 시적 화자가 ‘젊은이’인 청자보다는 연령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이웃’이라는 서로의 관계 등 맥락 정보가

시적 분위기로 이어지게 한다. 한편 단 한 군데에 하오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화계의 변화로 어머니라는 말하는 대상이 달라짐을 쉽게 알 수 있게 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것들은 모어 화자들이 하오체·하계체의 사용 맥락, 즉 ‘화·청자 관계의 전형성’을 문화적 문식성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특히 현대시에 사용된 하오체는 시적 ‘우아미’와 시적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규범적 사용 장치’로 기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고전 시가 속에 사용된 하오체·하계체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2] 중학교 교과서 하오체 텍스트 목록-고전시가

번호	제재명	화계	제시 빈도
1	훈민가(정철, 시조)	하오체	2
2	정약용 고시	하오체	1
3	동명왕 신화(이규보, 서사시)	하오체	1

〈훈민가〉에서는 시적 화자인 정철이 늙은이에게, 〈고시(古詩)〉에서 정약용은 특정하지 않은 시적 청자에게 하오체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동명왕 신화〉는 서사시로서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하백이 ‘딸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천제의 아들’이라는 힘의 우위를 고려하여, 자신의 딸과 혼인을 하려는 해모수에게 하오체를 사용하고 있다. 〈동명왕 신화〉의 송양왕과 주몽 역시 하오체를 사용하고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현대시와 고전시가에서는 모두 하오체를 사용하고 있다. 교과서 속의 텍스트 수로 보면 고전시가보다 현대시에 더 많은 제재와 빈도수로 하오체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전시가에 하오체가 사용되는 것은 ‘과거’를 나타내는 표지로서 당연히 쓰인 것이다. 이러한 것이 하오체가 갖는 문화적 문식성이다.

3) 다음으로 살펴볼 장르는 현대소설로 중학교 국어 교과서 14종에 실린 하오체·하계체 텍스트 중에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장르이다. 다음의 목록과 같이 모두 35개의 소설이 있다.

여러 교과서에 중복해서 실린 소설로는 총 8종의 교과서에 수록된 현진건의 1924년 작 <운수 좋은 날>이다.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작품은 7종의 교과서에 수록된 하근찬의 1957년 작 <수난 이대>이다. 수록된 작품 중 가장 최근의 것은 손흥규의 2012년 작품 <청년의사 장기려>이다. 다음의 표는 교과서에 수록된 하오체·하계체 사용 현대 소설 목록을 발표년도 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표 13] 중학교 교과서 하오체·하계체 텍스트 목록-현대소설

번호	제재명	발표년도	작가	제시 빈도
1	코르니유 영감의 비밀(외국)	1866	알퐁스 도테	1
2	목걸이(외국)	1884	기드 모파상	4
3	카멜레온(외국)	1884	안톤 체호프	1
4	20년 후(외국)	1906	오 헨리	2
5	나비(외국)	1911	헤르만헤세	3
6	고향(외국)	1921	루신	1
7	운수 좋은 날	1924	현진건	8
8	화수분	1925	전영택	1
9	무지개	1934	장혁주	1
10	봄봄	1935	김유정	1
11	멀리 간 동무	1935	백신애	1
12	상록수	1936	심훈	2
13	메밀꽃 필 무렵	1936	이효석	1
14	치숙	1938	채만식	1
15	돌다리	1943	이태준	1
16	사랑손님과 어머니	1948	주요섭	4
17	이상한 선생님	1949	채만식	1
18	수난 이대	1957	하근찬	7
19	흰 종이 수염	1959	하근찬	1
20	꺼빼탄 리	1962	전광용	1
21	갈매기의 꿈(외국)	1970	리차드 바크	1
22	표구된 휴지	1972	이범선	1
23	모모(외국)	1973	미하엘엔데	1
24	출세기	1974	윤대성	3
25	자전거 도둑	1979	박완서	2

26	물 한 모금	1980	황순원	1
27	원미동 사람들	1986	양귀자	5
28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 돼지 삼 형제(외국)	1989	존셰스가	1
29	상도	2000	최인호	1
30	선생님의 밥그릇	2000	이청준	2
31	아빠의 선생님이 오시는 날	2004	박완서	1
32	소를 줍다	2005	전성태	1
33	꽃신	2005	김용익	1
34	내가 그린 히말라야시다 그림	2007	성석제	2
35	남한산성	2007	김훈	1
36	일가	2007	공선옥	2
37	오마니별	2008	김원일	1
38	청년 의사 장기려	2012	손흥규	1

소설 속 등장인물들이 하오체·하계체를 사용하는 것은 외국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총 35개 작품 가운데 외국 작가의 작품은 모두 7개로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인 알퐁스 도데의 1866년 작 <코르니유 영감의 비밀>로부터 최근 작품으로는 리차드 바크의 1970년 작 <갈매기의 꿈>에 이르기까지 등장인물들이 하오체·하계체를 사용하는 장면을 발견할 수 있다.

국내 작품으로는 28개의 작품이 있었으며 그 가운데 가장 오래 된 작품은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로 1924년에 발표되었다. 년대별로 살펴보면 1920년대의 작품이 2개, 1930년대가 6개, 1940년대, 50년대가 각각 3개, 1960년대 작품은 1개, 1970년대 작품으로는 3개, 1980년대 작품이 2개, 2000년 이후 발표된 작품은 모두 9개 작품이었다. 이런 결과로부터 소설 속 등장인물들이 하오체·하계체를 사용하는 것은 하오체·하계체를 일상 대화에서 많이 사용했던 과거부터 일상생활에서 사용이 많이 줄어든 현대에 이르기까지 소설 작품 속에서 계속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모어 화자들은 하오체·하계체가 사용된 텍스트를 단순히 ‘과거의 작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고 그 화계가 갖는 다양한 의미를 인식하고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작품으로 읽고 있다. 이는 하오체·하계체를 문식성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4) 이번에 살펴볼 장르는 설화이다. 가장 많이 제시되어 있는 설화는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아기장수 우투리>인데 6종의 교과서에 실려 있다. 이어서 <화왕계>와 <서동왕자와 선화공주>가 2종의 교과서에 제시되었고 <소별왕 대별왕>은 1종의 교과서에 실려 있다.

[표 14] 중학교 교과서 하오체 텍스트 목록-설화

번호	제재명	화계	제시 빈도
1	아기장수 우투리(설화)	하오체	6
2	화왕계(설총)	하오체	2
3	서동과 선화공주(삼국유사)	하오체	2
4	소별왕 대별왕(설화)	하오체	1

<아기장수 우투리>에서 부부 사이에 “아이고, 여보, 이것 큰일 났소. 내가 아기를 낳아도 예사 아기를 낳은 게 아니라 영웅을 낳았소.”라며 하오체를 사용한다. 마찬가지로 <서동과 선화공주>, <소별왕 대별왕>에서도 부부 사이에 하오체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화왕계>에서는 신문왕(임금)이 설총(신하)에게 하오체를 사용하고 있다.

설화라는 갈래는 시간적으로 ‘과거’의 텍스트이므로 하오체가 사용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다. 즉, 설화 속에서 시간 배경은 ‘과거’이며 하오체 사용의 화·청자 관계는 부부, 군신 등으로 하오체 사용 맥락의 ‘전형성’을 보여주는 글의 갈래라고 할 수 있다.

5) 중학교 교과서에서 하오체·하계체 대화를 찾아볼 수 있는 고소설은 모두 8개였다. 제시 빈도가 가장 많은 것은 <홍길동>으로 모두 8종의 교과서에 실려 있다. 그 다음이 7종의 교과서에 수록된 <토끼전>과 <양반전>이었으며 6종의 교과서에 실린 <박씨전>이 그 다음 순이었다. 판소리계 소설로는 <심청전>이 4종의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다. <춘향전>과 <홍보가>가 2종의 교과서에 <운영전>이 1종의 교과서에 실려 있다.

[표 15] 중학교 교과서 하오체·하계체 텍스트 목록-고소설

번호	제재명	작가	제시 빈도
1	홍길동	허균	8
2	토끼전	판소리계소설	7
3	양반전	박지원	7
4	박씨전	미상	6
5	심청전	판소리계소설	4
6	춘향전(춘향가)	판소리계소설	2
7	홍보가	판소리계소설	2
8	운영전	미상	1

고소설에 하오체·하계체가 사용된 것 역시 설화에서와 마찬가지로 시간적 배경이 과거이므로 하오체·하계체가 대화 속에 등장하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고소설 속의 등장인물들 사이에서의 사용 맥락은 현대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더욱 범위가 넓은 것이어서 현대의 사용 범위와 비교하기에 적합한 제재이다.<sup>80)</sup>

6) 다음에 제시한 목록은 교과서 속의 하오체·하계체 텍스트 중에 수필로 분류한 것들이다. 부부 사이, 선후배 사이의 편지 등 수필 속의 하오체·하계체 텍스트를 통해 하오체·하계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정민의 <울림이 있는 말>, 안정복<sup>81)</sup> <황희 정승 이야기><sup>82)</sup>와 서거정<sup>83)</sup> <답타고 가지><sup>84)</sup>는 번역(국역)<sup>85)</sup> 작품이고 <안네의 일기>는 번역 작품이다.

한글 고전수필에서 현대 수필에 이르기까지, 피천득 수필가에서 차범근 전 국가대표 축구 감독까지 사용하고 있는 시기에 구애됨이 없이 문학가에서 일

80) 춘향전(김창룡 2016), 열녀춘향수절가라, 춘향전 완판 33장본, 한성대학교출판부)에서 방자가 자신이 모시는 이도령에게 ‘하오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때에 도련님이 방자 불러 이른 말이, “이 곳 경 처 어드메냐?” 방자 놈 여쭙오되, “글 공부 세우는 도련님이 경 처 알아 무엇 하시려오?”, p.27) 이것이 시대에 따른 변천이 있었던 것인지 전라도 지방의 방언의 영향인지는 이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추후에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81) 안정복(1712~1719), 조선 후기의 역사학자, 실학자.

82) 민족문화추진회, 『번역(국역) 순암집 4』, 1996.

83) 서거정(1420~1488), 조선 전기의 문신.

84) 서거정, 『태평한화골계전』, 박경신 역, 국학자료원, 1998.

85) 한국이 모여 화자의 입장에서는 ‘국역’이지만 외국인 학습자에게는 ‘번역’이 된다. 이 논문에서는 이를 구분하기 위해 번역(국역)으로 표기한다.



반인에 이르기까지 일상에서 사용하는 하오체·하계체를 볼 수 있다.

[표 16] 중학교 교과서 하오체·하계체 텍스트 목록-수필

번호	제재명	작가	빈도
1	울림이 있는 말	정민	1
2	황희 정승 이야기	안정복	3
3	규중의 일곱 벗(조선후기)	작자미상	1
4	닭 타고 가지(태평한화골계전)	서거정	6
5	요로원야화기	박두세	1
6	방망이 깎던 노인	윤오영	5
7	사랑하는 여보, 초혜(편지)	조정래	1
8	축복 받은 성격	이시형	1
9	안네의 일기(외국)	안네프랑크	1
10	그놈 참 밍게도 생겼다	최래옥	1
11	박찬호 선수에게(편지)	차범근	1
12	혼자 떠나는 걷기 여행(2006)	김남희	1
13	하늘을 향해 떠나버린 화차들(2008)	노동효	1
14	잃어버린 창문(2008)	김용석	1
15	개 기르지 맙시다(2010)	서민	1
16	은전 한 뿔(1959)	피천득	1

동아\_이삼형 중학 3, 2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에는 전 국가대표 축구 감독 차범근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하던 야구 선수 박찬호 선수에게 쓴 편지가 실려 있다. 이 편지는 신문을 통해 공개되었는데<sup>86)</sup> 전체적으로 하계체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리안 특급이라고 하던가? 그것도 아주 잘생긴 특급 말일세. 올해가 박찬호 군(아직 미혼이니 이렇게 부르고 싶네.)에게 메이저 리그 열두 번째 시즌이니 그 간 객지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어느 기자가 자기들의 삼겹살 파티에 자네가 ‘양질의 고기가 아니면 해롭다.’는 이유로 함께해 주지 않았다고 투덜거리다 나에게 심한 말을 들은 적이 있네. 독일 생활 초기에 죽어라 앞만 보고 훈련하는 나에게 비슷한 이유로 힘담을 하며 힘들게 하였던 기억이 떠올라 순간 화가 났던 것 같네.

86) 2005년 5월 4일 조선일보에 실린 편지글.

나는 그때 박찬호 이 친구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였네. 객지에서 그것도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열 두 시즌을 버틴다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안 니네.  
(하략)

이처럼 대부분의 한국 사람이 모두 아는 유명 축구 감독과 메이저리그 프로야구 선수 사이의 편지글에서도 하계체가 사용된 것은 그만큼 하계체가 모여 화자에게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화계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공개적인 ‘글’에서 하계체를 사용했다는 것은 문식성 차원에서 확실하게 쓰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7) 다음에 제시한 목록은 중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영화의 시나리오와 드라마 대본, 연극의 희곡에서 하오체·하계체가 사용된 것들이다. 대화체를 그대로 살리면서 화자와 청자의 화용 맥락이 잘 드러나는 것이 특징인 장르이다. 그런데 여기에 쓰인 대화는 실제 대화 상황에서 발화하는 구어는 아니다. 작가가 영화와 드라마, 연극 공연에서 배우들에 의해 발화되는 것을 가정하고 창작한 것이므로 ‘준구어’라고 한다. 이러한 ‘준구어’는 대화체로 나타나므로 하오체·하계체 등 상대높임법 연구에 많이 쓰인다.

[표 17] 중학교 교과서 하오체·하계체 텍스트 목록-시나리오

번호	제재명	작가	빈도
1	YMCA 야구단(시)	김현석	3
2	꽃 피는 봄이 오면(대)	권민수	2
3	집으로(시)	이정향	1
4	성균관 스캔들(대)	김태희	1
5	웰컴투 동막골(시)	장진 외	1
6	TV 동화(느림보 버스)(대)	박인식	1
7	동승(희)	함세덕	1
8	대왕세종(대)	윤선주 외	1
9	반지의 제왕(시)-외국	J.R.R.톨킨	1
10	빌헬름 텔(희)-외국	프리드리히 실러	1
11	세 일간이(시)-외국	채탄바갓	1
12	새야 새야 파랑새야(희)	차범석	1

13	오이시스 세탁소 습격사건(회)	김정숙	1
14	대장금(대)	김영현	1
15	결혼(회)	조희	1
16	시집가는 날(회)	오영진	1

작품의 갈래별로 보면 영화를 위한 시나리오가 5개로 7회 수록되어 있는데, 모두 학생들에게 익숙한 유명 영화들의 시나리오들이다. 드라마 대본 역시 시청률이 높았던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 <대왕세종>, <대장금>이 포함되어 모두 5개가 6회 실려 있다. 연극을 위한 희곡은 6개 수록되어 있다. 외국 작품으로는 한국에서 개봉되어 큰 관객을 모았던 영화 <반지의 제왕>과 <세 얼간이>의 시나리오가 있고 희곡 <빌헬름 텔>이 실려 있다.

8) 역사적 인물을 소재나 주제로 삼은 글 속에 하오체·하계체가 포함된 경우는 아래와 같다. 각 교과서에 한번 씩 실려 있으므로 따로 제시 빈도는 표시하지 않았다. 이 텍스트들은 역사 속 인물들을 주제로 하거나 제제로 사용하고 있는 텍스트인데 고려시대의 서희<sup>87)</sup>로부터 조선시대 황희<sup>88)</sup>, 김만덕<sup>89)</sup>, 안중근<sup>90)</sup>, 이중섭<sup>91)</sup>, 전형필<sup>92)</sup>에 이르는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다.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인물은 ‘서희’로 고려 시대에 거란과의 싸움에서 외교적으로 협상하여 전쟁을 막아내 이름을 떨친 인물이다. 고려사의 ‘서희전’을 출처로 하고 있으며 박영수, 김기홍, 박성희 등 여러 작가가 위인전, 또는 협상과 관련한 도서로 출판하였다. 초·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협상과 토론과 관련된 단원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다.

[표 18] 중학교 교과서 하오체·하계체 텍스트 목록-위인전류

번호	제제명	저·작가
1	간송 전형필	이충렬

87) 서희(942~998), 고려 시대 외교가, 문신 출신의 장군.

88) 황희(1363~1452), 조선 전기의 문신.

89) 김만덕(조선 정조 시대), 제주도에서 유통업 거상.

90) 안중근(1879~1910), 대한제국 말기의 독립운동가.

91) 이중섭(1916~1956), 서양화가.

92) 전형필(1906~1962), 문화재 수집가.

2	서희의 대담한 외교술	박영수
3	서희, 협상을 말하다	김기홍/집필진
4	서희의 강동 6주 답판	집필진
5	서희의 협상(설명문)	박영규
6	항희	집필진
7	협상의 달인, 서희처럼 말하다	박성희
8	조선이 칭송한 나눔의 이름 김만덕	집필진
9	역사 속의 문제해결(방송대본)	집필진
10	안중근(조정래)	조정래
11	서희의 협상(KBS 천추태후 드라마)	손영목 외
12	화가 이중섭	엄광용

9) 중학 국어 교과서에는 자서전도 수록되어 있는데 김구, 안중근, 간디의 자서전에 하오체가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9] 중학교 교과서 하오체·하계체 텍스트 목록-자서전

번호	제재명	작가	빈도
1	백범 일지	김구	2
2	나의 소원	김구	2
3	안중근 자서전	안중근	1
4	나의 진리 실험 이야기(간디)-외국	간디	1
5	임시 정부의 문지기	김구	1
6	안중근 의사 자서전	안중근	1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인물로는 대한 제국의 독립을 위해 노력한 김구, 안중근을 다루고 있다. 또한 외국의 인물로는 인도의 독립을 위해 힘쓴 간디를 소개하고 있다. 각 인물이 살았던 시대 배경을 드러내면서 인물의 신분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등을 나타내는 장치로 하오체가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0) 이 외에도 정조의 <일성록>과 <설화 속의 호랑이>와 같이 시간 배경이 과거이거나 과거의 사실을 소재로 하는 글 등 장르를 특정하기 어려운 글을 역사물 관련 글로 묶었다. 이들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20] 중학교 교과서 하오체·하계체 텍스트 목록-역사물 관련 글

번호	제재명	작가	빈도
1	설화 속의 호랑이	최운식	2
2	일성록	정조	1

〈설화 속의 호랑이〉는 호랑이를 소재로 하는 설명문이다. 그런데 소재가 한국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호랑이’를 다루고 있어서 하오체·하계체가 잘 어울린다. 한편 『일성록』은 정조 임금이 한자로 쓴 일기로 그 중 일부가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다. 조선 시대의 한문을 번역한 글이므로 하오체·하계체가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11) 다음에는 하오체·하계체를 포함하여 상대높임법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 텍스트 목록이다. 상대높임법을 설명하면서 여러 화계에 대한 예문을 싣고 있다. 그 가운데 하오체·하계체의 용법과 용례가 제시된 것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1] 중학교 교과서 하오체·하계체 텍스트 목록-언어문화 관련 글

번호	제재명	대표 저자
1	선인들의 말 문화	교학사_남미영
2	화왕계 창작 배경, 전통적 듣기 말하기 문화	교학사_남미영
3	종결어미의 진화를 아시나영?(기사문)	동아_이삼형
4	전통적 말 문화의 특징 차계기환	동아_전경원
5	전통적 말 문화의 특징 이생규장전	동아_전경원
6	전통적 말 문화의 특징 흥부가	동아_전경원
7	전통적 말 문화의 특성 하회 별신굿 탈놀이	동아_전경원
8	선조들의 듣기 말하기 문화의 계승	비상_김태철
9	세대에 따른 의사소통을 알아보다	비상_이관규
10	옛 사람들의 언어문화(시어머니와 며느리)	비상_한철우
11	옛 편지에 나타난 높임 표현	창비_이도영
12	상황에 맞는 말	천재교육_김종철
13	건의합니다.	천재교육_김종철
14	표준 화법, 묻고 답하기	천재교육_김종철
15	박상길과 박서방의 차이	천재교육_노미숙

예를 들면 비상\_김태철의 3학년 1학기 교과서 『중학 국어 6』의 5단원 ‘말살이 돌아보기’에는 선조들의 품격 있는 말에 대한 예문들이 실려 있다.

고려 재상 서필:: 제 집이 좀 큰 편이니 제 집을 바치겠습니다.

고려 광종::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임금: 영상 대감, 이리 앉으시지요.

신하: 네 전하. 어인 일로 소신을 부르셨사옵니까?

임금: 과인이 요즘 과인의 치세에 대해 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영상 대감께서는 과인의 치세를 어찌 생각하시오?

(후략)

하오체·하계체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이 포함된 텍스트이다. 이를 통해 모여 화자들은 자연스럽게 습득한 하오체·하계체에 대한 화용 맥락을 분명하게 확인한다.

12) 다음은 교과서 속의 하오체 하계체 텍스트 가운데 사용 맥락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만화에 대한 목록이다.

[표 22] 중학교 교과서 하오체·하계체 텍스트 목록-만화

번호	제재명	단원구성
1	양반전	적용활동
2	고기 한 근	선택
3	쓰기 윤리의 중요성	활동(이해)
4	소중한 우리 한글	더 나아가기 활동 1
5	요약, 어디까지 해봤니	준비활동
6	발음의 원리와 규칙(표준발음)	학습 활동
7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단원의 길잡이
8	어휘의 세계	준비활동
9	세상을 보는 서로 다른 시각	준비활동 1
10	직업에 따른 화법	활동
11	마음을 움직이는 한 마디	쉼터
12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	쉼터

13	한글이 만든 세상	읽기 전에
14	일곱 안티와 땃글 공주	단원 다지기
15	서희처럼 협상하라	생각열기

위의 목록 가운데 아래에 제시된 만화는 교학사\_남미영 중등 국어 3의 3단원 ‘다양한 대화’의 ‘썰터’ 코너에 있는 <마음을 움직이는 한 마디>이다. 만화의 그림으로 조선시대의 양반과 천민의 외양, 대화 상황에서 인물들의 표정을 알 수 있어 ‘하오체’를 사용하는 맥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비상\_김태철의 중등 국어 6의 4단원 ‘역사 속으로’에서 ‘생각열기’로 단원의 이해를 돕는 만화에도 하오체가 쓰인 것을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목록에서 보는 것과 같이 교과서의 만화 중에 하오체나 하계체를 사용한 것을 찾을 수 있다.

[그림 10] 하오체를 사용한 만화 1





[그림 11] 하오체를 사용한 만화 2



13) 이번에는 하오체나 하계체를 사용한 노래가사에 대해 살펴보겠다. 아래의 목록에서 보듯이 중등 국어 교과서에는 민요, 가요, 가곡과 같은 ‘노래’ 5개가 총 7회 등장하고 있다.

[표 23] 중학교 교과서 하오체·하계체 텍스트 목록-노래가사

번호	제재명(작사가)	화계	빈도
1	밀양 아리랑(민요)	하오체	3
2	광복군 아리랑(민요)	하오체	1
3	기다리는 마음(1964, 김민부)	하오체	1
4	광야에서(1984, 문대현)	하오체	1
5	더 늦기 전에(1992, 신해철)	하오체	1

오랜 세월 동안 한국의 민중들에 의해 불러 졌던 민요 〈밀양 아리랑〉에 하오체가 사용된 것은 물론 1992년에 만들어진 가요에도 하오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교과서에 실린 가요 〈더 늦기 전에〉 가사의 내용을 일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전략)

그 언젠가 아이들이 자라서  
밤하늘을 바라 볼 때에 하늘가득  
반짝이는 별들을 두 눈 속에 담게 해주오.  
그 언젠가 아이들이 자라서 밤하늘을  
바라 볼 때에 하늘가득 반짝이는  
별들을 두 눈 속에 담게 해주오.

(후략)

노래하는 화자는 듣는 청자에게 하오체를 사용하면서 상대를 존중하는 느낌을 담아내고 있다.

14) 이 외에도 중등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신문 기사나 교과서 집필진에 의해 만들어진 사례 등을 하오체·하계체로 표현해 놓은 텍스트를 기타로 분류하여 제시한 것이 다음의 표이다.

[표 24] 중학교 교과서 하오체·하계체 텍스트 목록-기타

번호	제재명	작가	화체
1	홍부가 꿈꾸던 세상	정철현	하오체, 하계체
2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외국 작품)	잭 캔필드 외	하오체
3	독서의 역사1(외국)	알베르토 망구엘	하오체
4	신문 기사	아시아경제	하오체
5	MBC 드라마 ‘절정’ 중 이육사와 윤세주의 대화	황진영(극본)	하오체
6	협상과 주장(사례 2 시계 도매상 최씨)	집필진(창비)	하오체
7	한글이 피어나는 자리(2009)	정해왕	하오체, 하계체
8	광고의 설득 전략	집필진	하오체
9	지나쳐 간 사람들(1976)	우화	하계체
10	기로국 이야기	우화	하오체
11	모든 백성이 잘 살 수 있는 비결	채근담	하오체

신문에서 상대높임법 종결어미 하오체·하계체 관련 기사가 교과서에 실린 것으로는 동아\_이삼형 중학 국어 4의 3단원 ‘단어와 문장 바로 알고 쓰기’에서 아시아경제 신문의 〈‘종결어미’의 진화를 아시나영?〉 김철현 기자의 기사(2009. 11. 17일자)이다.<sup>93)</sup>

### 3.3.2 지시문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는 모든 지시문이 하오체로 되어 있다. 그런데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서는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와 달리 ‘하오체’의 청유형을 사용하는 것도 있고 ‘해라체’의 명령형을 사용하는 것도 있다. 분석한 14종의 국어 교과서 가운데 2종을 제외하고 12종의 국어 교과서에서 모두 지시문에 ‘해라체’의 청유형을 사용하고 있다. 다음의 예에서와 같이 동아\_이삼형, 천재교육\_박영목에서 ‘하오체’ 청유형 ‘~ㅂ시다’를 사용하고 있다.

다음은 이 시의 내용을 그림과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시의 내용을 떠올리며 빈칸을 채워 봅시다.

이 시를 소리 내어 읽어 보고, 겨울에 내리는 눈과 봄눈의 느낌을 비교하여 말해 봅시다.

(동아\_이삼형 중등 국어 1)

지금까지 읽은 시 가운데 감동적이었던 작품 한 편을 들고, 어떤 점이 감동적이었는지 말해 봅시다.

다음은 일기 예보 뉴스의 일부입니다. 잘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천재교육\_박영목 중등국어 6)

위의 예에서 보다시피 평서형으로는 ‘~정리한 것입니다.’와 같이 ‘합쇼체’를 사용하는 반면, 청유형으로는 ‘~답해 봅시다.’처럼 ‘하오체’를 사용하고 있다. 하나의 담화에서 화계를 통일해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해왔지만 최근 화계를 넘나들며 사용하는 현상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 3.3.3 삽화의 말풍선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와 같이 중학교에서 사용하는 모든 검정 국어 교과서에서도 삽화는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많은 삽화 가운데 말풍선에 하오체·하계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전체 14종 84권

93) 신문에서 종결어미 하오체·하계체를 언급한 것은 이 외에도 2006. 3. 2일자 세계일보에서 드라마 <궁>, 영화 <음란 서생>에서 하오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기사화했고, 아시아경제 2014. 7. 29. <야경꾼 일지>, 2010. 11. 2.일자 아시아경제 기사에도 정은철의 성균관 유생들의 나날을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에 하오체를 사용하고 있다는 기사가 실려있다.

가운데 4개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다음의 예에서 보듯이 삽화의 말풍선은 하오체·하계체의 사용 맥락을 매우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먼저 지학사\_방민호 3학년 1학기 『중학 국어 5』의 3단원 ‘상황에 맞는 말’에 수록된 <말과 글이 놓인 자리>라는 텍스트에 사용된 삽화를 소개하겠다. 이 삽화는 호남 방언 ‘감자’에 대한 설명을 하는 가운데 사용되었다. 아래와 같이 장모와 사위가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장모가 사위를 ‘정 서방’이라고 부르며 하계체를 사용하고 있다.

[그림 12] 하계체 사용례 1-가족(장모와 사위)



다음은 비상\_이관규 2학년 2학기 『중등 국어 4』의 5단원 ‘소통과 윤리’에서 사용된 삽화이다. 여기에서는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직업에 따른 화법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직업적 특수성이 있는 의사들끼리의 대화가 삽화로 제시되고 있다. 여기에서 선배 의사로 보이는 사람은 후배 의사에게 하계체로 말하고 있다.

[그림 13] 하계체 사용례 2-직장 선후배



천재교육\_박영목의 3학년 2학기 『중학 6』의 2단원 ‘담화와 협상’에도 사용된 예가 있다. 이 단원에서는 ‘세대, 성, 문화 등 사회·문화적 요인에 따라 언어 표현과 이해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 알아봅시다.’라는 코너에 다음과 같이 삽화를 쓰고 있다.

허리를 구부리고 있는 모습의 여자 어르신과 복장으로 보아 직장인인 듯한 남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다. 이 삽화의 말풍선에서 ‘하계체’를 사용하는 어르신은 대화 상대방의 부모를 알고 있으며 상대방도 그 어르신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안부 인사를 하는 담화를 하고 있다.

[그림 14] 하계체 사용례 3-지인



또 다른 예로는 천재교육\_김종철 3학년 1학기 중학 국어 5 2단원 ‘합리적인 의사소통’, 〈서희의 협상〉에 나온다. 고려 시대 유명한 외교 담판을 하는 장면에서 그림으로 배경이 되는 시대와 인물의 신분을 바로 알 수 있게 한다. 이 삽화에서 고려의 재상 서희와 거란의 장수는 서로 하오체를 사용하고 있다.

[그림 15] 하오체 사용례-외교 사신



이처럼 삽화의 그림으로 시대와 인물에 대한 정보, 화청자와의 관계와 같은 대화의 맥락 정보를 바로 알아차릴 수 있다. 그리고 삽화의 말풍선에 인물들이 사용하는 하오체·하계체를 넣음으로써 모어 화자들은 화용 맥락을 더욱 쉽게 습득할 수 있다.

다음의 표는 중학 국어교과서 삽화 속의 하오체·하계체 화·청자 맥락 정보를 정리한 것이다.

[표 25] 중학 국어교과서 삽화 속의 하오체·하계체 화·청자 맥락 정보

번 호	삽화 수록 교과서	화·청자의 신분	등장인물의 관계	화계	호칭
1	천재교육_박영목 중학 6	시민	지인	하계체	자네
2	비상_이관규 중등 4	의사	선후배	하계체	자네
3	지학사_방민호 중학 5	시민	가족(장모와 사위)	하계체	(정)서방
4	천재교육_김종철 중학 5	지배계층	장군과 외교 관료	하오체	그대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삽화를 통해 나타나는 하오체는 시간 배경과 등장인물에서 ‘과거’를 나타내기 위한 ‘표지’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하계체는 실제 대화 상황에서 사용하고 있다. 화자와 청자와 관계는

‘전형성’을 띠며 가족의 경우에는 혼인에 의한 관계에서, 그 외에는 연령의 차이와 사회적 관계를 보여주는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하계체의 문화적 문식성은 실제 대화에서 사용하는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글 속에서 ‘합쇼체’ 또는 ‘해요체’로는 나타낼 수 없는 것이다.

이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하오체·하계체에 함의된 문화적 문식성을 일상생활의 ‘구어’가 아닌, 문식성 발달 과정에서 접하는 교육 텍스트 내에 구현된 ‘문어’를 통해 습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하오체·하계체의 사용 맥락과 언어 속에 담긴 전통 문화 역시 ‘텍스트’를 통해 전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통 문화가 곧 E. D. Hirsch Jr.(1988 1-2)에서 말한 ‘한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사회 문화적 정보와 지식, 맥락 등’인 문화적 문식성이다.

또한 모어 화자는 이렇게 습득된 하오체·하계체에 내재된 공유 정보를 인식하고 그것을 다시 언어 생산물인 텍스트로 표현해 낼 수 있는데 이것은 최홍원(2015:605)에서 말하는 ‘문화적 문식성은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수행하고 실천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하오체·하계체를 교육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익히는 것은 그 안에 내재한 문화적 문식성을 습득하는 것이고, 습득된 하오체·하계체를 의도적이고 목적이 분명한 산출물로 내어 놓는 것도 문화적 문식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 IV. 하오체·하계체의 문화적 문식성

3장에서 교육 텍스트 내에서 구현된 하오체·하계체 사용 양상을 살펴본 것과 같이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유아기부터 시작하여 초·중 교육 과정 전반에 걸쳐 오랜 기간에 걸쳐 하오체·하계체를 사용한 텍스트를 접하고 있다. 교육 과정상 하오체·하계체에 관한 내용이 교육 목표로 설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하오체·하계체의 다양한 의미와 기능이 모어 화자에게 습득되는 것을 확인했다. 그 경로는 아동용 전래 동화와 초·중학교의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하오체·하계체 텍스트임을 밝혔다.

한국어의 상대높임법은 화자가 말을 할 때에 청자를 어떻게 대우할 것인지 높임의 화계를 결정하는 것이다. 하오체·하계체를 사용할 때 말하는 자신과 듣는 상대에 대한 관계에는 신분과 나이, 힘의 역학 관계, 두 사람 사이의 심리적 거리 등 상황 맥락이 작용한다. 예를 들면 ‘어전 회의에서 왕이 대신들에게 말하는 상황’이라면 모어 화자는 하오체를 떠올릴 것이다.

이는 모어 화자들은 ‘어전 회의’와 ‘왕’ 그리고 ‘대신’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앞(지식)이 곧 문화적 문식성의 하나인 것이다. 그런데 ‘어전 회의를 하는 상황’이라는 것도 그 성격과 참석 대신들의 경륜, 나이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고 그것과 함께 ‘왕’의 대신에 대한 높임법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맥락’에 대해 이해하고 그것에 맞게 ‘말’을 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문화적 문식성’이라고 볼 수 있다.

문식성의 의미는 문자를 알아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라는 단순하고 기본적인 정의에서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다양한 개념 정의로 변화되어 왔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구체적인 언어 사용 맥락에서 구체적인 목적으로 그러한 지식을 적용할 줄 아는 것(Scribner & Cole, 1981)’, ‘다양한 맥락에서의 읽기와 쓰기와 연관되는 사고의 양식임과 동시에 목표 지향적인 활동임과 아울러 사회적 맥락과 언어활동의 목적과 분리될 수 없는 문화적으로 규정된 현상(Langer, 1987)’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박영목 2008:44 재인



용). 이에 따르면 하오체·하계체는 모어 화자들 사이에서 ‘발화참여자의 사회적 배경을 크게 인식하는 말투’(임동훈, 2006)이므로 문화적 문식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를 읽고 쓸 줄 안다는 것은 기본적인 문식성을 가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적인 문식성에 더해 상대높임법 하오체·하계체의 사용 맥락에 대한 정보를 알고 이해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표현도 할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하오체·하계체에 대한 문화적 문식성을 지니게 된다. 그런데 한국어 학습자가 이러한 하오체·하계체의 문화적 문식성을 가지려면 ‘교육’이 필수적이고 하오체·하계체의 문화적 문식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교육 내용’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하오체·하계체에 담겨진 모어 화자가 ‘공유하고 있는 지식과 맥락 정보, 가치관’인 문화적 문식성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4장에서는 그것을 ‘전통 문화와 역사에 대한 지식’, ‘하오체·하계체의 규범적 사용’, ‘하오체·하계체의 전략적 사용’으로 나누어 고찰해보겠다.

#### 4.1 전통 문화와 역사에 대한 지식

한국어 모어 화자들의 하오체·하계체 사용 양상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문화적 문식성은 바로 하오체·하계체는 전통 문화와 역사적인 내용을 실어 나르는 표현 수단이라는 것을 알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능력이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전통 문화와 역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오체·하계체를 사용할 수 있다.

사포와 원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 백성과 이방에게 어떤 상대높임법으로 이야기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자네, 여보게 등의 호칭어도 마찬가지 이유로 하오체·하계체 사용에 있어 알아야만 하는 지식이다. 이와 같은 하오체·하계체 사용에 수반하는 한국의 전통 문화와 역사에 대한 지식은 문화적 문식성의 하나이다. 여기에서는 이를 전통 문화 어휘와 역사 지식, 힘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문화적 문식성의 개념에서 살펴보았듯이 허쉬(E.D. Hirsch Jr.)는 1988년



『Cultural Literacy-What every American needs to know』라는 책에서 문화적 문식성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면서 미국인이 꼭 알아야 할 5000개의 이름(names), 어구(phrases), 날짜(dates)와 개념어(concepts) 어휘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투르니에(J. Tournier, 1991, 김은정, 2008:3 재인용)도 문화적 관점에서 어휘는 한 언어 집단의 삶의 습관, 사고의 습관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문화적 관점에서 어휘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어휘는 언어 안에서 한 언어 공동체 혹은 민족 국가의 환경, 사회적 관습, 기술, 제도, 신념을 나타낸다(De Carlo. Manddalena. 1998:101-102, 김은정 2008:3 재인용). 그리고 어휘는 본질적으로 역사적인 산물이며 역사를 투과하여 문화적인 요소를 포함하게 되며(구본관 2005, 2007) 단어란 그 자체가 한 민족의 정신, 따라서 그 민족의 문화, 즉 그들의 관습과 일상적 삶의 모습이 배어있는 장소이다(심봉섭, 1999:65).

한 언어의 문화는 어휘 속에 가장 풍부하게 반영되어 있다. 문화에 관한 가장 풍부한 정보원의 하나는 그 언어의 어휘라고 말한 것이나(Heusinkveld, P. R. ed. 1997:193, 성기철 2007:561 재인용) Steele이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단어, 모든 표현은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sup>94)</sup>고 한 것은 모두 그러한 모습을 지정한 것이다. 따라서 하오체·하계체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다면 하오체·하계체의 형태적인 차이와 그것이 높임법의 한 체계라는 것을 안다고 해도 그것이 가진 기능이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한국어 학습자는 우리가 모어 화자의 습득 과정에서 살펴보았듯이 하오체·하계체를 사용하는 ‘전형적인 화자와 청자’를 알아야 한다.

모어 화자들이 하오체·하계체의 사용 맥락을 특별히 교육 받지 않아도 습득할 수 있는 것은 하오체·하계체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지식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왕, 신하, 대신, 대감, 선비, 하인, 사또, 원님, 백성과 같은 어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고 전래 동화의 삽화 속 인물만 보고도 그가 상투를 틀었는지, 초립이나 망건을 썼는지, 도포에 갓을 쓰고 있는지, 짚신을 신었는지, 갓신을 신었는지에 따라서 그 인물이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알아차리는 것이다.

94) Spinelli & Siskin(in Heusinkveld, P. R. ed.1977:227에서 재인용(성기철 2007:561))

뿐만 아니라 양반과 벼슬아치(예를 들어 사또)가 말을 할 때에는 어떤 속도와 억양으로 이야기 하는지 모어 화자들은 신분에 따른 ‘전형적인 말투’를 습득하여 알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면 하오체·하계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발화되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어휘는 개념이며 지식이다. 그러므로 어휘를 학습한다는 것은 곧 그 어휘 그리고 그 어휘와 관련된 지식을 학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Anderson & Nagy, 1991, 노명완, 2008:22 재인용).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이와 같은 전통 문화 요소들을 학교의 수업 시간에 따로 배우지 않고도 하오체·하계체로 표현된 텍스트로부터 학습할 수 있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인을 위한 문화 교육에서 어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 연구에서 거론한 어휘 항목에도 전통 문화와 관련된 어휘들이 많이 포함되어있는데, 하오체·하계체가 포함된 텍스트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전통 문화 요소들을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어휘 교육은 초등학교 저학년 문식성 교육의 핵심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아동의 어휘력을 측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이제는 어느 정도 추정도 가능할 정도가 되었다. 이들 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초등학교 1학년 말 즈음에는 약 5천여 어휘를 알고 있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는 약 5만 정도의 어휘를 알고 있다고 한다(Graves, 2006). 어휘 지도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 이르는 전 문식성 교육의 과제이기는 하지만 특별히 초등학교 저학년 문식성 교육의 핵심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노명완, 2010:26).

더불어 모어 화자들은 이미 조선 시대의 사농공상에 따라 신분이 나뉘는 제도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하오체를 쓸 수 있는지 어떤 관계에서 하계체를 사용할 수 있는지도 알고 있다. 이러한 것은 한국의 역사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알 수 없고 적절한 화계를 연결시킬 수 없으므로 이 또한 문화적 문식성의 한 예가 된다.

예를 들어 18세기에 만연한 양반 계층의 관습, 의식, 태도에 대한 비판적이고 풍자적인 묘사로 문화 특정적 요소의 사용 빈도가 높은 박지원의 <양반전>을 다른 외국어로 번역한다면 이런 요소들에 대한 고려가 되어야만 한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문화 특정적 요소가 많은 외국 저작물을 번역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런 요소들에 어울리는 상대높임법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하오체·하계체를 습득하게 되는 주요 매개체인 유아용 도서와 초·중 국어 교과서에서 살펴보았듯이 하오체·하계체는 전통 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많이 담아내고 있다. 하오체·하계체를 사용한 교과서 제재의 예로 초등학교 국어 3-1 가의 <토끼의 재판>과 초등학교 국어 5-1 가에 포함된 <옹고집전>에서 사용하는 삽화를 통해 볼 수 있는 전통 문화요소를 열거해보면 나그네의 복장, 즉 상투를 틀어 올린 머리, 초립, 한복, 짚신, 붓짐, 소나무, 호랑이, 옹고집의 망건, 사또, 형방, 할미 종, 관가와 민가의 모습, 아픈 어머니의 모습, 등장인물들의 각각 다른 모자와 옷 등이다.



[그림 16] 교학사\_남미영 『중등 국어 6』 삽화(p. 94)

이와 같은 한국의 전통 사회의 신분 제도와 관습, 생활상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그 바탕 위에서 말하는 상대와 상황에 따른 언어 사용의 맥락에 맞춰 하오체·하계체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교학사\_남미영 중등 국어 6(3학년 2학기) 교과서에는 연암 박지원의 <양반전>이 실려 있는데 본문 학습 전에 옆의 그림과 같은 삽화가 들어 있다. ‘양반’하면 떠오르는 생각을 정리해 보자. 라고 제시되어 있고 삽화에 ‘걸음걸이’, ‘소지품’, ‘옷차림’, ‘말투’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말풍선이 달려있다.

중학생인 모어 화자가 ‘양반’이라면 떠올리는 ‘전형적인 말투’야말로 모어 화자들이 하오체·하계체에 대해 갖고 있는 문화적 문식성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하오체·하계체가 사용된 전래 동요와 전래 동화를 보면 의인화 된 동식물들이 여럿 등장한다. 3장에서 살펴본 <은혜 값은 까치>, <토끼와 자라>, <멸치의 꿈>에서도 각종 동물들이 의인화하여 하오체·하계체를 사용하고 있

다. 호랑이, 구렁이, 두꺼비, 까치, 토끼 소나무 등이 하오체·하계체를 사용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한국의 모어 화자들은 이러한 동식물에 대해 힘의 우열을 부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산이 많은 한국의 자연 환경에서 예전부터 호랑이는 무서움과 함께 친근함도 가진 존재였다. 그러므로 민담, 설화, 속담, 전래 동화에 호랑이가 자주 등장한다.

동아\_이삼형 중학 1의 교과서에는 최운식의 ‘설화 속의 호랑이’라는 글에서 우리 선조들은 호랑이를 다양한 모습으로 형상화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사납고 무서운 호랑이로 표현하여 악을 물리치고 선이 이기기를 바라기도 하였으며, 호랑이를 어리석은 존재로 나타내어 삶의 지혜를 소망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호랑이를 신성한 존재로 여겨 신격화하기도 하고, 정과 의리와 인간의 효성에 감동하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리기도 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설화에 나타난 호랑이의 여러 가지 모습은 한국 사람들이 호랑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설화와 민담 속에서 무섭고 사나운 존재, 신성한 존재, 어리석은 존재로 그릴 때 상대높임법은 등장인물들의 관계에서 호랑이가 차지하는 위치를 나타내주는 매우 유용한 요소이다. 소나무 역시 한국 땅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정절과 절개의 상징물이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있다면 이들이 의인화되어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맥락에 따라 하오체·하계체를 사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문화권에 따라 민담이나 설화 등에 자주 나타나는 동·식물이 각각 다르다. 이것은 지리적인 환경과 생활양식에 따른 것인데 예를 들면 일본의 전래 동화에는 여우와 너구리가 자주 등장하고 동남아의 전래 동화에는 코끼리나 바나나 나무 등이 나타난다. 이것은 각 지역의 지리적 환경을 반영하면서 해당 문화를 품고 있는 상징물이 존재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징물들이 어떤 텍스트 속에서 의인화 되었을 때 하오체나 하계체의 발화로부터 그 문화권의 사람들이 갖는 해당 상징물이 갖는 ‘힘’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상징물과 주변 대상 사이에서 갖는 힘의 우위를 짐작하여 알 수 있게 된다.

이상 살펴본 것과 같이 모어 화자들은 하오체·하계체 사용 텍스트로부터 이러한 전통 문화와 역사에 대한 지식, 한국 문화적인 배경에서 상징성을 갖

는 동식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이는 실제 생활에서 사용되는 어휘나 지식이 아니어서 일반적인 한국어 교육에서 다루는 교육내용은 아니다. 그러나 모어 화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기본적인 문화적 문식성이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요소들은 하오체·하계체 사용 텍스트로부터 추출, 분류하여 한국어 교육에서 활용한다면 한국어 학습자들의 문화적 문식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4.2 하오체·하계체의 규범적 사용

높임법의 사용은 언어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는 ‘규범’과 개인적인 목적과 의도에 따라 나오는 ‘전략’의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진다. 이를 각각 높임법의 ‘규범적 용법’과 ‘전략적 용법’이라고 한다. 규범적 용법은 무표적이고 기본적인 것이며 대화 참여자 관계에서나 대화 상황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식으로 높임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이정복 2012:333-334).

그런데 이러한 규범적인 사용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기 마련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과거에는 말하기로 많이 사용된 하오체·하계체가 현대 모어 화자들 사이에서는 실제 발화에서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모어 화자들은 어떤 텍스트의 배경이 조선시대인 경우 부부 사이에 하오체를 쓰거나 친구 관계에서 하계체를 사용하는 것을 그 시대의 규범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것 역시 모어 화자들이 하오체·하계체에 대해 갖는 문화적 문식성이다.

이러한 하오체·하계체의 규범적 사용을 이정복(2012:35-36)에서 논의한 사회적 요인으로 고찰하려고 한다. 이정복(2012)에서는 높임법의 사회적 요인을 ‘참여자 요인’과 ‘상황 요인’으로 나누고 있다. 참여자 요인에는 힘(계층, 나이, 지위, 성, 수혜적 관계), 거리(성별, 친소 관계)가 있고 상황 요인에는 격식성과 제3자 인물의 현장성이라고 했다. 그런데 높임법 사용 과정에서 사회적 요인은 몇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는 일이 많다고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하오체·하계체의 규범적 사용을 이러한 사회적 요인을 중심으로 고찰하려고 한다. 먼저 거리 면에서 화자와 청자 관계를 살피고 힘의 요인을

설명하겠다.

#### 4.2.1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시

초·중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하오체 텍스트를 살펴보면 전형적인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즉, 화자와 청자가 부부 관계일 때에는 예외 없이 남편이 아내에게 하오체를 사용했고 이는 화자와 청자의 거리가 가까운 사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왕과 대신들, 벼슬아치나 양반들 사이에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사용하는 하오체는 거리 면에서 멀며 공적인 관계이다. 교과서에 수록된 이러한 텍스트를 학습함으로써 모어 화자들은 하오체는 화자의 권위성을 내포하면서 청자를 대우하는 경우에 쓰인다는 것을 습득하게 된다. 이를 화청자 관계의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4.2.1.1 부부 관계

부부 사이에서 하오체를 사용한 예를 들어보면 2학년 1학기 『국어 2-1 나』의 <오소리네 집 꽃밭><sup>95)</sup>의 오소리 아저씨가 오소리 아줌마에게 하는 다음의 대화이다.

어디 갔다 이제 오우?  
당신, 아까 회오리바람에 날려 갔잖소?

전래 동화 <홍부전>에서도 홍부가 아내에게, <의좋은 형제>에서 형과 아우가 자신의 아내에게, <바리데기>에서 오구 대왕이 길대 부인에게, 미래엔\_윤여탁 중학 국어 3학년 1학기 <황희 정승 이야기>에서 황희 정승이 부인에게 다음과 같이 하오체로 말하고 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내 볼 좀 꼬집어보오.  
<홍부전>

95) 권정생 글, 『오소리네 집 꽃밭』, 길벗어린이, 1997.

아우 집에 벋단을 더 갖다 주어야겠소. 새살림도 장만해야 할텐데.  
형님 댁에 벋단을 더 갖다 드려야겠소. 식구가 많으니 쓸데도 많지 않겠소?  
〈의좋은 형제〉

맞소. 부인 말씀도 참으로 맞소.  
〈황희 정승 이야기〉

내가 일곱째 딸을 내다 버려 친벌을 받는 모양이오. 죽기 전에 일곱째 딸 얼굴이  
나 한번 보게 해 주오.  
〈바리데기〉

#### 4.2.1.2 부모 자식 관계

부모 자식의 관계에서 하오체를 사용한 예도 있다. 〈웅고집전〉에서 아들이  
어머니에게, 〈바리데기〉에서 오구 대왕이 바리데기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제발 이러지 좀 마시오. 누가 뭐랬다고 야단이오? 나 원 참.  
〈웅고집전〉

야박했던 이 아버를 용서해다오.  
〈바리데기〉

또한 여러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사랑손님과 어머니〉에서  
는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옥희가 어머니에게 아래와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

엄마, 이거 풍금 아니유?  
우리 유치원에 있는 풍금이 이것과 똑같은데 무얼. 그럼 엄마두 풍금 칠 줄 아우?

현대 한국어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 하오체를 실제 대화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어 화자들은 위와 같은 사용맥락을  
텍스트를 통한 습득하고 있으며 한걸음 더 나아가 SNS를 이용한 ‘문자 보내기’  
로 종종 사용하기도 한다.



#### 4.2.1.3 친인척 가족 관계

혼인으로 인해 넓어진 친인척 가족 관계에서 하계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먼저 비상\_한철우 2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공선옥의 소설 〈일가〉에서는 형님뻘 되는 친척이 동생뻘 되는 이에게 하오체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는 하계체를 사용해도 될 사이인데 하오체가 사용된 것은 가깝지 않은 먼 일가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전략)

“나 때문에 제수씨가 집을 나간 게라면 정말 동생한테 미안하오.”

“아이고 형님, 그게 무슨 말이십니까.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 부부 싸움이란 것도 가끔 하게 되는 거고 애 엄마가 집을 나간 것도 결코 형님 때문이 아니라…….”

“참말 미안하오, 동생.”

“형님 자꾸 그러시면 제가 들 낫이 없습니다.”

“하아, 내가 죄인이오.”

“아니라니까요, 형님.”

(하략)

또한 미래엔\_윤여탁 3학년 2학기의 『중학 국어 6』에는 채만식의 〈치숙〉이 실려 있는데 소설 배경 시대인 1930년대의 하오체 사용 맥락을 확인할 수 있다. 주인공이 아저씨에 대해 하오체를 사용하고 있다.

(전략)

“아저씨도 맘 달리 잡수시요.”

“건 어떻게 하는 말이냐?”

“걱정 안 되시오?”

(중략)

“왜요?”

“…….”

“아니 어째서 딱하다고 그러시오.”

“…….”

“네 아저씨”



시방이 어느 세상인데 그러시오?  
(하략)

마지막으로 지학사\_방민호 『중학 5』의 3단원 ‘상황에 맞는 말’에 수록된 <말과 글이 놓인 자리>라는 삽화에서 장모가 사위에게 하계체를 사용하는 장면이 있다.

장모: 정 서방, 창고에서 감자 좀 가져다주게.  
사위: 네, 장모님.

모어 화자들의 구어에서 쓰이는 하계체를 살펴보면 가족 관계의 양상이 보인다. 모어 화자들은 결혼으로 맺어진 가족 관계, 즉 장인 장모가 사위에게, 매형과 처남 사이에서 또는 위아래 동서 사이에서 하계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는 상대를 대우함과 동시에 심리적으로 그리 가까운 관계는 아님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는 집안의 향렬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비록 자신보다 나이가 많더라도 하계체를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사람들 일부에서는 남자 친구들끼리 서로를 예우할 때에도 사용한다. 한편 사제기간에도 사용하는데 어릴 때 가르쳤던 제자가 나이 들어 결혼도 한 상태에서 찾아오거나 하였을 때 예전처럼 해라체, 해체 등의 반말을 할 수는 없으므로 하계체를 씌으로써 상대를 예우한다.

#### 4.2.1.4 타인과의 관계-친구, 선배, 제자, 지인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인간관계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 예를 들면 친구 관계에서도 친구의 자녀들이 자라 결혼을 한다든지 했을 때, 어린 제자가 장성하여 군대에 다녀온 경우나 결혼을 한다든지 했을 때이다. 그런 경우에는 자신의 어릴 적 친구라도 친구의 혼인한 자녀와 함께 있다든지 하는 등의 상황에 따라서는 높여 말할 필요를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예는 현대 구어 상황에서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친구 사이에 하계체를 사용하는 예는 미래엔\_윤여탁 2학년 1학기 교과서

『중학 국어 3』에 수록된 성석제의 <내가 그린 히말라야시다 그림>에 나온다. 장가를 일찍 가서 아들이 10살(3학년)인 30대의 아버지와 초등학교 동창이면서 자신의 아들 학교 담임 선생님이로 졸업 후 10 수 년 만에 만나는 장면에서 서로 하계체를 사용하고 있다.

(전략)

“자네는 공부를 잘하더니만 결국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군. 양복과 자전거가 잘 어울려. 어디 사는가?”

선생님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근처에 산다고 말하고는 아버지에게 아직도 그림을 그리느냐고 물었어.

“어 내 아들놈이 지금 열 살이야. 난 아버님의 유언 때문에 그림을 포기한 대신 장가는 일찍 갔다네. 그 애가 그림에 재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래도 한때 그림을 좀 그렸던 사람으로서 재료는 좋은 걸 써야겠기에. 우리 형편에는 좀 과분하지만 이리로 온 길세”

“그럼 자네 아들 이름이?”

“선규일세. 백선규.”

(하략)

비상\_이관규 『중등 국어 4』의 5단원 ‘소통과 윤리’에서는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직업에 따른 화법에서 의사들끼리의 대화가 만화로 제시되고 있다. 여기에서 선배 의사로 보이는 사람은 후배 의사에게 하계체로 말하고 있다.

후배 의사: 환자 어레스트가 잠깐 왔지만, 벤틸레이터 연결하고 신속히 시피아르 진행하여 현재 바이탈 정상입니다.

선배 의사: 음, 알겠네. 자네가 보호자에게 잘 설명 드리게.

위의 비상\_이관규 『중등 국어 4』의 5단원 중 ‘세대에 따른 의사소통’에서도 아래와 같은 대화문을 제시하고 상대의 성별, 나이, 관계 등을 묻는 활동을 실어놓았다. 대화 참여자의 얼굴 모습을 이미지로 그려 놓았는데 젊은 청년의 상대방의 이미지는 그림자 처리를 해서 학생들이 누구인지 짐작하게 하는 활동이다.

? : 자네, 오랜만이군, 그동안 잘 지냈는가?

청년: 예, 안녕하셔요?

? : 그래, 난 잘 있었네. 조부님도 안녕하시고? 요즘 통 안 보이시는구먼.

청년: 아, 할머니와 함께 여행 중이세요.

? : 허허 그랬군. 내가 조만간 찾아뵙겠다고 전해주께.

비상\_이관규 『중등 국어 4』의 5단원 ‘소통과 윤리’에서는 명시적으로 상대높임법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의사소통 방식의 하나로 직업과 세대에 따른 어법이 달라짐을 활동을 통해 알 수 있게 하였다. 모어 화자들은 상대높임법의 차이를 언어 지식으로 이미 갖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런 정도의 활동만으로도 어법의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 4.2.1.5 주군 관계

임금과 대신과의 대화에서 사용한 예로는 3장에서 살펴본 유아용 전래 동화 <별거벗은 임금님>을 비롯해 초등학교 교과서 삽화의 말풍선[그림 8]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외에 창비\_이도영 중학 3학년 2학기 교과서 2단원에 <세종대왕을 만나다>라는 설명문에도 있다. 세종대왕을 만나러 간 학생들과 훈민정음을 만든 이야기를 나누는 가상의 장면이다. 여기에서 세종대왕, 정인지, 최만리, 학생들과의 대화를 구성해놓았는데, 세종이 대신들과의 대화에서 하오체를 사용하고 있다. 그 가운데 일부를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대제학, 그대가 설명을 해주겠소?

부제학, 왜 그리 반대를 하였는지 이 젊은 친구들에게 말해보시오.

비상\_김태철의 3학년 2학기 국어 교과서 5단원 ‘말살이 돌아보기’에도 고려 광종과 재상 서필의 대화, 임금과 신하의 대화가 있다.

고려 재상 서필: 제 집이 좀 큰 편이니 제 집을 바치겠습니다.

고려 광종: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임금: 영상 대감, 이리 앉으시지요.

신하: 네 전하. 어인 일로 소신을 부르셨사옵니까?

임금: 과인이 요즘 과인의 치세에 대해 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영상 대감께서는 과인의 치세를 어찌 생각하시오?

신하: 전하, 나라 안팎으로 혼란이 없으니, 전에 없던 태평성대가 아니옵니까. 이 모두가 전하의 하해와 같은 은덕임을 만백성이 다 알고 있사옵니다.

임금: 진정 그렇습니까? 과찬의 말이십니다. 이것이 어찌 과인만의 힘이었소? 다 과인의 뜻에 따라 조정의 신료들이 분골쇄신하여 매진하였기 때문이 아니었소? 특히 여기 있는 영상 대감께서 그동안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소이다.

신하: 전하. 그리 말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이처럼 군신 관계에서 하오체·하계체를 사용하는 예는 ‘과거’를 다루는 텍스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다음은 『조선정감』<sup>96)</sup>에 나오는 흥선 대원군과 재상 김유연의 대화<sup>97)</sup>를 옮긴 것이다(신경숙 2001, 재인용).

대원군: (만류하면서) 그런 것이 아닐세, 방금 국가에 進宴하는 儀式이 있어 妓樂을 선발하는 중이라 선발에 들 만한 자가 온갖 계책으로 모면하려 하여 청축이 물려드는데, 송근수는 성품이 나약하여 그들의 청축을 능히 물리치지 못할 것이나 공같이 강직하면 이런 염려는 단연코 없겠기로 宋과 서로 바뀌서 해민서 제조로 삼은 것일세.

김유연: (발끈하면서) 공의 말 같으면 소인을 기생 두령으로 삼는 것입니까? 宰相이 비록 비루하나 이런 무리의 일에 어찌 간여하겠습니까.

이러한 예는 번역(국역) 『조선왕조실록』의 수많은 군신 간의 대화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sup>98)</sup> 다음의 예는 이형대(1997)에서 인용한 태종이 지신사 김여지에게 하계체로 대화하는 것이다.

“상왕이 이르시기를 ‘내가 예전에 판례빈사사 김자순의 「어부가」를 듣고 대단히 좋아하였는데, 지금 다시 듣고자 한다’고 하니 김자순을 불러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이 어떠한가?”라고 하계체로 대화하는 장면이 있음.

96) 박제형(朴齊炯), 『朝鮮政鑑』, 이익성 역, 한길사, 1992. 83면.

97) 신경숙(2001)에서는 대화 내용이 간접인용으로 서술되어 있으나 이 논문에서 하오체 사용을 드러내 보이고자 대화체로 바꾼 것이다.

98) 이형대(1997)에서 번역(국역) 『태종실록』을 인용하여 태종이 지신사 김여지에게 하계체로 대화하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도 과거 역사를 다루는 다양한 맥락에서 생산되는 텍스트들에 하오체·하계체가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학을 공부하는 유학생들은 이해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표현의 차원에서도 하오체·하계체 사용이 필요하다.

#### 4.2.1.6 대신들 사이- 동료, 선후배 관계

대신들 사이의 대화에서 사용한 예로는 비상\_이관규 중학 6(중학교 3학년 2학기)의 2단원 한글의 탄생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글이 피어나는 자리><sup>99)</sup>에 대제학 정인지와 젊은 관리의 대화는 하계체를 사용하였다.

“새벽에 수탉이 울 때 어떤 소리로 우는가?”

“그야 ‘꼬끼오’하고 울지요.”

“거센 바람이 귓가를 스칠 땐 어떤 소리가 나는가?”

“그야 ‘쌔앵쌔앵’하고 지나치지요.”

“자, 그러면 그 소리들을 한자로 한번 적어 보게나.”

정인지, 권제, 안지의 대화에서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화계를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이중에 ‘대감’ 권제와 안지의 대화에서 하오체를 사용하고, 정인지는 합쇼체를 사용하고 있어 권제, 안지는 하오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슷한 지위와 나이를 가진 인물임을, 정인지는 두 사람보다 지위나 나이가 아래임을 알 수 있어 세 사람 사이의 위계 관계를 짐작해볼 수 있다.<sup>100)</sup>

실제 <용비어천가>를 지을 당시 직위로는 권제가 종1품, 안지가 종2품의 관직이었으나 안지가 권제보다 3살 위이므로 안지가 권제에게 하오체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인지는 안지보다 높은 관직인 정2품임에도 권제, 안지 두 사람에게 합쇼체를 사용하여 높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당시 세 사람이 주고받는 말이 어땠는지 알 수 없고, <용비어천가>를 지을 당시의 자료는 모두 실록에 한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정해왕 작가는 하오체와 합쇼체를 사용함으로써 세 사람의 사회적 관계를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99) 동화작가 정해왕 외 『한글 피어나다』, 2009, 해와나무 중 한글 창제와 관련한 부분임이다.

100) 안지(1384~1464), 권제(1387~1445), 정인지(1396~1478)는 세종의 명으로 1445년(세종 27)에 <용비어천가>를 지었다. 당시 권제는 우찬성, 안지는 공조참판, 정인지는 우참판이었다.

어전에서 물러 나온 뒤 권제 대감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아니, 시를 짓는 건 좋은데 왜 굳이 ‘훈민정음’으로 쓰라 하시는지?”

안지 대감도 맞장구를 쳤다.

“그러게 말이오. 우리야 한문으로 짓는 편이 훨씬 쉬운데.”

내가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직도 신하들이나 궐 밖의 양반들 가운데는 임금께서 만드신 언문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자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언문으로 쓴 글이라 하더라도 임금의 조상들께서 이 나라 조선을 세운 내용을 담는다면 함부로 헐뜯지 못할 게 아닙니까?”

“듣고 보니 과연 그렇구려. 이런 걸 바로 일석이조라 하나요?”

위에 설명한 하오체·하계체의 사용 맥락을 텍스트로부터 습득하는 모어 화자들은 초등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다음과 같은 대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밤새 낱을 모양인데 그만 들어가서 자자, 개순이 먹일 미역국은 넉넉히 끓여 놓았소?”<sup>101)</sup>를 텍스트에서 볼 때 두 사람 즉, 딸과 아내에 대한 말을 한 문장 안에 각각 표현하고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다. 종결어미로 나타나는 청자높임법의 화계에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전형성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도 한국어의 청자높임법이 가지는 사회언어학적인 측면의 문화적 문식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알아차림이 없는 한국어 학습자는 두 사람에게 한 말이라는 것을 알기 어렵다. 이렇게 누가 누구에게 하오체나 하계체를 사용하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상대높임법 화계가 갖는 규범적인 사용법 즉 사용 맥락에 대해 모어 화자의 언어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한국인들은 나이에 민감하다’는 것도 결국 청자높임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나이의 많고 적음으로만 화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힘과 심리적 거리의 요인까지 작용하기 때문에 보다 복잡한 양상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나이는 모어 화자들이 청자높임법에서 갖는 중요한 변수이다.

하계체는 신분이나 나이에서 우위에 있는 사람이 자신 보다 신분상 아래에 있거나 나이가 아래이지만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 상대이거나 하대하기 싫

101) 초등학교 교과서 『국어활동 3-1 나』에 나오는 <무녀리네 엄마 개순이>에서 아버지가 딸과 부인에게 하는 말이다.

은 의도를 드러낼 때에 사용한다. 중학 교과서에서 살펴본 연암 박지원의 <백영숙을 보내며>의 번역문에도 잘 나타나 있다. 연암 박지원은 자신보다 6살 아랫사람이며 양반 출신이 아닌 서얼 출신의 야녀 백동수에게 하계체를 사용하는 것으로 번역(국역)해놓았다. 이것은 번역(국역)한 사람이 연암이 백동수를 대우하고자 하는 연암의 의도를 전달하고자 하계체를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나이도 어리고 신분의 차이도 있지만 연암 박지원이 백동수를 자(영숙)로 부르며 대우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즉, 신분이 높으면서 나이도 많은 연암이 백동수에 대해 하계체를 사용하였다는 것은 규범적인 사용법을 알고 있다는 전제 아래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청자의 사회적인 지위에 따른 차이를 보이는 것을 교과서의 지시문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초등학교 교과서의 지시문은 하오체의 청유형 종결어미 ‘-ㅂ시다’를 사용한다. 역시 문제집과 시험지에도 하오체 명령형 종결어미 ‘-시오’를 사용한다. 그런데 중·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같은 상황의 지시문이 하오체에서 하계체 종결어미 ‘-자’나 ‘-라’로 바뀐다. 그런가 하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능력시험인 토픽(TOPIK) 시험지의 지시문은 합쇼체를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같은 사용 맥락인 시험지의 지시문이라고 하더라도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 따라서 종결형을 다르게 사용한다는 것은 화자와 청자 사이에 사회언어적인 구별을 무의식적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어와 같은 상대높임법이 없는 언어권의 학습자들에게는 역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 될 수 있다.

#### 4.2.2 호칭어의 호응

하오체·하계체 사용과 관련하여 호칭어와 종결어미 사이의 호응에 관해서도 모어 화자들이 갖는 기본적인 인식이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호칭어와 문장 종결어미가 정확히 호응을 이루어야 사회언어학적으로 바른 문장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박영순, 1995). 이에 대해서는 아주 느슨한 것이라는 실증적 연구도 있지만(유송영, 2002), 모어 화자들은 ‘여보게, 자네’와 함께 하계체를



떠올릴 수 있고 ‘당신, 그대’와 하오체가 어울린다고 생각한다.

한국어 대명사는 지시어와 명사의 복합형으로서 ‘이분, 그분, 저분’은 존칭, ‘이이, 그이, 저이’는 평칭으로 대립을 보여주며 여기에 ‘이 양반’, ‘이 어른’ 등의 다양한 형태가 높임법상 대립 표현을 이루고 있다(김정남, 2008). 이러한 대명사들은 상대높임법 어말어미와 함께 사용할 때 제약이 있으므로 하오체·하게체 사용에 있어서도 어울려 쓰이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이러한 쓰임에 대해서도 모어 화자들은 자연스럽게 습득해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다.

‘여보게, 자네’는 일반적으로 친구나 손아랫사람 또는 나이 적은 사람에게 대접하여 존대하는 호칭으로(허상희, 2012, p. 138) 하게체와 함께 사용한다. 나이가 들어 결혼한 자녀들을 둔 연령대의 사람들이 격의 없는 친구 사이에서 서로 존중하여 쓰기도 하고, 장인이 사위에게, 선생님이 성인이 된 제자를 대우하여 하게체를 사용하기도 한다.

#### 4.3 하오체·하게체의 전략적 사용

모어 화자들은 경어법 사용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의 심리적 거리를 더 멀거나 가깝게 조절하기 위해 경어법 형식의 선택에서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경어법 사용은 사회 또는 언어공동체 안에서 주어진 지위 관계를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능동적, 적극적인 언어 사용임을 알게 된다(이정복, 2012:23). 이와 관련되는 용법을 전략적 용법이라고 보고 다음에서 설명한다.

높임법의 사용은 언어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는 ‘규범’과 개인적인 목적과 의도에 따라 나오는 ‘전략’의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진다. 이를 각각 높임법의 ‘규범적 용법’과 ‘전략적 용법’이라고 한다. 규범적 용법이 무표적이고 기본적인 것이라면 전략적 용법은 화자들의 높임법 사용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나왔다. 규범적인 사용은 대화 참여자 관계에서나 대화 상황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식으로 높임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이정복, 2012:333-334). 어떤 담화의 배경이 조선시대인 경우에 부부 사이에



하오체를 쓰는 것이나 친구 관계에서 하계체를 사용하는 것은 규범적 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4.3.1. 화계의 변화로 심리적 거리두기

상대방에게 부탁을 하기 위해 평소보다 더 높여 대우한다든지, 자신의 높은 지위를 드러내기 위해 높임 형식을 쓰던 사람에게 일부러 갑자기 반말을 하는 일이 있다. 이처럼 청자 경어법의 여러 가지 말 단계 형식 가운데서 어떤 것을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씌으로써 청자의 생각이나 행동을 바꾸려는 의도적 용법도 많이 있다(이정복, 2012:23).

이러한 ‘전략적 사용’에 하오체·하계체는 매우 유용하다. 이 화계를 사용함으로써 여러 단계의 화계 중에 ‘선택’의 여지가 생겨 ‘심리적 거리두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교과서의 텍스트를 통해 살펴본 하오체·하계체의 용법 가운데서 이러한 전략적 용법으로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의 예를 들어보겠다.

먼저 유아를 위한 전래 동화 <토끼와 자라>에서 용왕이 토끼를 회유하는 장면을 들 수 있다. 이 장면에서 용왕은 해체를 사용하던 토끼에게 상대높임법의 종결어미를 달리하여 하오체를 사용하면서 토끼에 대한 ‘대우’가 달라졌음을 나타내고 있다.

<토끼와 자라>

용왕: 토끼야 들어라. 내 병을 고칠 약이 네 간 밖에 없다고 하니, 어쩔 수 없구나.  
(중략)

용왕: 어허, 토끼 선생. 그만 화를 푸시오. 다들 내 병이 걱정 되어 그러는 것이니 너그러이 봐 주오. 자, 한시가 급하오. 이제 물으로 데려다 줄 터이니 어서 간을 가져 오시오. 내 병이 나으면 높은 벼슬을 주고 온갖 호강을 누리게 해 주리다.

이러한 예는 초등학교 『국어 3-1 가』의 <토끼의 재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등장인물 호랑이는 뒷에 갇힌 위급한 상황에서 합쇼체를 사용해 지나가던 나그네에게 뒷에서 꺼내줄 것을 사정한다. 그러나 나그네가 구해주자 태도가 돌변하며 도리어 잡아먹으려 하면서 해체로 말하고 있다. 한편 나그네

는 호랑이에게 하오체를 중심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자신의 상황이 어려워지자 소나무, 길, 토끼 등에 사정을 할 때에는 화계를 높여 합쇼체를 쓰고 있다.

(전략)

나그네: 누가 나를 부르나?(사방을 둘러본다.)

호랑이: 나그네님, 저를 좀 구해 주십시오.-합쇼체(1)

나그네:(괘 짝을 들여다보고) 이키, 호랑이구려! 무슨 일이요?

호랑이: 나그네님, 제발 문고리를 따고 문짝을 좀 열어 주십시오.

나그네: 뭐요? 문을 열어 달라고? 열어 주면 뛰쳐나와서 나를 잡아먹을 것이 아니오?

호랑이: 아닙니다. 제가 은혜를 모르고 그런 짓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앞발을 비비면서 자꾸 절을 한다.)

나그네: 허허, 알았고. 설마 거짓말이야 하겠소? 내가 이 괘 짝 문을 열어주리다. 그 대신 약속을 꼭 지키시오.-하오체(2)

(중략)

나그네: 이게 무슨 짓이오? 약속을 지키지 않고.....

호랑이: 하하하, 괘 짝 속에서 한 약속을 괘 짝 밖에 나와서도 지키라는 법이 어디 있어?-해체(3)

나그네: 조금 전에 은혜를 모를 리가 있겠느냐고 하면서 애걸복걸하지 않았소?

호랑이: 은혜를 모르기는 사람이 더하지. 그러니까 사람은 보는 대로 잡아먹어도 괜찮아.

(중략)

나그네: 소나무님, 소나무님! 당신도 보셨으니까 사정을 아시지요? 호랑이가 옳습니까, 제가 옳습니까?-합쇼체(4)

소나무: 물론 호랑이가 옳지. 사람들은 은혜를 몰라. 내가 맑은 공기를 마시게 해 주는데도 마구 꺾지를 앓나, 베어 버리지를 앓나....호랑이야, 얼른 잡아먹어 버려라.-해라체

(중략)

나그네: 아니지요. 내가 호랑이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호랑이가 괘 짝에 갇혀 있었는데 내가 살려 주었어요.-해요체(5)

토끼: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랑이하고 당신이 이 괘 짝 속에 갇혀 있었다고요?

(중략)

호랑이: (답답한 듯이 화를 내며) 아이고, 답답해.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지? 이 괘 짝 속에는 내가 있었어, 내가!

토끼: 그랬습니까? 호랑이 속에 꾀짝이 갇혀 있었다고요?

(중략)

호랑이: (놀라서 말을 못한다.).....

나그네: (토끼를 쫓아가며) 토끼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합쇼체(6)

호랑이: (꾀짝 문을 차고 흔들면서) 나그네님, 이번에는 정말 잡아먹지 않을 테니 한 번만 더 살려 주십시오. 토끼님, 토끼님! 은혜를 잊지 않을 테니 제발 살려 주십시오.

나그네는 호랑이와의 대화에서 하오체(2)를 사용하면서 등장하고 이야기의 진행 중에 주로 하오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소나무에게 종결어미를 ‘ㅂ니다, -ㅂ시오’로 바꾸어 합쇼체(4)를 사용한다. 반면 토끼에게는 해요체(5)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러다가 토끼가 문제를 해결해 주자 토끼에게 합쇼체(6)까지 사용한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종결어미를 바꾸는 모습은 호랑이에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즉 호랑이는 자신이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에는 나그네와 토끼에게 ‘님’이라는 존칭을 붙여 부르며 합쇼체(1)를 사용하다가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에서는 해체(3)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4학년 1학기 국어 나』 8단원에 <은 세 근에 담긴 이야기><sup>102)</sup>가 제시되어 있는데, 노극청이 현덕수에게 계속 합쇼체를 사용하다가 마지막에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관철시키려는 부분에서 하오체를 사용한 예도 있다.

(전략)

노극청: 허허, 평생 나를 얹치없는 사람으로 만드시렵니까?

(대꼬챙이(노극청)이 남자가 정색을 하며 말하였다. 썬빛 얼굴(현덕수)의 남자도 지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극청: 정녕 안 받으시겠습니까?

현덕수: 사내대장부가 한 입으로 두말하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이내 결심한 듯 노극청이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노극청: 내 평생 옳은 길이 아니면 가지를 앓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집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재물을 탐내는 짓을 할 수 있겠소. 그때가 끝내 고집을 피운다

102) 임영진(2007), 어린이를 위한 청백리 이야기, 어린이.

면 집값을 다 드릴 터이니 집을 돌려주소.  
(하략)

여기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노극청이 현덕수에게 계속 합쇼체를 사용하다가 마지막에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관철시키려는 부분에서 ‘팽팽한 긴장감’ 속에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하오체를 사용한 것이다. 이처럼 화계를 변경함으로써 화자와 청자의 관계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느끼게 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특별히 강조하지 않더라도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분위기 설명을 통해 모어 화자인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은 화계의 변화와 함께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달라졌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되어 각 화계가 갖는 용법을 저절로 습득된다.

이것은 비슷하거나 낮은 지위의 사람에게 주로 쓰는 형식을 유표적으로 씌으로써 대화 참여자 사이의 지위 관계를 분명히 나타내려는 과정에서 청자는 권위감과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정복, 2012:58)을 이용한 일종의 전략이다. 이러한 것에 대한 교육을 따로 하지 않아도 모어 화자인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은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분위기 설명을 통해 화계의 변화와 함께 화자와 청자의 관계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어 각 화계가 갖는 용법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 『국어 6-1 나』의 〈원숭이 꽃신〉에서도 전략적인 용법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동물을 의인화 한 것이어서 신분, 지위 등에 대한 정보는 없지만 등장인물 오소리가 원숭이에 대해서 처음에는 합쇼체(1)를 써서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다가도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해지자 하오체(3)로 화계를 낮춘다.

이 변화는 짝을 이루어 오소리의 상대인 원숭이에게도 그대로 나타난다. 즉 처음에는 오소리에 대해 하오체(2)를 사용하다가 자신의 처지가 어려워지고 오소리에 대해 부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결국 합쇼체로 말을 바꾸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오소리와 원숭이의 관계의 변화에 따라 사용하는 화계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처음에 오소리는 원숭이에게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고자 ‘일부러’ ‘나리’라는 호칭어에 합쇼체(1)를 사용한다. 여기에 원

송이도 하오체(2)로 대응한다. 자신을 상대방보다 위에 두고 있으면서도 상대를 어느 정도 대우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꽃신을 선물 받자 곧바로 합쇼체로 말이 바뀌지만(“왜 저에게 주십니까?”(3)) 다시 하오체(4)로 돌아온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어 원송이가 오소리에게 꽃신을 부탁해야 하는 처지가 되자 그동안의 하오체에서 합쇼체(5)로 바뀐다. 그러자 상대인 오소리도 합쇼체를 사용하던 말투가 하오체(6)로 바뀐다. 이처럼 하오체의 존재는 언어사용 맥락이 바뀌고 화자와 청자의 어떤 형태로든 힘의 우위가 바뀌는 상황을 상대높임법의 화계를 바꾸는 것으로 잘 나타내줄 수 있게 한다.

(전략)

(‘음, 어떻게 하면 원송이 마을의 먹이를 몽땅 빼앗아 먹을 수 있을까.’ 오소리는 집에서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오소리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피가 떠올랐는지 손뺑을 치면서 침을 꼴딱 삼켰다.)

오소리: 원송이 나리, 단잠을 깨워서 죄송합니다.-합쇼체(1)

(오소리는 점잖게 머리를 숙이며 말하였다.)

원송이: 오, 난 또 누구시라고, 오소리 영감이 아니오?-하오체(2)

(원송이는 겉으로는 반겼으나 속으로는 오소리가 먹이를 빼앗으려는 것 같아 의심이 되었다. 원송이는 정신을 바짝 차렸다.)

오소리: 원송이 나리,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작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오소리: 야, 꽃신을 신으니까 정말 점잖고 훌륭해 보이십니다.

원송이: 오소리 영감이 신지 않고 왜 저에게 주십니까?-합쇼체(3)

오소리: 아이고, 저에게 이렇게 좋은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 손으로 만드는 것이니 앞으로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원송이: 고맙기는 하지만, 무엇으로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하오체(4)

(중략)

원송이: 아이고, 오소리 영감, 마침 잘 오셨습니다. 발이 아파서 못 건디겠으니 꽃신 한 켤레만 더 주시오.

(원송이가 애타는 얼굴로 바라보자, 오소리는 예전과 다르게 거만한 태도로 대답하였다.)

오소리: 도와 드릴 수 있지만, 언제까지나 공짜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합쇼체

원송이: 예, 알겠습니다. 저, 갚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드릴까요?-합쇼체(5)

오소리: 아주 쌔니다. 다섯 송이만 주시오. 여기 꽃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중략)

원숭이: 오소리 영감 계시오?-하오체

오소리: 거, 누구요? 지금은 낮잠 자는 시간이니 좀 기다려 주시오.-하오체(6)

오소리: 원숭이 나리, 어떻게 오셨소?

원숭이: 꽃신이 다 낚아서 새 꽃신을 구하러 왔습니다.-합쇼체

오소리: 꽃신요? 요새 꽃신 값이 올랐습니다. 갓을 열 송이만 주시오.

(중략)

원숭이: 신을 새로 사야 하는데 갓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합쇼체

오소리: 도와 드리지요. 이렇게 합시다. 일 년에 꽃신 네 켤레를 드리겠소. 갓은 가을에 가서 받기로 하지요. 그 대신 갓을 오백 송이만 주시오.

(원숭이는 기가 막혔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화계의 변화를 가져와 자신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은 ‘전략적’이다. 화자와 청자와의 사이에서 상황의 변화에 따른 화계를 달리 사용하는 것은 한국어의 청자높임법이 가진 여러 단계의 화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격식체의 화계를 합쇼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의 4단계를 유지함으로써 화계의 변화로 다양한 ‘전략적 용법’을 구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국어 학습자는 이러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한국어에 대한 문화적 문식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하오체의 청유형 종결어미인 ‘-ㅂ시다’는 한국어교육에서 종결어미의 하나로 학습하는 항목인데 보통 초급에서 다루는 교수요목이다. 그런데 모어 화자들은 ‘-ㅂ시다’를 사용할 때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즉, 자신보다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청자가 개인일 때는 ‘-ㅂ시다’대신 ‘-르까요’를 많이 사용하는 것 등이다. 이를 정확하게 모르는 학습자들의 ‘-ㅂ시다’ 오용이 자주 지적되기도 한다.

나은미(2002)의 청유형 종결어미 ‘-ㅂ시다’의 명령 화행에 관한 연구에서 ‘-ㅂ시다’의 의미를 분석하면서 전형적인 청유의 화행을 수행하는 조건은 격식적인 상황에서 화자와 청자의 친분이 없으며 청자가 화자보다 아랫사람이거나 동년배일 경우라고 하였다. 그리고 ‘-ㅂ시다’가 명령 화행으로 수행되는 상황에서 화자와 청자의 관계는 힘의 불균형 관계나 이해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하오체’가 갖는 사용의 제약이나 청유 화행과 함께 명령 화행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하오체가 갖는 속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하오체가 갖는 고유한 언어 사용 맥락은 외국인 학습자들에게는 특별히 가르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다. 이러한 사용 맥락을 알고 있으면 때에 따라 의도적,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4.3.2 시간적으로 과거임을 나타내는 표지

모어 화자들은 어떤 텍스트에서 하오체·하계체가 쓰인 것만 봐도 해당 텍스트의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과거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시대 배경이 과거이거나 등장인물의 신분과 지위를 나타낼 필요가 있을 때 하오체·하계체가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즉, 하오체·하계체의 전략적인 용법의 하나로 자신이 표현하려는 텍스트가 과거를 배경으로 한 것임을 드러내는 ‘표지’로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과거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할 때 사용한다.<sup>103)</sup> 즉, 하오체·하계체 사용이 당연시되는 시대극이 아닌 현대를 시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라고 해도 주인공이 ‘과거’와 관련된 사람이라는 것을 ‘하오체’를 통해 표현하는 것이다.

이는 모어 화자들이 하오체·하계체가 ‘과거’를 나타내는 표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따라서 그것을 문화적 문식성의 하나로 보았다. 이러한 사용 양상을 첫째, 전래 동화와 설화 둘째, 번역 셋째, 민요 마지막으로 광고의 순서로 살펴보겠다.

##### 4.3.2.1 ‘과거’를 나타내는 텍스트

하오체·하계체는 그것이 쓰인 시간 배경이 ‘과거’일 때 그것을 드러내는 장치로 사용된다. 예를 들면 유치원 표준교육과정인 누리과정과 연계된 전래 동화를 들 수 있다. 전래 동화는 말 그대로 오래전부터 전해져온 이야기이므로

103) 보통 사극에서 하오체·하계체가 사용되는데 매년 사극이 드라마와 영화로 십 수편 제작되고 있으므로 많은 예가 있다.(2016년 드라마 7편, 영화 3편 제작) 이 가운데 가장 최근에 방송된 (2017.08.12.~2017.10.01.) tvN 드라마 <명불허전>에서 조선시대의 인물과 현대의 인물이 주인공으로 과거와 현대를 오가며 공존하며 등장하는데, 과거의 인물인 ‘하임’은 하오체로 이야기 하고 현대의 인물인 ‘연경’은 해오체를 사용하고 있다.



당연히 시간 배경이 ‘과거’이다. 따라서 과거를 상징하는 하오체·하계체가 쓰이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전래 동화는 물론 창작동화에서도 ‘과거’를 배경으로 한 텍스트에는 하오체·하계체를 사용하고 있다. [표 5 참조]

특히 초등학교 5학년 『국어활동 5-1 가』에 수록된 〈깽깽이꾼 이야기〉는 김기정 작가의 2013년 창작동화 『조선에서 가장 재미난 이야기꾼』을 출처로 하고 있다. 이 창작동화는 조선 후기 ‘전기수’에 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깽깽이꾼 이야기〉 그 중 두 번째에 수록된 작품이다. 작품의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략)

열 살 남짓에 깽깽이를 배워 십 년쯤 하니, 못 내는 소리가 없었구려. 온갖 짐승 소리 흉내를 내는데, 듣는 사람들이 흥에 겨워 아주 신기해하기까지 했다오.

(중략)

“그 자린 오래오래 내 앓던 자린데 비켜 줄 수 있소?”

“댁이 이 자리를 세내셨소?”

이 작품은 조선 후기를 시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에 걸맞게 글의 지문이 모두 하오체로 되어 있다. 시간적인 배경이 ‘과거’에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치로 하오체·하계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화계가 아니라면 도저히 그 맛을 살려낼 수 없다. 하오체·하계체는 이 작품에서 ‘조선 시대’라는 ‘과거’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전기수’를 특징짓는 중요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당대의 유명한 ‘전기수’와 역시 상당한 기량을 갖추 해금수인 주인공 ‘깽깽이꾼’은 서로 하오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등장인물들이 각자 자신의 ‘관록’을 보여주는 장치로써 하계체보다 하오체가 더 나은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한국의 전통 문화를 나타내는 텍스트나 고전 문학 작품에는 예외 없이 하오체·하계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설화로는 〈아기장수 우투리〉, 〈서동과 선화공주〉, 〈화왕계〉, 〈소별왕 대별

왕> 등이 있다.

모어 화자들은 교과서에 수록된 이 같은 텍스트를 통해 하오체·하계체는 ‘과거’를 나타내는 표지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 그래서 3장에서 설명한대로 한국의 전래 동화이든 외국의 <별거벗은 임금님>과 같은 동화이든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의 신분이 ‘왕’과 ‘신하’이라면 모어 화자들은 하오체·하계체의 사용이 자연스럽다고 여긴다.

그 결과 어린이를 위한 창작 동화에서도 ‘왕’이 등장하는 이야기 속에서는 하오체·하계체를 찾아볼 수 있다. 김송하(2012)의 창작 동화 『나홀로 왕과 나바빠 왕』<sup>104)</sup>에 등장하는 ‘나바빠 왕’과 ‘모든지’의 대화에서 ‘나바빠 왕’은 ‘모든지’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봐, 모든지. 제발 저 앵무새 좀 팔아 주게.

어서 오게. 그런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도 못 나누겠군.

‘왕’이 하계체를 사용함으로써 이를 읽는 모어 화자는 ‘모든지’가 왕을 도와주는 ‘신하’로 그려진 것을 알아차린다.

#### 4.3.2.2 번역

교과서에 수록된 하오체·하계체를 사용하고 있는 텍스트들 가운데는 외국 작품을 번역한 것도 여럿 있다. 초등 국어교과서 『국어활동 5-2 나』의 <베니스의 상인>, 『국어 활동 6-2나』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개가 남긴 한 마디> 등이다. 중등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는 번역 텍스트로는 <코르니유 영감의 비밀>, <목걸이>, <고향> 등 동서양의 문학작품에서 <반지의 제왕>, <빌헬름텔>과 같은 영화와 희곡, <만화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만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는 세계 각국의 ‘고전 작품’ 번역에도 시대 배경이 과거이거나 등장인물의 신분을 나타낼 필요가 있을 때 하오체·하계체가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모어 화자들은 하오체·하계체가 쓰인 것으로 텍스트의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과거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고 등장인물과의 관계를

104) 김송하 글, 손정현 그림(2006), 『나홀로 왕과 나바빠 왕』, 한국해밍웨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외국어로 된 작품들은 번역할 때는 물론이고 한국의 한문 텍스트를 번역(국역)하는 경우에도 하오체·하계체는 매우 유용한 장치가 된다. 과거 한국의 글쓰기가 한자로 이루어졌던 시기의 많은 저작물을 봐야하는 유학생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 한자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국가의 학습자들도 관심을 둘 수 있는 분야이다.

이러한 예를 들어보면 앞서 3장에서 살펴본 초등학교 교과서 『국어 3-1 나』에 실려 있는 〈백영숙을 보내며〉이다.

나의 벗 보계나.

예전에 내가 지낼 곳을 자네와 같이 보러 간 일이 있었는데, 기억하는가?

(중략)

노루는 갑자기 우리 앞으로 튀어나와 서둘러 달아나지 않았나?

(중략)

그때 나를 바라보며 웃던 자네의 모습이 떠오르네.

내가 산에서 사는 것을 걱정하던 자네가 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산에 들어가 살겠다고 해서 놀랐네. 산은 외파로 떨어져 있고 험한 곳이라 걱정이 많이 되네. 그저 나는 자네의 뜻을 장하게 여기고 걱정하지 않기로 하였으니 부디 건강히 잘 지내게.

이 텍스트의 원문은 박지원(朴趾源)의 증백영숙입기린협서(贈白永叔入麒麟峽序)이다. 『국어 3-1 나』의 〈백영숙을 보내며〉 부분의 원문과 한국고전종합 DB105)의 번역문은 다음과 같다.

永叔嘗爲我(영숙상위아)

相居於金川之燕巖峽(상거어김천지연암협)

영숙이 일찍이 나를 위해서 금천(金川)의 연암협(燕巖峽)에 집터를 살피 준 적이 있었는데,

(중략)

小輿逸於前(소장일어전)

노루 새끼가 바로 앞에서 달아났다.

(중략)

---

105) <http://db.itkc.or.kr/>

仍相視而笑曰(잉상시이소왈)  
 나를 쳐다보고 웃으며,  
 人生不百年(인생불백년)  
 安能鬱鬱木石居(안능을을목석거)  
 食粟雉兔者爲哉(식속치토자위재)

“인생이 백 년도 못 되는데, 어찌 답답하게 나무와 돌 사이에 거처하면서 조 농사나 짓고 꿩·토끼나 사냥한단 말인가?”했었다.

今永叔將居麒麟也(금영숙장거기린야)  
 負犢而入(부독이입) 長而耕之(장이경지)  
 이제 영숙이 기린협에 살겠다면 송아지를 등에 지고 들어가 그걸 키워 밭을 갈 작정이고, 된장도 없어 아가워나 담가서 장을 만들어 먹겠다고 한다.  
 (중략)

吾壯其志而不悲其窮(오장기지지불비기궁)  
 나는 오히려 그의 뜻을 장하게 여길망정 그의 궁핍을 슬피 여기지 않는 바이다.  
 (이상 한국고전종합 DB의 燕巖集卷之一 潘南朴趾源美齋 著 / 煙湘閣選本○序)

한국고전종합 DB의 번역문과 초등 교과서의 번역문을 비교해보면 하계체 사용 횟수에서 차이가 난다. 교과서에는 연암 박지원이 쓴 편지의 원문을 어린이용으로 번역하면서 글의 갈래가 ‘편지’임을 고려하고 연암 박지원과 백동수의 나이와 관계<sup>106)</sup>를 알 수 있도록 전체 문장의 종결어미를 하계체로 번역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같은 원문이어도 번역(국역)하는 과정에서 역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는 많다. 예를 들면 여러 교과서에 수록된 이덕무의 <사소절-언어 편>의 경우 『조선 지식인의 말하기 노트(2007)』<sup>107)</sup>를 인용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하계체를 사용하여 번역(국역)한 부분을 조희정(2013)에서는 하오체로 번역하기도 하였다.

與衆人坐 欲言故事 或異聞 必拈大略 先向人曰 某事云云 諸君聞之否 人若已

106) 연암 박지원(1737~1805)이 아내 백동수(1743~1816)보다 6살 더 많음. 영숙은 백동수의 자이다. 연암 박지원은 양반이고 아내 백동수는 서얼 출신이라 반말로 하대할 수 있지만 연암과의 관계가 돈독했음을 보여주는 장치로 ‘하계체’로 번역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07) 고전연구회 사암, 한정주, 엄윤숙 지음(2007), 포럼.

聞 只舉其要語 驗其異同而已 不可重言其首尾 以犯支離之戒. 『士小節』 卷之一 士典 言語.

여러 사람과 함께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먼저 듣는 사람을 향해 “이런 사실을 들은 적이 있는가?”하고 먼저 물은 뒤, 중요한 내용만을 말하는 것이 좋다네. <조선 지식인의 말하기 노트 2007>

여러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옛날 일이나 신기한 이야기를 말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먼저 여러 사람에게 그 대략을 들어, “아무 일은 이러이러한데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었소, 못 들었소?” 하고 물어 보아서, 만약 남들이 이미 들었다고 하면 다만 그 요점만 들어서 그 다르고 같은 점을 시험할 따름이지, 거듭 그 시종을 말하여 지루하게 경계를 범하여서는 안 된다(조희정 2013).

이처럼 같은 원문이라도 번역자에 따라서는 텍스트의 여러 맥락을 고려하여 하오체나 하게체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도 하오체·하게체가 가진 ‘전략적 사용’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다음은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나오는 <호동왕자와 낙랑공주(송종호 역)>도 번역(국역) 과정에서 하오체를 사용한 예이다.

(전략)

낙랑국 임금 최리: (호동 왕자에게) 그때의 얼굴을 보니 고구려 왕의 아들임을 알 수가 있겠구려. 나와 함께 우리나라에 가서 잠시 지내지 않겠소?

최리: 귀한 손님이 왔으니 내 보잘 것 없는 딸을 불러 시중을 들게 하고 싶소.

호동 왕자:(낙랑 공주에게) 내가 고구려로 돌아가 준비를 마치는 대로 당신을 부르겠소.

여기에서도 등장인물이 ‘고구려 왕의 아들’, ‘낙랑국 임금’이라는 신분과 장래 사위가 될 관계를 의식한 번역자의 번역(국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한문을 번역한 또 다른 예로 조선시대의 한어 학습교재였던 <노걸대>와 관련된 연구를 들 수 있다. <노걸대>는 고려 말에 편찬되어 조선 초기에 간행된 외국어(한어) 학습용 교재로 원본이 현전하며 여러 판본이 존재한다. 조선시대 약 450년간 사용되었던 한어교재로 훌륭한 회화교재였다(정광 2007). 이 책은 스토리가 있는 것으로 <노걸대>를 처음으로 주해한 정광(2004)에서

는 여러 편의 장면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 가운데 일부를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 고려인과 한인(漢人) 상인의 만남

제1화 어디서 왔소?

제2화 한어 공부(1) 누구에게 무엇을 공부하였소?

제3화 한어 공부(2) 어떻게 배웠소?

제4화 한어 공부(3) 무엇하러 한어를 배우는가?

제5화 한어 공부(4) 스승은 누구였소?

제6화 동행(1) 동행합시다.

제7화 동행(2) 대도의 물가

제8화 동행(3) 오늘밤은 어디서 묵어요?

제9화 말먹이 값은 얼마?

제10화 비단과 무명 값

제11화 대도에서 얼마 묵겠소?

제12화 동행 세 사람은 누구인가?

이와 같이 한문으로 된 책을 역주를 달아 번역하는 과정에서 각 장면의 제목에 하오체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많은 한문 자료를 번역하는 경우에 하오체·하계체를 사용하는 것은 모어 화자로서 매우 자연스럽다.

이 연구에서는 이문열 평역(1988)의 <삼국지><sup>108)</sup>에서 하오체·하계체가 사용된 양상도 일부 살펴보겠다. 삼국지는 평역자의 말에 의하면 ‘세월이 가면 똑같은 내용이라도 표현하는 방식과 이해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이제 이 땅에서 번역되거나 재구성된 삼국지는 대개가 한 세대 가까이 오래된 것이 됐다. 삼국지가 이 이상 더 읽혀서는 안 될 책이라면 모르되, 그게 아니라면 이 작업은 이 시대의 누군가가 해야 하였다.(하략)’라고 스스로 그 의의를 말한 적이 있다. 다음은 <삼국지 2권, p.11-19>에 나오는 관우, 장비가 대화하는 장면이다.

(기병 조련 장소에서)

108) 1988년 10월 전10권으로 출판된 이래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100만 되었다. 지금까지 공식 집계된 판매부수는 1800만부이며 요즘도 해마다 20만~30만부가 나간다(2016년 1월 17일자 독서신문 인터넷 기사)

관우: (장비에게) 장비, 대낮부터 웬 술인가?-하계체(1)

(장비 대답 없이 깃대를 부러뜨린다. 이에 놀란 관우가)

관우: 이놈, 이게 무슨 짓이냐?-해라체(2)

장비: 형님, 다 치우시오. 이따위 짓이 무슨 소용이오?-하오체(3)

관우: 그건 또 무슨 소리냐? 어지러운 천하와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고자 힘을 기르는 것이어늘 내가 그걸 몰라 묻느냐?

장비: 그래, 이 3천 군사를 길러 무얼 하시겠단 말씀이오? 이 보궁수와 거기 선 마궁수를 이끌고 태산에 들어가 산채라도 여실 작정이오?

(중략)

관우: 먼저 형님의 뜻을 알아야겠네.

장비: 만약 그게 내가 본 대로라면 어떻게 하시겠소?

관우: 깨우쳐 드려야지.

장비: 그래도 듣지 않으시면?

관우: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네. 하지만 내 짐작엔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거네.

(하략)

손위인 관우는 아우인 장비에게 하계체(1)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따금 꾸짖을 때는 해라체(2)를 사용한다. 그리고 손아래인 장비는 관우에 대해 하오체(3)를 사용하여 높이고 있다. 이문열 평역의 <삼국지>는 중국의 <삼국지 연의> 모종강 본을 번역한 것이므로 당연히 중국어인 한문을 번역한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상대높임법이 그다지 발달하지 않은 외국어 ‘중국어’의 한문으로 된 대화를 번역할 때에도 한국어 모어 화자는 등장인물들의 규범적인 사용 맥락을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 검토하고 전략적인 사용에 대한 고려를 하여 다양한 화계를 사용한다.

위에서 살펴본 여러 예를 통해 원문 텍스트에 어떤 종결어미를 사용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은 ‘과거’라는 시간과 당대의 신분을 반영하기 위한 번역하는 사람의 일종의 ‘전략’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예는 중등 국어교과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지학사\_방민호의 중학 4(2학년 2학기)의 1단원(더 읽을거리)에서 헤르만헤세의 소설 <나비>가 ‘~네’ 등으로 끝나는 구어체의 하오체로 서술되어 있는 것에 비해 신사고\_민현식의 교과서에서는 같은 소설에서 ‘~다’로 끝나는 문어체의 ‘다체’로 서술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역자가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어떤 종결어미를 사용할 것인가 고려하는 것이다. 원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상대높임법을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번역하는 사람이 갖는 모어에 대한 문화적 문식성이 있기 때문이고 이때 하오체·하계체의 존재는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하면 ‘합니다체’, ‘해요체’, ‘해체’, ‘해라체’ 4가지 높임법만으로는 살릴 수 없는 인물들과의 관계를 표현해 낼 수 있는 문화적 문식성이 하오체·하계체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번역을 목표로 하는 한국어학습자라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이다.

#### 4.3.2.3 민요

한편 시간 표지로서 하오체·하계체의 역할은 민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민요를 새롭게 창작하여 부르거나 광고로 만드는 과정에서 하오체·하계체를 사용하여 오랜 세월을 걸쳐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불러 전해오는 노래의 특징을 살리는 것이다. 민요는 전통적인 운율과 쉬운 리듬, 가사로 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다. 민요는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알 수 없으나 각 지역 사람들의 노동, 생활, 놀이 등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기쁨과 슬픔의 감정과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어 중학교 교과서에도 수록되어 있는 아리랑은 한민족의 대표적인 민요로 2012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유네스코의 소개에 의하면 아리랑은 한민족의 가장 대표적 민요로서 널리 알려져 있고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아리랑은 강원도의 ‘정선 아리랑’, 호남 지역의 ‘진도아리랑’ 경상남도 일원의 ‘밀양아리랑’ 등 3가지이다. 유네스코 홈페이지에 소개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대표적인 민요인 아리랑은 역사적으로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한국의 일반 민중이 공동 노력으로 창조한 결과물이다. 아리랑은 단순한 노래로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라는 여음(餘音)과 지역에 따라 다른 내용으로 발전해온 두 줄의 가사로 구성되어 있다. 인류 보편의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는 한편, 지극히 단순한 곡조와 사설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흥적인 편곡과 모방이

가능하고, 함께 부르기가 쉽고, 여러 음악 장르에 자연스레 수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아리랑’이라는 제목으로 전승되는 민요는 약 60여 종, 3,600여 곡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간의 창의성, 표현의 자유, 공감에 대한 존중이야말로 아리랑이 지닌 가장 훌륭한 덕목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누구라도 새로운 사실을 지어 낼 수 있고, 그런 활동을 통해 아리랑의 지역적·역사적·장르적 변주는 계속 늘어나고 문화적 다양성은 더욱 풍성해진다. 아리랑은 한민족 구성원들에게 보편적으로 애창되며 사랑받고 있다. 그와 동시에 각 지역 사회와 민간단체 및 개인을 포함하는 일단의 지방 민요인 아리랑 전수자들은 해당 지방 아리랑의 보편성과 지역성을 강조하면서 대중화와 전승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아리랑은 또한 영화·뮤지컬·드라마·춤·문학 등을 비롯한 여러 다양한 예술 장르와 매체에서 대중적 주제이자 모티프로 이용되어 왔다.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한민족을 하나로 묶고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힘을 가진 아리랑은 심금을 울리는 한민족의 노래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아리랑, 한국의 서정민요 [Arirang, lyrical folk song in the Republic of Korea] (유네스코한국위원회(번역 감수))

이러한 아리랑을 새롭게 바꾸어 대중들에게 알린 것으로 ‘밀양 아리랑’이 있다. 밀양 아리랑의 원래 가사는 다음과 같다.

#### 〈밀양 아리랑〉

(후렴)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아리랑 고개로 날 넌겨주소

1.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2. 정든 님이 오셨는데 인사를 못 해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방긋
3. 남천강 굽이쳐서 영남루를 감돌고 벽공에 걸린 달은 아랑각을 비추네.
4. 영남루 명승을 찾아가니 아랑의 애화가 전해 있네.

[네이버 지식백과] 밀양아리랑 (한국민속문학사전(민요 편), 국립민속박물관)

그런데 아리랑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하여 밀양아리랑을 2013년에 플래시몹<sup>109)</sup> 버전으로 새롭게 만든 것이 큰 반향을 일으켰다.

밀양교육지원청에서 밀양 학생들에게 밀양아리랑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즐기면서 체험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밀양아리랑 플래시몹 버전을 개발하고 보급하게 된 것이다.

〈밀양아리랑(플래시몹버전)〉<sup>110)</sup>

(후렴) 아리 아리랑 쓰리 쓰리랑 아라라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1 절)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선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후렴) 아리 당닥궁 스리 당닥궁 아라라가 났네. 아리랑 어절시구 잘 넘어간다.

(후략)

특히 ‘밀양아리랑 꿈나무 노래자랑’을 통해 창의적인 가사를 얻어 편곡에 반영하였는데 그 부분은 다음과 같다.

5절 책 좀 보소. 책 좀 보소. 책 좀 보소. 스마트폰 보듯이 책 좀 보소.

6절 웃어 보소. 웃어 보소. 방긋 웃어 보소. 힘이 들고 어려워도 방긋 웃어 보소.

7절 사랑 하소. 사랑 하소. 모두 사랑 하소. 미워도 싫어도 모두 사랑 하소.

이것은 유네스코에서 아리랑을 설명한 ‘인간의 창의성, 표현의 자유, 공감에 대한 존중이야말로 아리랑이 지닌 가장 훌륭한 덕목 중 하나’라고 한 것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누구라도 새로운 사설을 지어 낼 수 있고, 그런 활동을 통해 아리랑의 지역적·역사적·장르적 변주는 계속 늘어나고 문화적 다양성은 더욱 풍성해진다.’고 한 것에 꼭 들어맞는 것이다.

밀양 아리랑의 사설에서 뿐만 아니라 밀양아리랑의 특징인 세마치장단과 신세대 학생들의 정서에 맞는 4박자를 접목하여 전통과 현재가 공존하는 밀

109) 플래시몹은 특정 웹사이트의 접속자가 한꺼번에 폭증하는 현상을 뜻하는 '플래시 크라우드(flash crowd)'와 '스마트 몹(smart mob)'의 합성어이다. 스마트 몹은 테크놀로지 분야의 권위자인 미국의 H.라인홀드가 2002년 출간한 같은 제목의 저서 《스마트몹 Smart Mobs: The Next Social Revolution》에서 처음 제시한 개념이다.

밀양아리랑 플래시몹은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1주년을 기념하여 2013년 12월 6일 4시에 전국 5개 권역 6개 도시(밀양-밀양역 광장, 서울-서울역 광장, 부산-부산역 광장, 대구-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화합의 광장, 울산-롯데백화점 광장, 창원-정우상가 앞)에서 진행되었다.

110) 김자경(노래), 강주원(작곡), 2013년 7월 예향 엔터테인먼트 발매.

양아리랑의 편곡을 완성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의 창의적인 춤동작을 분석하여 재구성하고 밀양 백중놀이의 범부춤 동작을 곁들여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유튜브를 통해 세계인들과도 함께 할 수 있어 ‘밀양아리랑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모어 화자들은 이렇게 민요를 통해 ‘공유하는 하오체·하계체의 가사(날 좀 보소)’를 ‘새롭게 창작(책 좀 보소, 웃어 보소, 사랑 하소)’하여 내어 놓고 있다.

#### 4.3.2.4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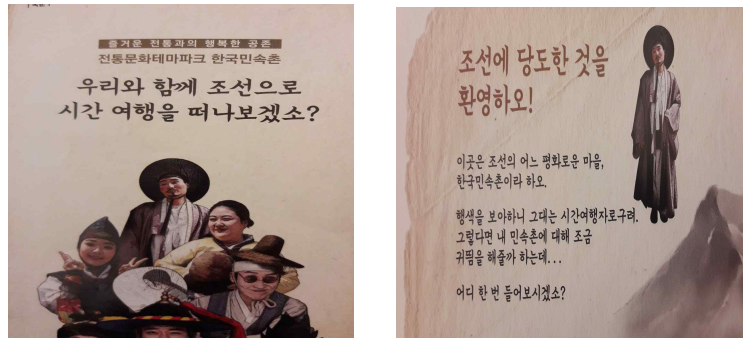
광고는 짧은 시간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강렬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한 사회의 문화를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매체이다. 외국인으로서 다른 나라의 광고를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광고를 외국인 학습자가 쉽게 이해하기는 매우 어렵다. 더구나 하오체·하계체를 사용한 광고를 이해하는 것을 더욱 어렵다. 하오체·하계체에 대한 문화적 문식성이 없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모어 화자들은 유치원 시기의 전래 동화 등에서부터 초·중 과정의 국어 교과서를 통해 하오체·하계체가 ‘과거’를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을 문화적 문식성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광고 속에 하오체·하계체를 사용하는 ‘전략’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광고에서 ‘과거’를 나타내는 ‘표지’로 사용하는 하오체·하계체의 예는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한국 민속촌’의 팸플릿을 살펴보겠다. 아래의 그림은 ‘한국 민속촌’의 안내 지도인데 팸플릿 제목과 설명에 하오체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 민속촌 광고에는 여러 ‘캐릭터 인물’들이 설정에 맞는 복장을 하고 있는 사진과 함께 ‘우리와 함께 조선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 보겠소’, ‘조선에 당도한 것을 환영하오’와 같은 광고 카피를 내세우고 있다.

이 광고에서 ‘하오체’는 한국 민속촌이 어떤 장소인지 바로 알 수 있게 하는 ‘한국 민속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하오체·하계체가 ‘과거’를 표시함과 동시에 ‘과거’가 갖는 독특한 ‘분위기’를 광고에 차용하려는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사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7] 하오체를 사용한 팸플릿-한국민속촌



하오체·하계체를 광고에 사용하는 예를 몇 가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민요를 이용한 광고는 현대의 모어 화자들에게도 독특한 느낌을 갖게 하여 광고 등에 이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꽃배달 업체의 광고에 <꽃타령>이 쓰였는데 꽃배달을 하는 업종에 딱 맞는 민요를 이용한 사례에 해당되어 그 화제성 때문에 신문의 기사에도 실렸다.<sup>111)</sup>

꽃 사시오~ 꽃을 사시오 꽃을 사!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에 꽃이로구나  
 꽃바구니 울러 메고 꽃팔러 나왔소  
 (중략)  
 꽃 사시오, 꽃을 사시오 꽃을 사!  
 가격 싸고 품질 좋은 꽃을 사시오 꽃을 사.  
 얼씨구, 3단 화환이 5만 구천원이라.  
 1800에 59000번이로구나.  
 장미꽃도 동양난도 꽃을 사시오 꽃을 사.  
 1800 59000번~~

이러한 광고의 예로 <사는게 니나노><sup>112)</sup>도 있다. 이 곡은 NHN엔터테인먼트의 간편 결제 시스템인 ‘페이코’ 애플리케이션을 광고할 때 사용되었는데

111) 헤럴드 POP(인터넷) 2015.3.3.일자 기사, 뉴스1Biz, 2015.3.21.일자 기사.

112) 2015년~2016년에 가수 지코, 이진아, 넬, 우쿨렐레 피크닉, 정밀야가 차례로 부른 곡이다. 각자 독특하고 개성 있는 곡으로 만들어 불러 네티즌들의 인기를 끌었다.

신세대 뮤지션들이 다양한 버전으로 불러 인기를 모으기도 했다. 이곡은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교학사)에도 실려 있는 경기 민요인데 여러 음악인들이 편곡과 개사로 특색 있는 곡으로 재해석하여 부르고 있다. 편곡을 하거나 가사를 바꿔 부르는 것도 변하지 않은 것은 ‘하계체’로 끝나는 가사이다.

짜증을 내어서 무엇 하나/성화를 받치어 무엇 하나  
속상한 일도 하도 많으니/놀기도 하면서 살아가세  
니나노 니나노 니나노 날리리야

이러한 예들은 모두 하오체·하계체가 ‘과거’를 의미하는 표지로 사용할 수 있고 광고 속에서 ‘과거’가 갖는 독특한 ‘분위기’가 모여 화자들에게 작용할 ‘효과’를 염두에 둔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사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하계체를 광고 카피에 이용한 예를 보겠다. 다음의 그림은 새해를 맞이하여 게시판 편의점 광고이다. 2018년이 ‘개’의 해라는 것과 하계체의 ‘계’가 음이 비슷하다<sup>113)</sup>는 점을 절묘하게 이용한 광고라고 할 수 있다. 열 두 띠 동물의 음을 상대높임법 하오체·하계체에 연결시킨 이러한 전략적 쓰임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즉 ‘개’의 해에는 하계체가 ‘소’의 해에는 하오(소)체가 광고 카피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8] 하계체를 이용한 광고



113) 한국어 모어 화자들의 현실 발음에서 ‘개’와 ‘계’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 4.3.3 시적 정서의 표지

만약 어떤 텍스트가 과거를 배경으로 하지 않았는데 하오체·하계체가 쓰였다면 다른 전략적 용법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하오체를 사용함으로써 화자의 상황을 특별한 느낌으로 전할 수 있다. 영화 번역가 황석기는 영화 <인사이드 르윈><sup>114)</sup>에서 ‘I’ve been all around this world.’를 ‘세상 구경 잘 하였소’로 번역하였고 스스로 가장 마음에 드는 번역이라고 하면서 ‘시적으로 자신의 삶을 응축한 표현’이라고 말하였다.

대중가요에서 부부 또는 연인을 대상으로 하는 가사에서 하오체를 사용하는 것은 상대를 예우하고 귀하게 여긴다는 느낌을 주고 예스러운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이 역시 하오체를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예가 될 것이다. 이처럼 하오체·하계체가 가진 속성을 학습하게 되면 외국인 학습자들은 전통 문화를 내용으로 하지 않는 텍스트에서 하오체·하계체가 사용된 경우에 그 표현이 갖는 독특한 의미와 분위기를 쉽게 알 수 있다.

다음은 최근 새로운 앨범을 발매한 대중가수 이승환에 대한 ‘스페셜 초대 이벤트 10억 광년의 신호 이야기’<sup>115)</sup>라는 인터넷 기사이다.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역시 사랑(LOVE)이다. 사랑의 기쁨이나 환희보다는 ‘어떻게 사랑이 그래요’, ‘천일동안’ 등 그리움과 슬픔의 정서가 두드러진 애절한 가사들은 그의 노래에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다. 이 같은 그리움의 정서는 상대방과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하오’, ‘아니되오’, ‘가지리오’ 등의 하오체의 사용으로 극대화 된다.

역시 대중가수에 대한 ‘소울스타, ‘하오체’ 가사로 이슈’<sup>116)</sup>라는 인터넷 기사에서 노래 가사로 ‘바람이 차오’, ‘눈물이 흐르오’ 같은 독특한 ‘하오체’ 가사를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자세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작사가 안영민은 “가슴 아픈 이별을 노래하는 ‘비극’의 분위기를 좀 더 애절하게 표현할 방법을 고민하다 연극체(하오체를 이야기하는 것임)를 사용해봤는데, 주

114) 인사이드 르윈(2013), 코엔 형제 감독,

115) 네이버 뮤직 스페셜, 2016. 4월.

<http://music.naver.com/promotion/specialContent.nhn?articleId=6822>

116) 조이뉴스 24, 2007. 6. 27

[http://joy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menu=700300&g\\_serial=268715](http://joy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menu=700300&g_serial=268715)



위 반응이 좋아 쓰게 되었다. 셰익스피어 작품이 가사를 쓰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고, 특히 ‘로미오와 줄리엣’이 ‘비극’의 느낌과 가장 잘 맞아 참고를 많이 하였다.”라고 밝혔다. 또한 소울스타는 “처음 녹음할 때 연극체 가사가 생소해서 어색하였는데, 나중에는 애절한 느낌이 저절로 와 닿아 곡의 느낌을 잘 살릴 수 있던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였다.

대중가요는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듣고 부르고 있어 가사에 하오체·하계체가 사용되어 있다면 그 효과는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큰 영향력이 있다. 그런데 아래의 예에서 보듯이 사람들에게 애창되고 있는 곡 가운데 하오체·하계체를 사용한 가사를 여럿 찾아볼 수 있다. 주로 전형적인 사용 맥락을 보이는 부부, 연인, 친구 사이를 나타내는 가사에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연인에게 노래하는 이승환의 〈구식 사랑(2010)〉, 아내를 향한 윤상의 〈사랑하오(2011)〉와 태진아의 〈아내에게(2016)〉가 있다. 김광석의 〈편지(1996)〉, 이승환의 〈당부(1999)〉, 강아솔의 〈그대에게(2012)〉는 각각 친구(벗)에게 전하는 노래이다. 이 가운데 가장 최근의 가요 〈아내에게〉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이 노래는 드라마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되었고 남편이 아내에게 하오체를 사용하고 있다.

〈아내에게(2016), 태진아, 드라마 부탁해요 엄마 OST〉

그댄 평생을 모두 바쳐서  
나만을 사랑해준 단 한 사람  
그 마음이 너무 깊어서  
이제껏 못 봤나 보오

이제 내가 그대를 위해서  
지난 날 갚으려 하는데  
뭐가 그리 그대는 바쁜지  
이 사랑을 이 사랑을 떠나려 하오

내 하나의 사랑 그댄 나의 전분데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대인데  
내 가슴이 무너져 내 가슴이 찢어져

그대를 볼 수가 없는데  
그대를 놓을 수가 없는데

그래 그댄 힘들었을 거야  
내 모든 걸 다 받아 주었었잖아  
그대 없이 나 혼자 어떻게  
이 세상을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이러한 예를 최근 출판된 도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017년 베스트셀러 도서 중의 하나인 이기주의 『언어의 온도』에서도 하오체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소재목으로 <여전히 당신을 염려하오>에서는 노부부의 이야기를, <어두운 밤을 받아들이지 마오>에서는 영화 <인터스텔라>에 인용된 시인 딜런 토머스<sup>117)</sup>의 시를 소개하고 있다.

순순히 어두운 밤을 받아들이지 마오  
노인들이여 저무는 하루에 소리치고 저항하시오  
분노하고 분노하시오 죽어가는 빛에 대해  
-〈순순히 어두운 밤을 받아들이지 마오〉 중<sup>118)</sup>

역시 저자는 하오체를 사용하여 ‘부부’ 사이에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나타냈고, 인용한 시에서는 하오체가 가진 ‘시적인 우아함’이나 ‘의고적인 분위기’를 표현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4.3.4 캐릭터 창조

3장에서 초·중등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소설 등 여러 문학 작품에서 하오체·하게체가 사용되고 있음을 보였다. 이는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캐릭터를 표현하는 장치로 쓰인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쓰임은 특히 소설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하오체·하게체를 사용한 작품에 대해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미래엔\_윤여탁 2학년 1학기 교과서 『중학 국어 3』에는 성석제의 <내가

117) 딜런 토머스(Dylan Marlais Thomas) 1930년대를 대표하는 영국의 시인.

118) 이기주 『언어의 온도』 p.255

그린 히말라야시다 그림>이 수록되어 있다. 이 소설에서 장가를 일찍 가서 아들이 10살(3학년)인 ‘30대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 학교 담임 선생님’이자 초등학교 동창인 친구를 졸업 후 십 수 년 만에 만나는 장면에서 서로 하계체를 사용하고 있다.

“자네는 공부를 잘하더니만 결국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군. 양복과 자전거가 잘 어울려. 어디 사는가?”

선생님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근처에 산다고 말하고는 아버지에게 아직도 그림을 그리느냐고 물었어.

“어 내 아들놈이 지금 열살이야. 난 아버님의 유언 때문에 그림을 포기한 대신 장가는 일찍 갔다네. 그 애가 그림에 재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래도 한때 그림을 좀 그렸던 사람으로서 재료는 좋은 걸 써야겠기에. 우리 형편에는 좀 과분하지만 이리로 온 걸세”

“그럼 자네 아들 이름이?”

“선규일세. 백선규.”

(중략)

이 소설은 2007년에 발표된 것으로 실제 구어에서는 30대인 친구 사이의 남자들이 서로 하계체를 사용하는 예는 거의 없음에도 작품 속에서 하계체를 사용하는 관계로 그리고 있다. 서로 친하지 않으며 거리를 두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비상\_한철우의 2학년 1학기 국어책에는 공선옥의 소설 <일가>가 수록되어 있다. 이 소설에서 형님뻘 되는 친척이 동생뻘 되는 이에게 하오체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는 하계체를 사용해도 될 사이인데 하오체가 사용된 것은 형님, 동생이라고 하지만 친형제가 아닌 그리 가깝지 않은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전략)

“나 때문에 제수씨가 집을 나간 게라면 정말 동생한테 미안하오.”

“아이고 형님, 그게 무슨 말이십니까.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 부부 싸움이란 것도 가끔 하게 되는 거고 애엄마가 집을 나간 것도 결코 형님 때문이 아니라…….”

“참말 미안하오, 동생.”

“형님 자꾸 그러시면 제가 들 낫이 없습니다.”

“하아, 내가 죄인이오.”

“아니라니까요, 형님.”

(하략)

선행 연구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대하소설 〈토지〉에서도 하오체·하계체가 나타나고 있고 개화기 신소설을 비롯하여, 1920년대 소설과 1970년대 소설, 〈삼대〉에서도 등장인물들의 대화체에 쓰였다.

다음은 또 다른 창작 동화 〈나그네가 된 나무와 나무가 된 나그네〉<sup>119)</sup>에서 등장 인물인 ‘나그네’, ‘길에서 만난 사람’, ‘철학자’, ‘나무’가 하는 다음과 같은 대화에서도 하오체·하계체를 볼 수 있다.

(길에서 만난 어떤 사람이 나그네에게)

길에서 만난 사람: 이 나라의 남쪽 끝에 가면 훌륭한 철학자가 있다네.

그에게 물어 보게.

(나그네와 철학자의 대화에서)

나그네: 우리가 가는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철학자: 이 길의 끝에는 아무것도 없다네.

(나무와 나그네의 대화)

나무: 나는 나그네가 되고 싶다오.

나그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나무: 나는 많은 세월을 한자리에만 붙박혀 살아왔다고. 새들이, 때로는 바람이 들려주는 세상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젠 그것들을 내 눈으로 보고 싶다오.

나그네: 그렇담 나랑 바꾸어 살면 어떻겠는가?

나무: 나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오랫동안 기다려 왔다오.

나무가 된 나그네: 3년 뒤 여기에서 다시 만나는 게 어떻겠는가?

나그네가 된 나무: 그건 무슨 뜻이지요?

나무가 된 나그네: 혹시, 당신의 마음이 변할지도 모를테니까 말이오.

나그네가 된 나무: 그러니까 마음이 변하면 다시 옷을 바꾸어 입자는 말인가요?  
당신을 위해서.

119) 권영상(2006), 한국대표 창작동화 9, 나그네가된 나무와 나무가 된 나그네, (주)계림닷컴.

나그네가 된 나무: 나도 당신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군요.

(중략)

나그네가 된 나무: 주무시고 계시나요?

나무가 된 나그네: 피곤한 당신의 몸에 시원한 힘을 불어넣을 준비를 하고 있다

오. 자, 이제 내 그늘에 앉아도 좋소.

나그네가 된 나무: 혹시 3년 전, 나그네가 되고 싶어 한 나무와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신지요?

나무가 된 나그네: 당신은 나무가 되고 싶어 한 나그네를 잊지 않으셨겠지요?

나는 나무가 된 뒤에야 비로소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깨달았소.

이 글에서 ‘길에서 만난 사람’과 ‘철학자’는 나그네에게 모두 하오체를 사용해서 이야기 하고 있다. 그리고 주요 등장인물인 나그네는 나무에게 해라체를 사용하고 나무는 나그네에게 하오체를 사용하고 있어서 현대 한국어의 화계 간 호응과는 잘 맞지 않는다(성기철 2007:151). 작가는 나그네의 상대가 ‘나무’라는 것을 고려하여 선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화계를 바꿈으로써 대화 참여자들 사이의 상황 맥락의 변화를 나타내도록 의도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어 모어 화자는 대화 상대자의 힘(지위)의 관계를 의식하면서 화계의 전형적인 사용을 넘어서 작품 속 인물들의 캐릭터를 설정하는 ‘전략적’ 사용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현대의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 나이를 생각하고 친분을 의식하며 공식적인 자리인지 아닌지를 고려하여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하계체는 보통 자신보다 나이 든 사람에게는 사용할 수 없지만, 결혼으로 연결된 인간관계에서는 자신 보다 나이 많지만 손아래인 사람에게 ‘하계체’를 사용할 수 있다. 지금도 경상북도 지방에서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여동생의 남편에게 ‘하계체’를 사용하기도 한다. 경어법 형식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의 거리 관계를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위 관계의 경우 높낮이의 값은 사회적으로 고정된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조정할 수가 없다. 어떤 지위를 더 힘 있는 것으로 인정할지의 문제가 남지만 이 또한 집단의 규범으로 대부분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화자가 적극적으로 조절할 부분이 없거나 적다. 이와 달리 거리 관계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외국의 작품을 번역할 때 등장인물의 관계를 설정하고 작품

의 분위기에 걸맞은 상대높임법을 선택하는 예로 신사고\_우한용『중학 국어 3』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신현철 역)>을 살펴보겠다.

설리번: “조너선, 자네는 이미 추방당한 새야. 어쩌서 전에 살던 세상의 갈매기들이 지금은 자네의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 자네도 이런 속담을 알 거야. ‘가장 높이 나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본다.’ 그게 진실이야. 자네가 떠난 세상의 갈매기들은 땅에서 자기들끼리 꺾꺾거리며 싸우고 있어. 그 새들은 천국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먼 곳에 떨어져 있어. 그런데 자네는 그 먼 곳에 있는 새들에게 천국을 보여 주고 싶어 하는군! 조너선, 그 새들은 자기 날개 끝도 보지 못하네! 여기 머물러 있게. 여기에서 새로운 갈매기들을 도와주게. 자네가 가르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높이 날아오르는 갈매기들을 도와줘.”

설리번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말하였습니다.

“만약 치앙이 전에 자기가 살았던 세상으로 돌아가고 없었다면 어떠하였겠는가? 지금의 자네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는가?”

이 텍스트를 읽는 모어 화자들은 설리번과 조너선의 관계를 ‘하계체’로 단번에 알 수 있다. 역시 ‘하계체’가 갖는 규범적인 사용을 알고 있고 그것으로부터 두 인물들의 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문화적 문식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 조사한 중등 국어교과서 수록 하오체·하계체 텍스트 가운데에는 영화의 시나리오, 드라마의 대본, 연극의 희곡이 모두 16편이고 중복 수록을 포함한 횟수로는 총 19회이다.[표 17 참조] 청소년들에게도 친숙한 드라마와 영화들의 여러 등장인물들이 하오체 또는 하계체를 사용하고 있다. 만약 하오체·하계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인물 표현이 매우 단조로울 것이다. 이것은 하오체·하계체를 사용하여 이야기의 시간 배경과 다양한 등장인물의 특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모어 화자들이 하오체·하계체에 대해 갖고 있는 문화적 문식성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모어 화자들에게 이러한 문화적 문식성이 있으므로 현대의 다양한 매체에서 생산되는 콘텐츠에 하오체·하계체를 적용하여 ‘캐릭터 설정’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현재 방송되고 있는 MBC 주말 드라마 <데릴남편 오작두>에는 주인공 ‘오작두’의 캐릭터를 살리기 위하여 하오체를 발화하게 한다. 즉 남자 주인공은 약초꾼으로 생활하며 순수하고 낙천적이며 착한 성격으로 등장한다.

특히 유일한 가족이었던 할아버지가 무형문화재로 최고의 악기장이자 산조 가야금 계승자였다. 이에 할아버지는 주인공 작두를 후계자로 키우고 싶어 했고 그 뜻에 따라 어린 시절부터 산속에서 오직 가야금만을 알고 살았던, 외부 세상과 단절된 캐릭터를 표현하는 장치로 ‘하오체’가 쓰이고 있다.

또 다른 예로는 최근 반려 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고양이와 지내는 모습을 유튜브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크림히어로즈’라는 콘텐츠가 있다. 이 콘텐츠는 7마리의 고양이를 기르는 ‘집사’가 모두 개성이 다른 고양이와 함께 살면서 생기는 갖가지 일들을 동영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국내 고양이 유튜브 채널 구독수 1위, 전체 조회수 1위의 인기 콘텐츠로 구독자가 100 만 명을 넘는다고 한다. 특히 ‘고양이 집사’가 고양이들을 보여주면서 재미있는 상황극을 펼치는 것이 인기 요인이라고 한다.<sup>120)</sup>

바로 이 ‘고양이 집사’의 입담에 등장하는 ‘모모’라는 고양이는 ‘회장님’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데 집사에게 ‘하계체’를 사용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하계체가 가진 전형적인 사용 맥락인 높은 직책의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사용하는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하계체를 사용함으로써 고양이에게 부여된 ‘회장님’이라는 캐릭터가 적절하게 살아나고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예에서 보듯이 한국어 모어 화자들이 어떤 텍스트를 생산할 때에 하오체·하계체를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하오체·하계체 습득 과정을 통해 얻은 하오체·하계체 문화적 문식성을 ‘의식’하여 표현해 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쓰임은 한국어의 상대높임법 화계 중에 하오체·하계체가 아닌 다른 화계로는 표현해 낼 수 없는 것이다.

120) 출처: 인터넷 사이트 ‘나무 위키’

’<https://namu.wiki/w/%ED%81%AC%EB%A6%BC%ED%9E%88%EC%96%B4%EB%A1%9C%EC%A6%88>



## V. 결 론

언어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사고를 형성하고 있다. 상대높임법을 사용하고 있는 한국인들은 늘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계, 사용 맥락에 따라 말하는 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는 에드워드 홀이 『침묵의 언어』(2013, 최호선 역)에서 이야기한 ‘무의식의 문화, 기층문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오체·하계체는 한국의 기층문화이며 ‘무의식의 문화’로서 현대 한국의 모어 화자들은 문화적 문식성으로 습득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 이주하여 살고 있는 특수 목적 학습자들은 이러한 기층문화를 충분히 학습해야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자녀를 기르는 결혼이민자들을 위해서는 문화교육의 목표를 유창한 한국어 구사는 물론 좋은 화법을 구사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담화표현과 언어예절, 지역 사회의 방언, 유행어, 신조어, 사자 성어, 속담에 이르기까지 언어 사용과 관련된 문화적 맥락까지 교수하는 것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황인교 2008).

바야흐로 한국어교육은 양적 성장을 이룬 것을 기반으로 질적 성장을 거듭해야 할 때이다. 그 방법의 하나로 한국어 모어 화자들이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는, 기층의 문화적 문식성의 하나인 한국어 상대높임법의 하오체·하계체 교육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에서 특수 목적 한국어 학습자들의 문화적 문식성 향상을 위하여 하오체·하계체의 문화적 문식성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먼저 1장에서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 사회에 정착하기 위하여서는 하오체·하계체의 문화적 문식성이 필요한 이유를 기술하였다. 그리고 하오체·하계체의 문화적 문식성 향상을 위한 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모어 화자들이 하오체·하계체를 공통 교육과정에서 접하는 텍스트로부터 습득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이에 유아를 위한 전래 동화와 초·중학교의 국어 교과서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선행 연구를 통해 하오체·하계체의 연구 현황, 화계로서의 위상, 하오체·하계체의 용법과 기능을 조사하여 하오체·하계체의 문화적 문

식성 고찰의 근거를 찾았다.

2장에서는 하오체·하계체의 문화적 문식성을 논의하기 위하여 먼저 문식성의 정의와 기능을 살펴보고 문화적 문식성 개념이 처음 나온 이후에 점차 그 개념이 확장 되어온 과정을 정리해보았다. 그리고 모어 화자가 어떻게 문식성을 발달시키는지 발달에 관한 이론도 알아보았다.

이어서 3장에서는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하오체·하계체에 대한 문화적 문식성을 도출하기 위한 자료로 한국의 공통 교육과정에서 학습하는 초·중등 국어 교과서에서 하오체·하계체가 들어있는 텍스트를 모두 찾아 목록으로 만들고 분류하여 정리했다. 그 결과 한국어 모어 화자들은 문식성 발달 초기부터 전래동요와 유아용 전래 동화로부터 하오체·하계체를 습득함을 알 수 있었다. 이어서 초·중 국어교과서에서 단계적으로 하오체·하계체 텍스트의 수와 종류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하오체·하계체의 문화적 문식성이 공통의 무교육과정을 통해 점차 확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장에서는 유아용 전래 동화와 초·중 국어교과서를 통해 정리한 하오체·하계체 텍스트의 구체적인 예를 통해 문화적 문식성을 세 가지로 고찰해보았다. 즉, 하오체·하계체의 문화적 문식성은 첫째, 전통 문화와 역사에 대한 지식 둘째, 하오체·하계체의 규범적 사용 셋째, 하오체·하계체의 전략적 사용으로 나누었다. 이처럼 나눈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모어 화자들은 하오체·하계체를 전통 문화와 역사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장치로 쓰고 있다. 이는 그것을 통해 ‘전통’과 ‘역사적 지식’을 잘 전달할 수 있다는 모어 화자의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 따라 하오체·하계체의 사용에 전형성을 보이는 규범적인 용법은 하오체·하계체가 가진 특유의 화용 맥락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은 하오체·하계체의 문화적 문식성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어 모어 화자는 상대높임법의 화계를 다양하게 가짐으로써 화자의 의도를 나타내주는 전략적인 용법을 사용하고 있다. 하오체·하계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타낼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모어 화자들은 하오체·하계체가 가진 전형성으로부터 캐릭터를 창조한다거나 특별한 분위기를 나타내는 ‘표지’로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 역시 하오체·하계체의 문

화적 문식성으로 보았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밝힌 것을 요약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 한국의 모어 화자들은 상대높임법의 하오체·하계체를 ‘말’보다 ‘글’로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둘째, 현대 한국의 모어 화자들은 유아기에 이미 하오체·하계체를 텍스트로 접하기 시작하며 문식성으로 습득하고 있다.

셋째, 상대높임법 하오체·하계체에는 한국의 모어 화자들이 공유하는 문화적 어휘와 지식, 화용 맥락이 내포되어 있고 그것은 한국의 문화적 배경 지식이므로 문화적 문식성이다.

넷째, 연구 대상 자료로부터 상대높임법 하오체·하계체의 문화적 문식성을 한국의 전통 문화와 역사에 대한 지식, 하오체·하계체의 규범적 사용, 하오체·하계체의 전략적 사용으로 보았다.

결론적으로 하오체·하계체는 말하는 상대를 위한 청자높임법의 하나이면서 동시에 한국의 전통 문화와 역사에 대한 지식, 언어생활에서의 여러 관습 등 문화적 문식성을 내포할 수 있는 ‘장치’이다. 그러므로 특수목적 한국어학습자들은 이것을 인식하고 학습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문식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한국사회에 살면서 문화적 갈등과 충돌을 줄이고 나아가 자신의 기저 문화를 바탕으로 한국 문화와 교류하고 기여하는 통로가 되기도 할 것이다.

한편 한국어 교육에서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까지 모색하지 못한 것은 이 연구가 가진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하오체·하계체가 문화적 문식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은 이 연구의 의의이다. 향후 모어 화자인 한국어 교사가 이를 ‘의식’하여 교육에 적용하기를 기대하며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오체·하계체의 문화적 문식성 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방법을 후속 연구를 통해 이어가려고 한다.

## 참 고 문 헌

- 고영근. (1974). 「현대국어의 준비법에 대한 연구」. 『어학연구』, Vol.10 No.2, 66-91.
- 국립국어원. (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1』. 커뮤니케이션북스.
- 권영상. (2006). 『한국대표 창작동화 9, 나그네가 된 나무와 나무가 된 나그네』. (주)계림닷컴.
- 글깨비. (2007). 『은혜 깊은 까치의 반전동화 아빠 구렁이가 가르쳐 준 교훈』. 글뿌리.
- 김동환. (2010). 「한국어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읽기텍스트 선정 전략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제39집, 133-167.
- 김동환. (2013). 「국어과 교과서의 문학 제재와 관련된 쟁점과 제안」, 『국어교육학연구』. 제47집, 43-67.
- 김송하 글. 손정현 그림. (2006). 『나홀로 왕과 나바빠 왕』. 한국해밍웨이.
- 김순란·김정미. (2004). 「3-4세 일반아동의 종결어미 발달」. 『언어청각장애연구』. 제9권 제3호, 22-35.
- 김예실. (2012). 『흥부와 놀부』. 대교.
- 김은정. (2008). “어휘를 통한 프랑스 문화 교육”.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정. (2010). 『눈으로 보는 한국 고전 6-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외』. 교원 올스토리.
- 김은형. (2007). “청소년 드라마의 상대 높임법 사용 양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남. (2008). 「한국어 담화 교육을 위한 논의-한국어 경어법 관련 표현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19권 2호, 123-152.
- 김정호. (2004). 「국어 높임법에 대한 체계적인 사회언어학적 접근」. 『겨

- 레이문학』. 33, 31-53.
- 김정호. (2004ㄴ). “20세기 전·후반기 국어 청자 높임법의 비교 연구 :  
-1920년대와 1970년대의 소설 자료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진희. (2012). “김유정 소설에 나타난 상대높임법의 사회언어학적 연구 ”.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정. (2015). 「문식성 발달 이론과 국어과 교육 내용으로서 문식성에 대  
한 검토」. 『국어교육연구』. 36권, 463-493.
- 나동숙. (2016). 「현대 한국어의 하오체·하계체 사용 양상 고찰과 교재 분석  
-한국어 학습자의 문화적 문식성 향상을 위하여-」. 『언어와 정보사  
회』. 27호, 59-84.
- 나은미. (2002). 「한국어 종결어미 ‘-ㅂ시다’의 의미」. 『이중언어학』. 제  
20호, 93-110.
- 남기심·고영근. (1993).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노명완. (2010). 「초등 저학년을 위한 문식성 교육」. 『한국초등국어교육』.  
제42집, 5-50.
- 노명완·박영목 외. (2008). 『문식성 교육연구』. 한국 문화사.
- 노명완·이차숙. (2002). 『문식성 연구』. 박이정.
- 레오 바이스게르버. (1993). 『모국어와 정신형성』. 허발 옮김. 문예출판사.
- 류일윤. (2007). 『흥부전의 반전동화 놀부전』. 글뿌리.
- 민수현. (2012). 『은혜 값은 까치』. 대교.
- 민향기. (2001). 「한국인의 정체성과 의사소통전략」. 『외국어로서의 독일  
어. (Deutsch als Fremdsprache in Korea)』. Vol. 12.
- 박노자. (2000). 「한국 문화 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어교육』. 제11  
권 2호, p.63-88.
- 박석준. (2005). 「초급 한국어 교재의 청자 높임법」. 『한말연구』. 17호.

85-106.

박선옥 외. (2010). 「자녀 교육 능력 향상을 위한 여성결혼이민자 특별 교육 프로그램 설계」. 『인문과학연구』. 제26집, 551-574.

박은진. (2015). 「국어교육의 목표로서 ‘문화적 문식성’ 개념에 대한 고찰」. 『국어교육연구』. 57, 133-168.

박인기. (2002). 「문화적 문식성의 국어교육적 재개념화」. 『국어교육학연구』. 15, 23-54.

박정현. (2015). “『삼대』의 친족 관계에 나타난 상대격어법의 등급과 실현 양상 연구”. 울산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준용. (2014). 「검정 국어 교과서 삽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글과의 관계에 따른 삽화의 의미 구성적 기능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제44집, 401-430.

박지순. (2014 ㄱ). 「한국어교육을 위한 상대높임법 체계의 제 문제」. 『문법 교육』. 20호, 87-118.

박지순. (2014 ㄴ). 「상대높임법 교육 관점 비교-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제46집, 77-102.

박지순. (2015 ㄱ). 「한국어교육을 위한 하오체, 하계체 교육 내용 연구」. 『이중언어학』. 제59호, 53-81.

박지순. (2015 ㄴ). “현대 국어 상대높임법의 맥락 분석적 연구 : 일상적 준구어 자료의 분석을 바탕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백봉자. (200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사전』. 도서출판 하우.

서보영. (2014). 「고전소설 변용을 통한 문화적 문식성 교육 연구-학습자의 〈춘향전〉 변용 양상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vol.33, 75-101.

서유경. (2009). 「판소리를 통한 문화적 문식성 교육 연구」. 『판소리연구』. vol28, 171-196.

서정수. (1980). 「존대말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II): 청자대우 등급의

- 간소화」. 『한글』 167, 357-387.
- 서정수. (1984). 『존대법의 연구, 현행 대우법의 체제와 문제점』. 한신문화사.
- 서혁·박지윤. (2009). 「다문화가정 학생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읽기 능력에 대한 사례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36권, 393-423.
- 성기철. (2007). 『한국어 대우법과 한국어교육』. 글누리.
- 송언. (2008). 『바리데기』 (송언 글. 변해정 그림). 한림출판사.
- 신경숙. (2001). 「19세기 연행 예술의 유통구조-가곡 (시조문학)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167, 357-387.
- 신세정. (2010). 『방귀쟁이 머느리』 (신세정 글·그림). 사계절.
- 신호철. (2012). 「맥락 중심의 문법 교육 내용 기술 방안 연구-높임 표현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 연구』. 제 43집, 323-348.
- 엄경옥. (2002). 「현대국어 청자대우법 화계에 대한 고찰」. 『어문논집』 제 30호, 79-98.
- 엄경옥. (2008). “현대 한국어 청자대우법 사회언어학적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오광근. (2013). 「한국어 교재의 경어법 대화문 제시의 문제와 그 해결 방안」. 『새국어교육』. 제94호, 341-360.
- 오광근. (2013). 「한국어 교재의 경어법 대화문 제시의 문제와 그 해결 방안」. 『새국어교육』. 제94호, 341-360.
- 왕문용, 민현식. (1993). 『국어문법론의 이해』. 개문사.
- 왕한석 외. (2005). 『한국 사회와 호칭어』. 도서출판 역락.
- 원진숙. (2008). 「다문화 시대의 초등학교 국어과교육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교육 지원 방안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32권, 269-303.
- 유피재. (2014). 「현대국어 하오체의 변화에 대하여」. 『국어학』. 제 70집,



59-82.

윤여탁. (2007). 「비판적 문화 연구와 현대시 연구 방법」. 『현대시학연구』. 18, 71-83.

윤여탁. (2013). 『문화교육이란 무엇인가』. 태학사.

윤여탁. (2015). 「한국에서의 문식성 교육의 반성과 전망」. 『국어교육연구』. 제36집, 535-561.

이경미. (2014). “개념학습 상황모형에 기초한 전래 동화 활용-조부모 참여프로그램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양상-”. 강릉 원주대학교 박사논문

이경우. (1990). 「현대국어 경어법의 사회언어학적 연구(3)」. 『국어교육』. Vol.13, 545-587.

이남호. (2014). 「국어교육의 성격과 내용에 관한 일 고찰」. 『한말연구』. 35권, 133-153.

이승희. (2013). 「조선시대 한글편지에 나타난 친족 간의 청자높임법 사용 양상」. 『국어국문학』. 140, 253-274.

이유경. (2006). 「한국어 높임법 교육의 기초 연구-텔파이 연구방법을 바탕으로」. 『이중언어학』. 31호, 197-225.

이유기. (2007). 「한국어 청자대우법 교육의 문제점-전통적인 오해의 극복을 위하여-」. 『한국사상과 문화』. 제39집, 285-308쪽.

이은주. (2012). “소설 『토지』 속에 나타난 방언의 성격 : 조사와 어미를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은희. (2010). 「한국어 높임법 교육 내용 연구」. 『문법 교육』. 제13호, 281-315.

이익섭·이상억·채완. (1997). 『한국의 언어』. 신구문화사.

이익섭·임홍빈. (1983). 『국어문법론』. 학연사.

이익섭·채완. (1999). 『국어문법론 강의』. 학연사.

- 이정복. (1999). 「국어 경어법의 전략적 용법에 대하여」. 『어학연구』. Vol. 35, 91-121.
- 이정복. (2011). 「한국어 경어법의 주요 기능」. 『우리말글』. 52, 25-53.
- 이정복. (2012). 『한국어 경어법의 기능과 사용 원리』. 소통.
- 이정택. (2015). 「우리말 높임법의 본질과 상대 높임법 체계」. 『문법교육』. 24권 24, 145-160.
- 이형대. (2015). 「『악장가사』 소재 「어부가」의 생성과정과 작품세계」. 『고전문학연구』. 12, 35-57.
- 임동훈. (2006). 「현대국어 경어법의 체계」. 『국어학』. 제47집, 287-320.
- 임지룡. (2015). 「청자대우법의 화계와 해석」. 『언어과학연구』. 제72집, 347-376.
- 임지룡. (2015). 「학교문법 상대 높임법의 새로운 이해」. 『한민족어문학』. 69권, 359-398.
- 장성월. (2013). “현대국어의 상대경어법 연구 : 드라마 대본을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희은. (2009). “드라마 대본 말뭉치로 알아본 현대국어 상대높임법 체계 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광. (2004). 『(原本)노걸대』.김영사.
- 정광. (2007). 「제9회 한국어교육 국제학술대회(한국학과 한국어교육) : 해외 한국학과 한국어교육의 전망」. 『국어교육연구』. 제20집, 7-43.
- 조동호. (2008). 『우리 전래 동화 13가지 이야기』. 거인.
- 조영달·박운경. (2008). 『다문화 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인식 조사 -다문화 교육의 이해를 한 교양 교재 저술-』. 교육인적자원부.
- 조은아. (2013). “『삼대』의 사회관계에 나타난 상대경어법 연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희정. (2008). 「고전 정전의 재검토」. 『문학교육학』. 제25호, 297-328.

- 조희정. (2013). 「중세 문헌에 드러난 언어인식과 국어교육의 전사(前史)」. 『국어교육학연구』 46권0호, 183-214.
- 최동권·김양진·장향실. (2013). 「18세기 동북아시아 언어 교류-이른바 사역원 『노걸대』 류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23호, 37-82.
- 최석재. (2007). 「현대국어 대우법의 화계 구분에 대한 고찰-드라마 대본에 나타난 서울 지역 구어 환경을 대상으로-」. 『한국어학』. 37, 397-432.
- 최석재. (2008). “국어 대우법체계의 정보화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최인자. (2001). 「문식성 교육의 사회 문화적 접근」. 『국어교육연구』 8, 191-220
- 최홍원. (2015). 「문화적 문식성의 교육적 실현에 대한 방법적 회의」. 『국어교육연구』 36권0호, 595-633.
- 편해문 엮음(2008). 윤정주 그림. 『깨롱깨롱 놀이노래』. 보리.
- 하운섭. (2016). 고전문학 텍스트 해석의 문제-2009 개정 문학교과서 소재 사설시조 작품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문교육.19, 23-44.
- 한길. (2002). 현대 우리말의 높임법 연구. 역락.
- 허봉자. (2009).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경어법 교육 연구』. 박이정.
- 허상희. (2012). 『국어 공손표현의 화용론적 연구』. 소통.
- 황인교. (2008).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문화교육 연구」. 『언어와 문화』. Vo.4 No.3, 265-287.
- 황혜진. (2007). 『문화적 문식성 교육을 위한 고전소설과 영상변용물의 주제 비교』. 고전소설과 서사론. 월인.
- Zhang Lu. (2012). “한국 드라마에서의 상대높임법 사용 양상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초등 교과서〉

초등 국어 1-1 가, 나.(2015). (주) 미래엔. 서울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국정도서국어편찬위원회.

초등 국어 생활 1-1 가, 나.(2015). (주) 미래엔. 서울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  
학교 국정도서국어편찬위원회.

초등 국어 1-2 가, 나.(2017). (주) 미래엔. 서울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국정도서국어편찬위원회.

초등 국어 생활 1-2 가, 나.(2017). (주) 미래엔. 서울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  
학교 국정도서국어편찬위원회.

초등 국어 2-1 가, 나.(2015). (주) 미래엔. 서울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국정도서국어편찬위원회.

초등 국어 생활 2-1 가, 나.(2015). (주) 미래엔. 서울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  
학교 국정도서국어편찬위원회.

초등 국어 2-2 가, 나.(2017). (주) 미래엔. 서울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국정도서국어편찬위원회.

초등 국어 생활 2-2 가, 나.(2017). (주) 미래엔. 서울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  
학교 국정도서국어편찬위원회.

초등 국어 3-1 가, 나.(2014). (주) 미래엔. 서울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국정도서국어편찬위원회

초등 국어 생활 3-1 가, 나.(2014). (주) 미래엔. 서울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  
학교 국정도서국어편찬위원회.

초등 국어 3-2 가, 나.(2017). (주) 미래엔. 서울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국정도서국어편찬위원회

초등 국어 생활 3-2 가, 나.(2017). (주) 미래엔. 서울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  
학교 국정도서국어편찬위원회.

초등 국어 4-1 가. 나.(2014). (주) 미래엔. 서울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국정도서국어편찬위원회.

초등 국어 생활 4-1 가. 나.(2015). (주) 미래엔. 서울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  
학교 국정도서국어편찬위원회.

초등 국어 4-2 가. 나.(2017). (주) 미래엔. 서울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국정도서국어편찬위원회.

초등 국어 생활 4-2 가. 나.(2017). (주) 미래엔. 서울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  
학교 국정도서국어편찬위원회.

초등 국어 5-1 가. 나.(2018). (주) 미래엔. 서울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국정도서국어편찬위원회

초등 국어 생활 5-1 가. 나.(2018). (주) 미래엔. 서울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  
학교 국정도서국어편찬위원회

초등 국어 5-2 가. 나.(2017). (주) 미래엔. 서울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국정도서국어편찬위원회

초등 국어 생활 5-2 가. 나.(2017). (주) 미래엔. 서울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  
학교 국정도서국어편찬위원회

초등 국어 6-1 가. 나.(2015). (주) 미래엔. 서울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국정도서국어편찬위원회.

초등 국어 생활 6-1 가. 나.(2015). (주) 미래엔. 서울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  
학교 국정도서국어편찬위원회.

초등 국어 6-2 가. 나.(2017). (주) 미래엔. 서울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국정도서국어편찬위원회.

초등 국어 생활 6-2 가. 나.(2017). (주) 미래엔. 서울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  
학교 국정도서국어편찬위원회.

〈중등 국어 교과서〉

- 중학교 국어 1~6. 김종철 외. 천재교육. 2012.
- 중학교 국어 1~6. 김태철 외. 비상. 2012.
- 중학교 국어 1~6. 남미영 외. 교학사. 2012.
- 중학교 국어 1~6. 노미숙 외. 천재교육. 2012.
- 중학교 국어 1~6. 민현식 외. 좋은책 신사고. 2012.
- 중학교 국어 1~6. 박영목 외. 천재교육. 2012.
- 중학교 국어 1~6. 방민호 외. 지학사. 2012.
- 중학교 국어 1~6. 우한용 외. 좋은책 신사고. 2012.
- 중학교 국어 1~6. 윤여탁 외. 미래엔. 2012.
- 중학교 국어 1~6. 이관규 외. 비상. 2012.
- 중학교 국어 1~6. 이도영 외. 창비. 2012.
- 중학교 국어 1~6. 이삼형 외. 동아출판사. 2012.
- 중학교 국어 1~6. 전경원 외. 동아출판사. 2012.
- 중학교 국어 1~6. 한철우 외. 비상. 2012.

- Chris Barker & Dariusz Galasinski. *Cultural Studies and Discourse Analysis. A Dialogue on Language and Identity*. 『문화연구와 담론 분석, 언어와 정체성에 대한 담화』, 크리스 바커, 다리우시 갈리신스키 지음, 백선기 옮김,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 David Barton, *Literacy: An Introducing to the Ecology of Written Language*, John Wiley & Sons Limited, 2007, 『문식성 문자 언어 생태학 개론』, 김영란 등 옮김, 2014,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 Diane H. Tracey, Lesley Mandel Morrow, *Lenses on Reading: An Introduction to Theories and Models*, 2/E, The Guilford Publication, Inc. 2012, 『읽기 교육 이론의 새로운 지평』. 2판 (2015). 박태호, 이경화 외 역, 아카데미프레스.
- Durant C. & Green B.(2001). “Literacy and the New Technologies in School Education”, Fehring H. & Green P.(ed). *Critical Literacy: A Collection of Articles from the Australian Literacy Educators’ Association*, Intrados Group.
- E. D. Hirsch, Jr.. *Cultural Literacy : What Every American Needs to Know*, Boston, 1987년
- Edward T. Hall. (1969). *The Silent Language*, 1959, 『침묵의 언어』, 최효선 역, 한길사, 2013.
- Graves, M. F.. (2006). *The vocabulary book: Learning and instruction*,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Rivers, M. W. . (1981). *Teaching Foreign Language Skills*, 2nd e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ABSTRACT

### Analysis on the Usage of Hao-style and Hage-style Honorifics in Contemporary Korean Language and Reflection on its Cultural Litera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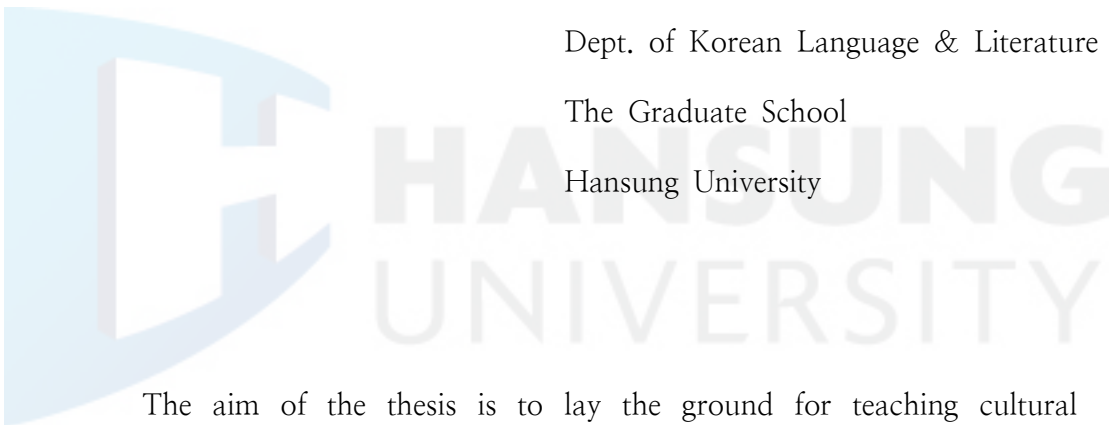
Na, Dong Sook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Dep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e logo of Hansung University is located on the left side of the page. It consists of a stylized blue 'H' shape. A large, light blue watermark of the university's name, 'HANSUNG UNIVERSITY', is overlaid diagonally across the center of the page.

The aim of the thesis is to lay the ground for teaching cultural literacy for Korean language learner for specific purposes. In the research, I analyze the usage of Hao-style and Hage-style in contemporary Korean language and reflect on cultural literacy embedded in it. Relative Honorifics is one of the distinctive linguistic features of Korean language, which appears at the end of the sentence. It shows a relation between the speaker and listener, and its style varies depending on the degree of honorifics and formality. In contemporary Korean language, the opportunity to come across Hao-style and Hage-style honorifics in daily life language usage has been declined.

However, native Korean speakers continue to employ Hao-style and Hage-style honorifics in various content such as literature, TV, drama, movies, and advertisement. I suggest that the continuous application of Hao-style and Hage-style honorifics in various content is due to its cultural literacy, a concept developed by E.D. Hirsch, Jr.. In other words, contextual information commonly shared by native Korean speakers are inherited in Hao-style and Hage-style honorifics. Then, the ability to understand Hao-style and Hage-style honorifics is not only to apprehend the explicit content, but also to grasp the intention of the speaker and relate it to a broader context, which is inexplicit in the content.

Native Korean speakers continue to acquire cultural literacy of Hao-style and Hage-style honorifics through Korean folk tales for children and Korean language textbook for prim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To confirm that native Korean speakers understand Hao-style and Hage-style honorifics in terms of its cultural literacy, I examined Korean folk tales for children in nursery education. Also, from Korean language textbooks of primary and middle school used in national common curriculum, I listed all the texts with Hao-style and Hage-style honorifics and categorized them accordingly.

As a result, I discover that the number of texts with and type of Hao-style and Hage-style honorifics increase gradually in Korean language textbook for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It shows that native Korean speakers expand and deepen cultural literacy of Hao-style and Hage-style honorifics through national common curriculum.

After analyzing concrete texts with Hao-style and Hage-style honorifics from Korean folk tales for children and Korean language textbook for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I reflect on cultural literacy of Hao-style and Hage-style honorifics and point out three features:

- 1) knowledge on traditional culture and history, 2) normative and
- 3) strategic usage of Hao-style and Hage-style honorifics.

First of all, native Korean speakers use Hao-style and Hage-style honorifics as an appropriate mechanism to convey knowledge on traditional culture, custom and history. It shows that they recognize Hao-style and Hage-style honorifics as a suitable linguistic form to provide information on traditional culture, custom and history. Secondly, normative usage of Hao-style and Hage-style honorifics is enabled because native Korean speakers understand the typical patterns and contexts in which Hao-style and Hage-style honorifics is implemented. Finally, from various speech level in honorifics, native Korean speakers strategically employ Hao-style and Hage-style honorifics to express subtle intention of the speaker. Moreover, considering the typicality of context in which Hao-style and Hage-style honorifics are used, it serves to create a specific atmosphere or characteristic of a person.

Without a proper education on cultural literacy of Hao-style and Hage-style honorifics which native Korean speakers gradually accumulate through public education, it is unlikely that Korean language learners will be able to grasp cultural literacy of Hao-style and Hage-style honorifics and apprehend various linguistic texts with it. Especially, for Korean language learners who plan to reside in Korean for long term such as marriage immigrants and immigrated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for those who apply for permanent residency or naturalization process, it is of importance to be able to acquire a proper level of cultural literacy embedded in Hao-style and Hage-style honorifics. Also, foreign students of Korean studies will also encounter Hao-style and Hage-style honorifics when they study history, society and culture of Korea. In such cases, they are required to possess a level of cultural literacy equivalent to that of native Korean speakers in order to

understand specific historical and cultural context and background information.

The aim of learning Korean language should focus on improving cultural literacy by learning Korean culture expressed in Korean language. With a proper level of cultural literacy, Korean language learners will be able to engage in communication in sufficient depth with native Korean speakers. Furthermore, cultural literacy developed through education on Hao-style and Hage-style honorifics in Korean language will open doors for Korean language learners to demonstrate their potential to practice interculturalism based on their mother tongue and own culture.

Key words: Relative honorifics, Speech level, Hao-style, Hage-style, Literacy development, Cultural literacy, Context, Normative usage, Strategic usage, Vocabulary of traditional culture, Linguistic knowledge, Historical knowledge, Korean language education.